삼정 KPMG

Industry Financial Analysis

December 201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459
doobeenyim@kr.kpmg.com

엄이슬
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 2016 Samjong KPMG ERI Co.,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Contents(1/3)

	Page
Executive summary	**5**
연구목적과 범위	**6**
-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6
- 연구의 범위	6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7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8**
- 분석자료: 한국신용평가 KIS-VALUE의 개별기업 재무정보	8
- 활용지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 활동성으로 구분	8
-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Trimmed mean	11
철강 산업 전체	**12**
- 성장성	12
- 수익성	13
- 안정성·유동성	14
- 활동성	15
제철업	**16**
- 성장성	16
- 수익성	17
- 안정성·유동성	18
- 활동성	19
제강업	**20**
- 성장성	20
- 수익성	21
- 안정성·유동성	22
- 활동성	23
합금철 제조업	**24**
- 성장성	24
- 수익성	25
- 안정성·유동성	26
- 활동성	27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8**
- 성장성	28
- 수익성	29
- 안정성·유동성	30
- 활동성	31

삼정 KPMG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Contents(2/3)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2

- 성장성 32
- 수익성 33
- 안정성·유동성 34
- 활동성 35

철강선 제조업 36

- 성장성 36
- 수익성 37
- 안정성·유동성 38
- 활동성 39

주철관 제조업 40

- 성장성 40
- 수익성 41
- 안정성·유동성 42
- 활동성 43

강관 제조업 44

- 성장성 44
- 수익성 45
- 안정성·유동성 46
- 활동성 47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 48

- 성장성 48
- 수익성 49
- 안정성·유동성 50
- 활동성 51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52

- 성장성 52
- 수익성 53
- 안정성·유동성 54
- 활동성 55

선철주물 주조업 56

- 성장성 56
- 수익성 57
- 안정성·유동성 58
- 활동성 59

삼정 KPMG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Contents(3/3)

강주물 주조업 **60**

- 성장성 60
- 수익성 61
- 안정성·유동성 62
- 활동성 63

2015년 철강 산업 공급체인별 재무비율 비교 **64**

Appendix :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 정의 및 예시와 외감대상기업수 **68**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Executive Summary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산업내 개별기업의 실적과 동조화(Coupling) 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최근 산업 재무분석은 해당 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은 물론 투자자, 외부감사인, 정책입안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철강 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무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여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 활동성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까지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철강 산업내 업종간 비교를 통해 철강 산업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있는 세부업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급체인 관리상에서의 가시성(visibility)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 **산업 재무분석의 활용**

- 개별기업: 자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의 성장기와 쇠퇴기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예측. 또한 동종산업내에서 자사의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투자자: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외부감사인: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위험(Audit Risk)을 파악
- 정책입안자: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 분석대상: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외부감사대상기업 24,997개의 2011년~2015년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인 '1차 금속 제조업' 중에 비철금속 분야를 제외한 539개의 기업
- 성장성 활용지표: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수익성 활용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 안정성 및 유동성 활용지표: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활동성 활용지표: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 연구방법: 산업 재무비율의 평균값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Trimmed mean 기법을 활용하여 상하위 5%의 값을 제거한 후 계산된 평균값을 사용

■ **철강 산업 공급체인별 재무비율 비교분석**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주철관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철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철관 제조업과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내 모든 업종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음. 선철주물 제조업은 순이익증가율에서, 주철관 제조업은 총자산증가율에서 산업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임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제철업의 수익성이 산업내 가장 높았으며, 매출액총이익률은 주철관 제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합금철 제조업, 열연 제조업, 강관 제조업, 강주물 제조업은 매출액순이익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 안정성 및 유동성: 부채비율의 경우 냉연 제조업이 산업내 타업종과 비교할 때 앞도적으로 높았으며, 제철업의 부채비율은 산업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유동비율의 경우 철강선 제조업이 산업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선철주물 제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성: 선철주물 제조업의 재고관리가 산업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합금철 제조업이 산업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철강선 제조업이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됨. 매입채무회전율은 합금철 제조업이 산업내 가장 높았으며, 제강업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연구목적과 범위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최근 들어 특정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산업내 개별기업의 실적과 동조화(Coupling) 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철강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유가 지속과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 석유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은행들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그 산업에 속한 특정기업만 승승장구하기란 현대의 산업구조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산업내 개별기업의 실적과 동조화 되는 현상이 심화"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재무분석은 개별기업과 투자자, 외부감사인, 정책입안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산업 재무분석은 일반적으로 산업의 평균적 재무비율을 사용한다. 개별기업은 자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의 성장기와 쇠퇴기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사의 재무적 성과가 산업의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자사의 개별적 성과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종산업내에서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산업 평균 재무비율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외부감사인은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위험(Audit Risk)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종종 접하게 되는 특정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은 산업의 평균적인 재무비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산업전반과 동떨어진 재무비율을 보이고 있다면 보다 철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자의 경우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 "2011 년 ~2015 년 철강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변동을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철강 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 활동성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의 평균 재무비율을 도출하여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세세분류업종의 횡단면 재무비율 비교분석을 통해 철강 산업의 공급체인상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산업의 재무비율을 분석한 대표적인 보고서로 한국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과 네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세세분류 범위까지 세분화된 업종을 분석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임"

첫째, 한국은행은 기업경영분석은 각 산업의 재무비율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까지만 제시하여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의 재무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의 경우 '1차 철강', '금속 주조업' 의 두가지 범주로 크게 묶은 재무비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부업종에서의 재무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까지 평균 재무비율을 도출하여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어 5년간 재무비율의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둘째,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성장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각 산업의 재무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 없이 3개년의 수치를 통계표로 간단히 제시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각 산업의 재무비율 시계열을 최근 5년간으로 확장하여 재무비율의 변동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로 나타내어 독자가 재무비율의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그리고 각 산업별 결과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독자가 재무비율 변동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재무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한정하여 분석"

셋째,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의 조사대상은 국세청 법인세신고기업으로 50만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의 경우 왜곡될 경우가 많아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한정한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산업내 업종간 비교를 통해 철강 산업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세부업종을 파악"

넷째,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각 산업의 재무비율 숫자만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산업의 기회와 위험요인이 공급체인의 어느 부문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철강 산업에 속한 세부업종의 2015년 횡단면 재무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산업내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세부업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급체인 관리상에서의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자 했다.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분석자료: 한국신용평가 KIS-VALUE의 개별기업 재무정보

"'1차 금속 제조업'중 비철금속분야를 제외한 539개 기업의 재무정보를 KIS-VALUE에서 추출"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2016년 5월까지 업데이트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4,997개의 개별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인 '1차 금속 제조업' 중에 비철금속 분야를 제외한 539개의 기업을 추출했다. 한편 철강 산업의 세부업종별로 재무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철강 산업에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재무비율을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 범위에서도 각각 평균 재무비율을 도출했다. 다만 13개의 세세분류에서, 외감 기업수가 1개인 철강관 제조업의 경우 평균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1차 금속 제조업(비철금속 제외)의 세세분류

세세분류	분석대상포함 유무
제철업	포함
제강업	포함
합금철 제조업	포함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포함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포함
철강선 제조업	포함
주철관 제조업	포함
강관 제조업	포함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포함
선철주물 주조업	포함
강주물 주조업	포함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포함
철강관 제조업	제외

Source: 한국표준산업분류,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본 연구에서는 세세분류별 재무분석외에 철강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 포함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무비율을 선별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 활동성으로 구분"

활용지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 활동성으로 구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특정한 두 항목 간의 비율로 표현되는 재무 비율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나, 경제적 의미가 있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재무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재무비율 중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재무비율을 선별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과 유동성, 활동성으로 구분한 후,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제시한다. 산업 평균 재무비율은 해당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표준비율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① 성장성 활용지표

> 성장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사용

산업의 성장성은 일정기간 동안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의 경영규모 및 기업 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평균적으로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의 건전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했다. 매출액증가율은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X100으로 산출되며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이 얼마만큼 잘 팔리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다. 순이익증가율은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전기순이익X100으로 산출되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기업의 최종이익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총자산증가율은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X100으로 산출되며, 기업의 자산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② 수익성 활용지표

> 수익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사용

산업의 수익성은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 및 이익창출능력을 측정하여 평균한 것으로, 생산·판매 등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사용했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은 영업이익/매출액X100으로 산출되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매출액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매출액X100으로 산출되며, 기업의 원가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이다. 또한 매출액순이익율은 당기순이익/매출액X100으로 산출되며, 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에서 영업 및 영업외비용, 세금 등을 모두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기업경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창출해낸 이익률이다.

③ 안정성 및 유동성 활용지표

> 안정성 및 유동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사용

산업의 안정성은 개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적정 성장과 수익을 실현하면서 장기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한 것이고, 산업의 유동성은 단기채무에 대한 개별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여, 평균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했고, 유동성 비율로 유동비율을 활용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자기자본X100으로 자본조달 구성을 살펴보는 비율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또 다른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총자산X100으로 산출되며,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또한,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X100으로 산출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④ 활동성 활용지표

산업의 활동성은 개별 기업이 조달한 자본 또는 투입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평균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지표로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을 사용했다.

"활동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사용"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평균재고자산으로 산출되며,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매출채권으로 산출되며 연중 매출채권잔액이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하여 현금으로 회전되는 속도를 의미한다. 회전율이 낮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므로, 그에 따른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감소의 원인이 된다. 또한,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출액/매입채무로 산출되며, 매입채무가 얼마나 빨리 지불되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이다.

분석목적별 활용 재무비율

분석목적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X100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전기순이익X100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X10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X100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 X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X100
안정성 및 유동성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X10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활동성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평균재고자산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액/매입채무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Trimmed mean

산업 재무비율의 평균값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해야 한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치를 포함하여 평균을 도출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계량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Trimmed mean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mmed mean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거한 후 도출한 평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 Trimmed mean은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전체 자료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5%의 Trimmed mean은 상위와 하위 5% 값을 제거한 후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50%의 Trimmed mean은 자료의 중앙값(median)을 의미한다.

> "현실적인 의미 도출을 위해 표본의 상하위 5%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Trimmed mean 값을 사용"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철강 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평균은 2.79%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하위 5%를 제거한 평균인 -5.65%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상하위 5%가 산업의 현실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평균은 기본적으로 표본이 많을 수록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5%의 상하위 자료를 제거한 Trimmed mean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세세분류에 속하는 기업의 관측치가 20개 미만인 경우, 5%의 Trimmed mean이라 할지라도 전체자료의 평균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하위 각각 1개의 기업을 제거하고 평균값을 도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세세분류에서 합금철 제조업 기업의 수가 13개라고 한다면 5%의 Trimmed mean 값이 아닌 10%의 Trimmed mean 값을 구해야 상하위 각각 1개 기업이 제외된다. 다만, 제철업과 제강업에 속한 기업은 모두 업계에 잘 알려진 소수의 대기업 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사용하였다.

2015년 철강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Trimmed mean

범위(%)	관측치 수	Trimmed mean
0	526	2.79
5	474	-5.65
10	422	-5.98
15	370	-6.22
20	316	-6.36
25	264	-6.37
30	212	-6.34
35	158	-6.36
40	106	-6.39
45	54	-6.42
50	2	-6.45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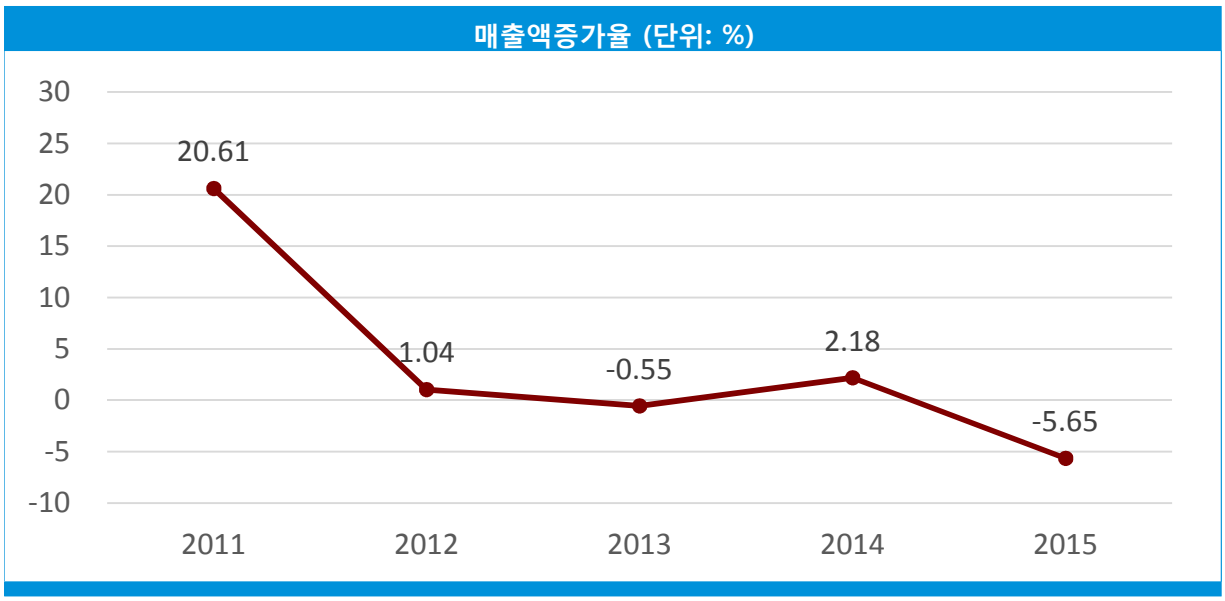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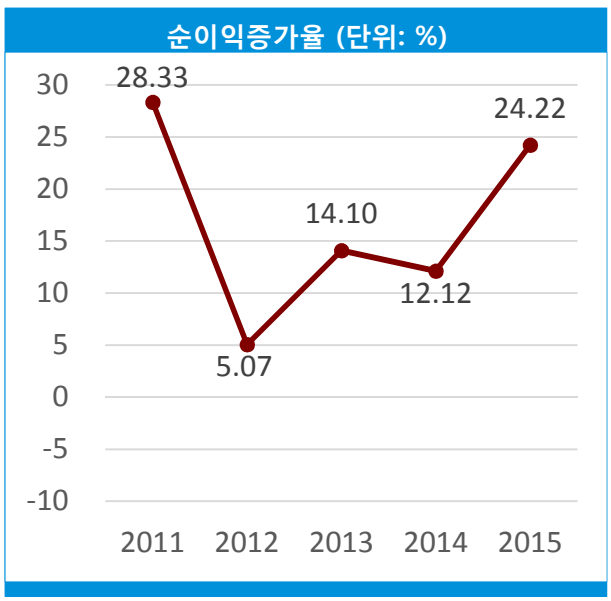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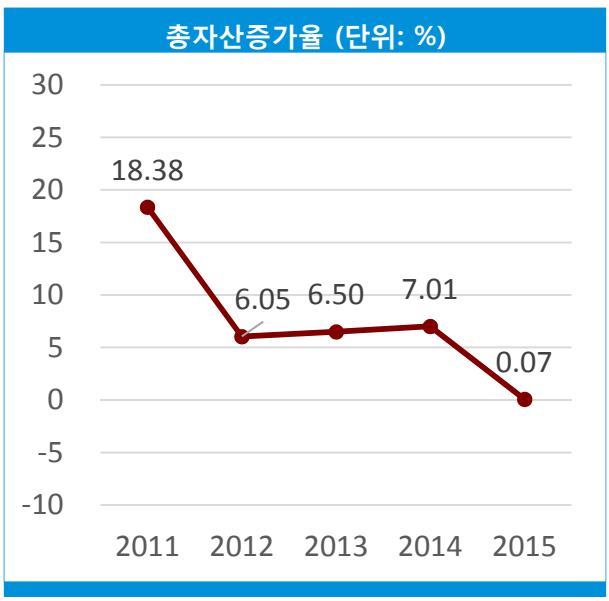
철강 산업 전체

성장성

철강 산업 전체의 단기적 성장을 보여주는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0.61%로 높은 수치였으나, 2012년에 1.04%로 급락한 이후 2015년에는 -5.6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이 최종적으로 시현한 이익의 변화를 나타내는 순이익증가율은 2011년의 28.33%에서 2012년에 5.07%로 급감한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24.22%를 기록했다. 장기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의 18.38%에서 2012년 이후에는 3년간 6~7%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0.07%로 하락했다.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전체의 성장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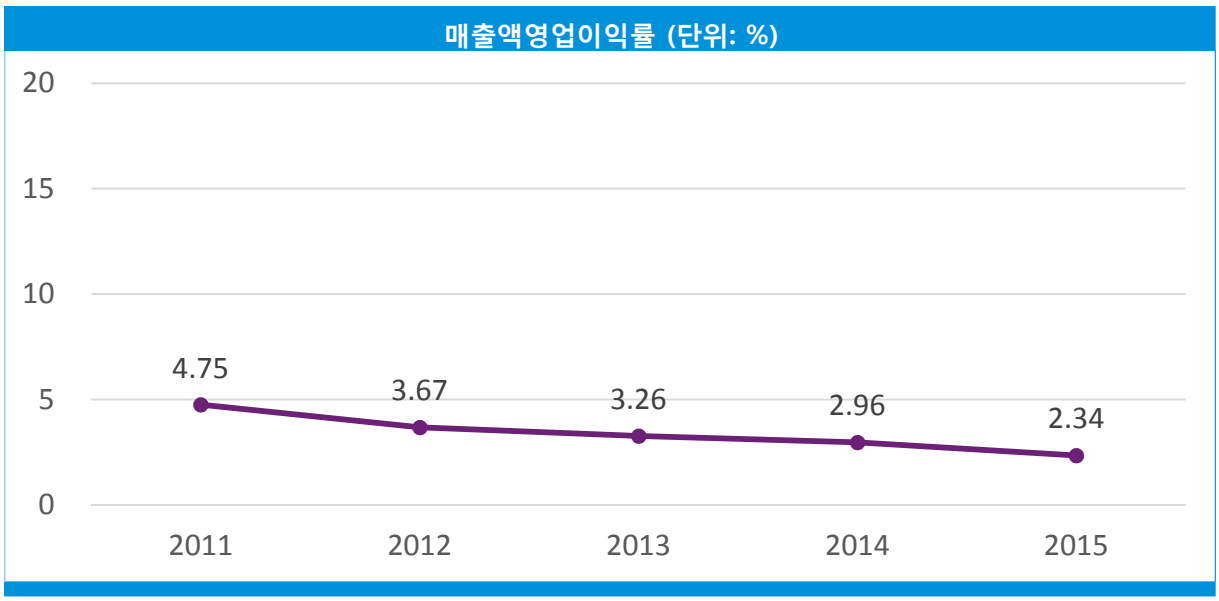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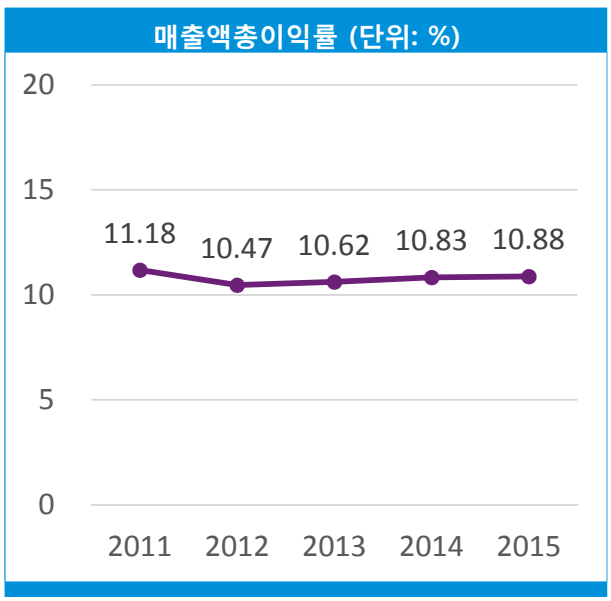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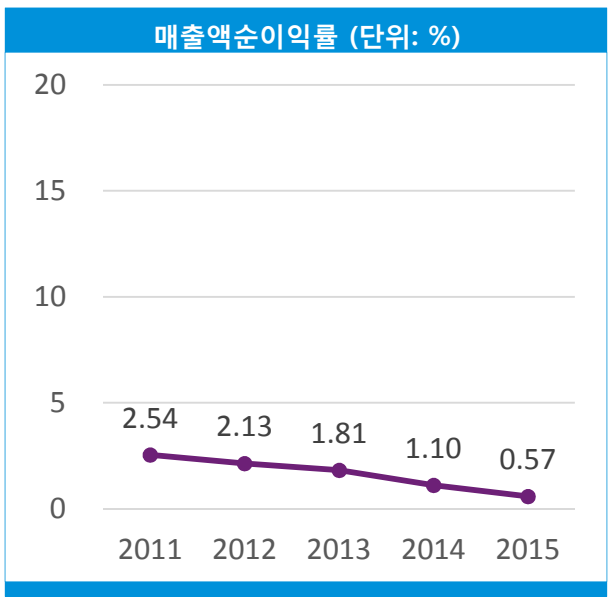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철강 산업 전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의 4.75%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한편, 2011년 11.18%였던 매출액총이익률은 2012년에 10.47%로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변동성이 미미하여 지속적으로 2015년까지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경영활동의 최종 이익률인 매출액순이익률은 2011년 2.54%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 0.57%를 보였다. 글로벌 수요둔화와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 전체의 수익성은 성장성 둔화와 함께 다소 악화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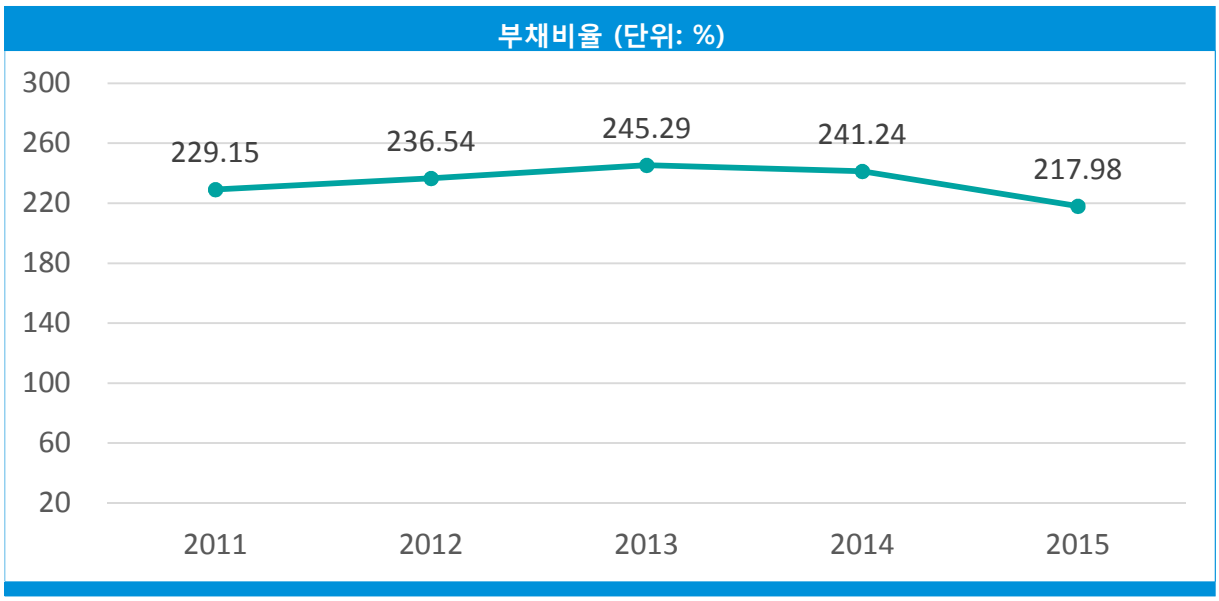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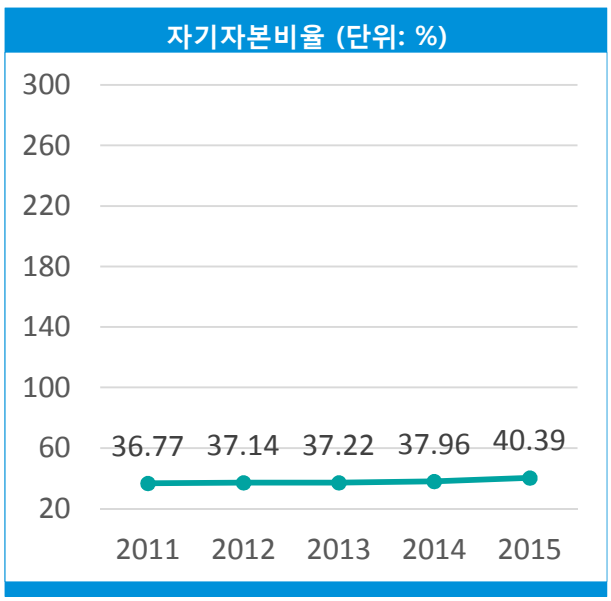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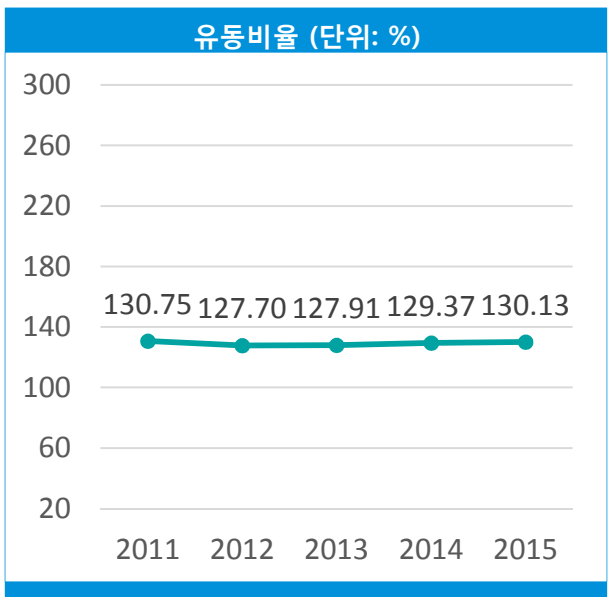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철강 산업 전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2013년 245.29%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지난 5년간의 최저치인 217.98%를 기록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의 36.7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40.39%로 나타났다.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2012년의 127.7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시작하여 2015년 130.13%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채비율의 하락, 자기자본비율의 상승, 유동비율의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의 재무적 안정성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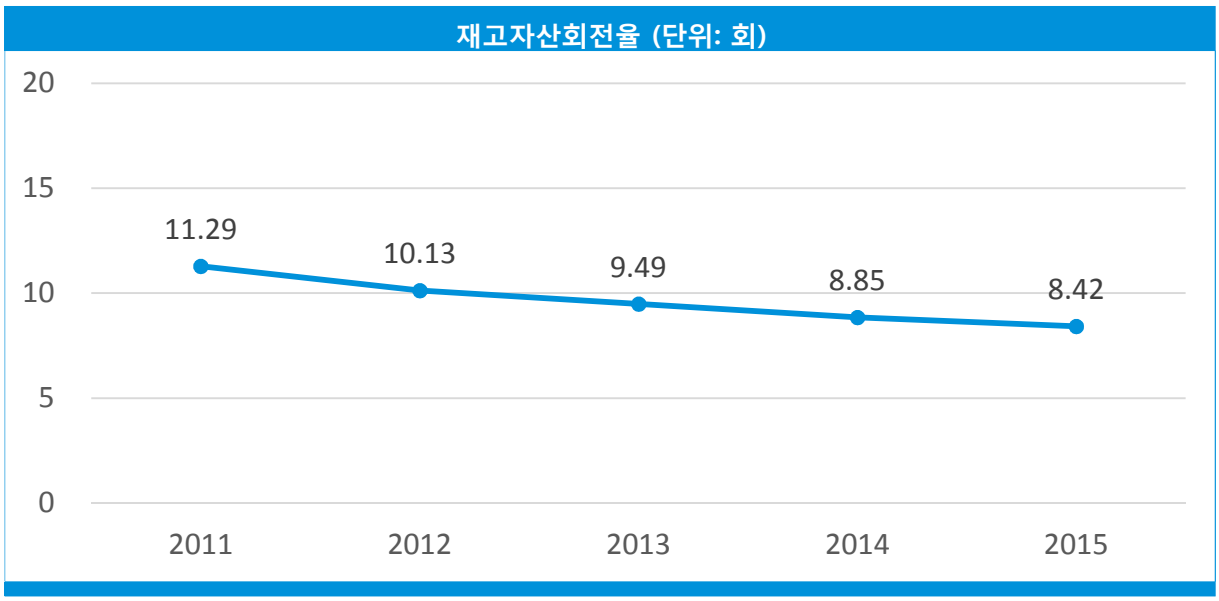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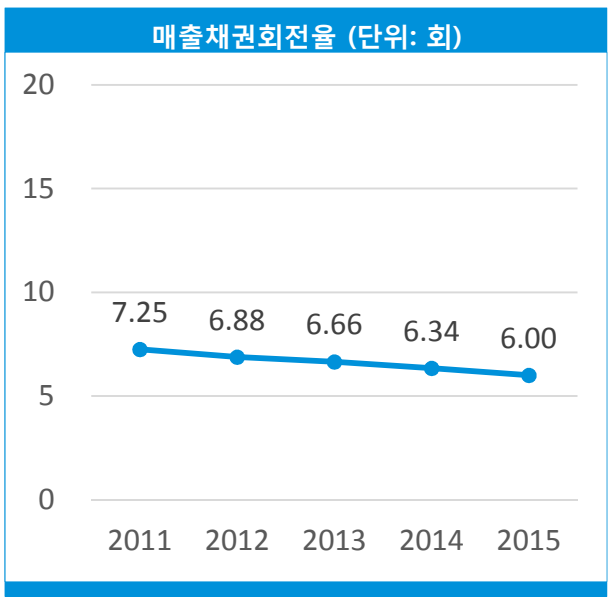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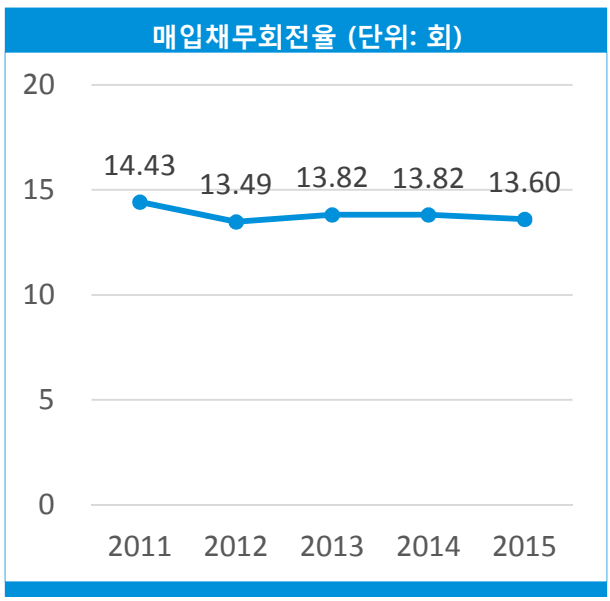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철강 산업 전체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 11.29회에서 2015년 8.42회로 나타나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11년의 7.25회에서 2015년 6.00회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도 2011년 14.43회에서 2015년 13.60회로 매입채무의 변제기간이 다소 늦춰졌다. 종합하면, 철강 산업 전체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철강 산업의 활동성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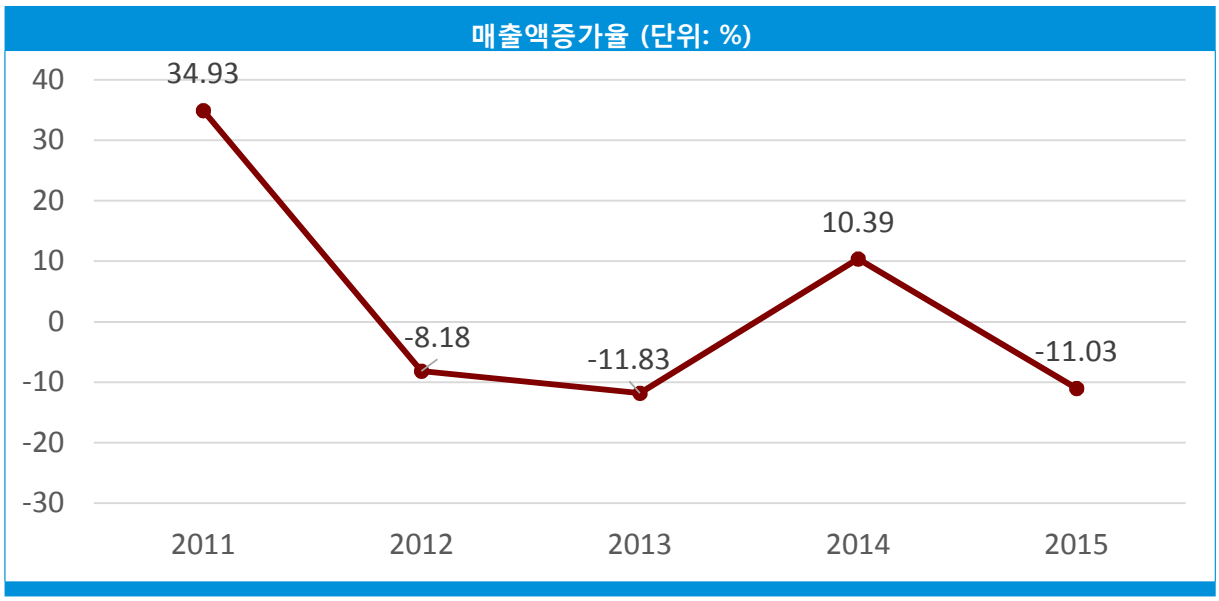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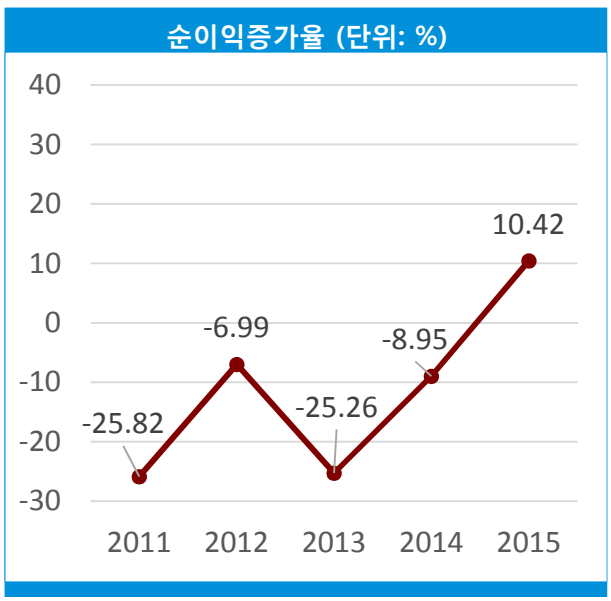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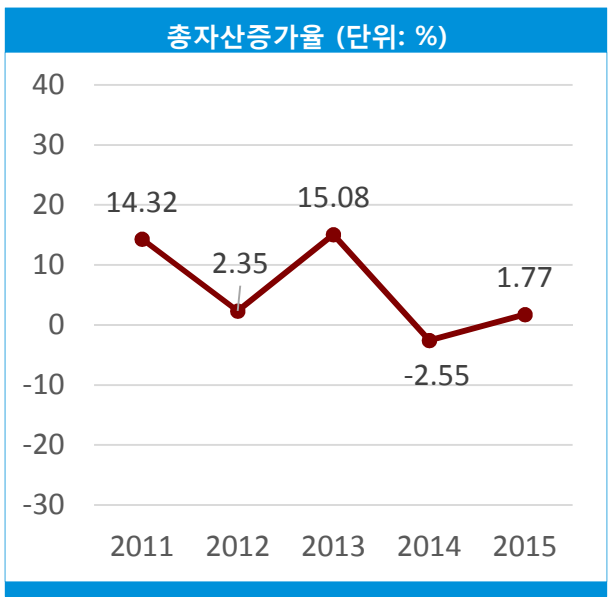
제철업

성장성

제철업은 철광석, 원료탄 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철업으로 분류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소수의 두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철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34.93%에서 2012년 -8.18%로 급락하였고, 이후 상승하여 2014년 10.39%로 반등하였으나, 2015년 다시 -11.0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순이익증가율의 경우 2015년 들어 다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 성장잠재력인 총자산증가율의 경우도 2011년 14.32%에서 2015년 1.77%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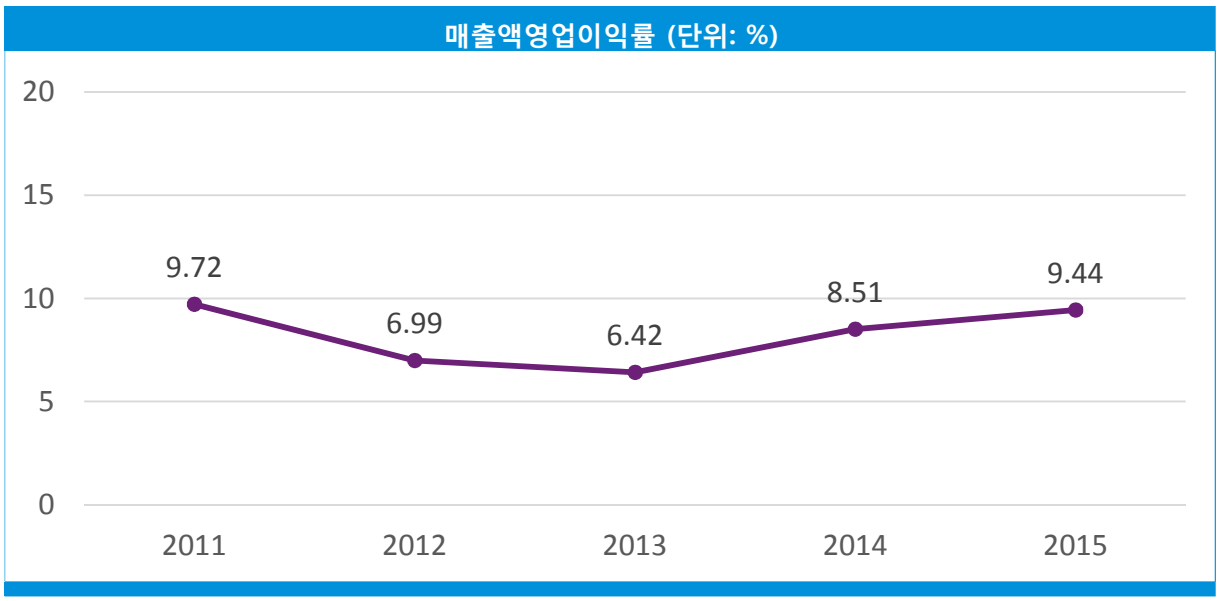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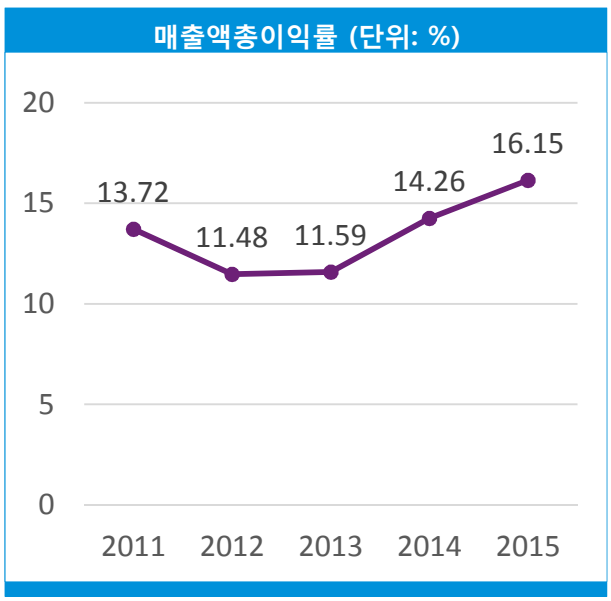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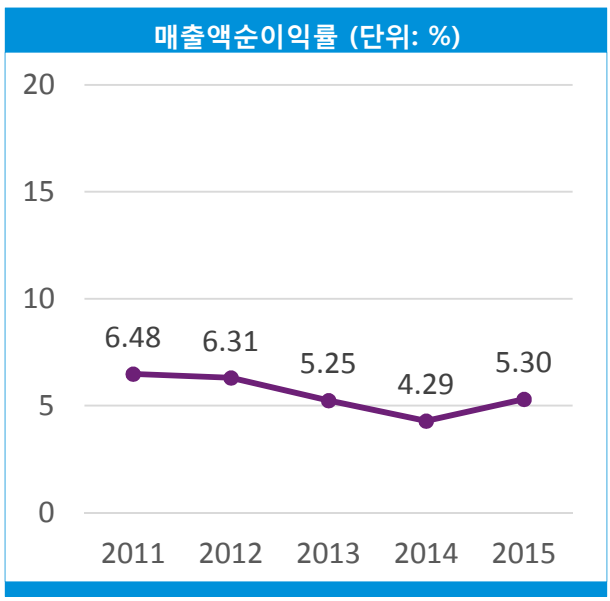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제철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의 6.42%에서 2015년에 9.44%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매출액총이익률도 2013년 11.59%에서 2015년에는 16.1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원가관리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4.29%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5.30%로 소폭 개선되었다. 종합하면, 제철업의 경우 매출액의 감소 등 성장성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재무비율로 본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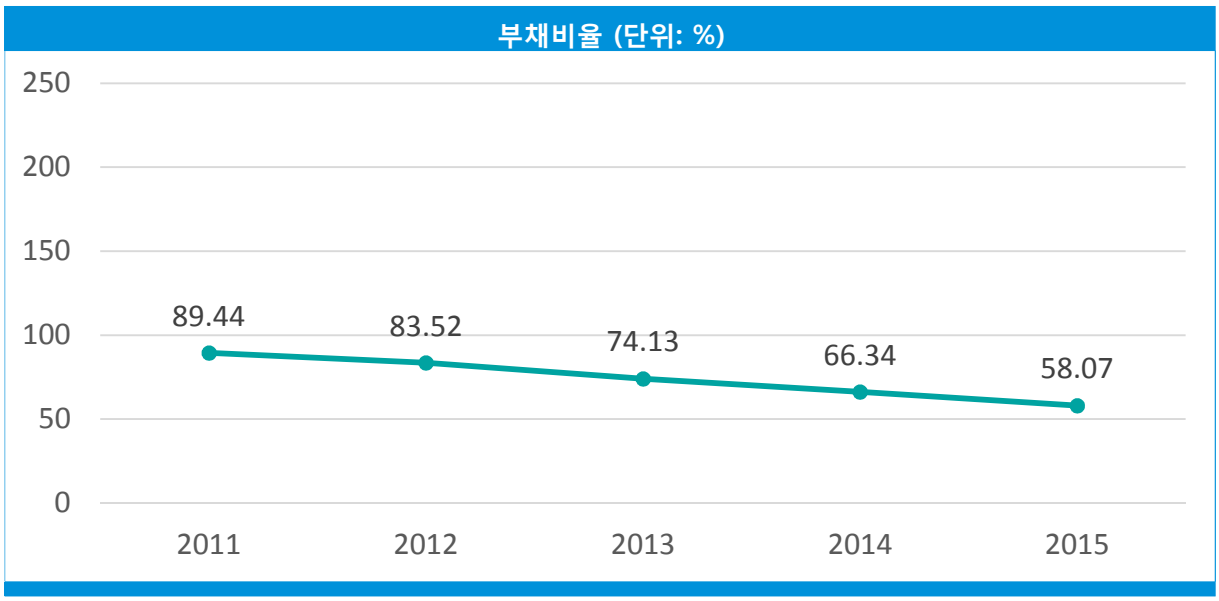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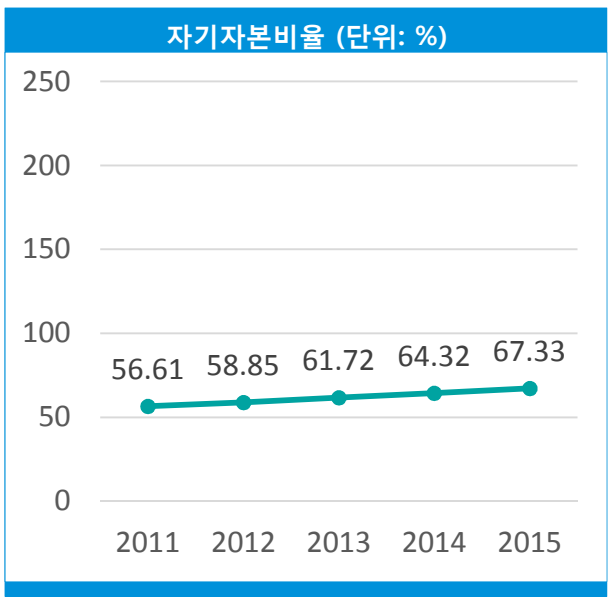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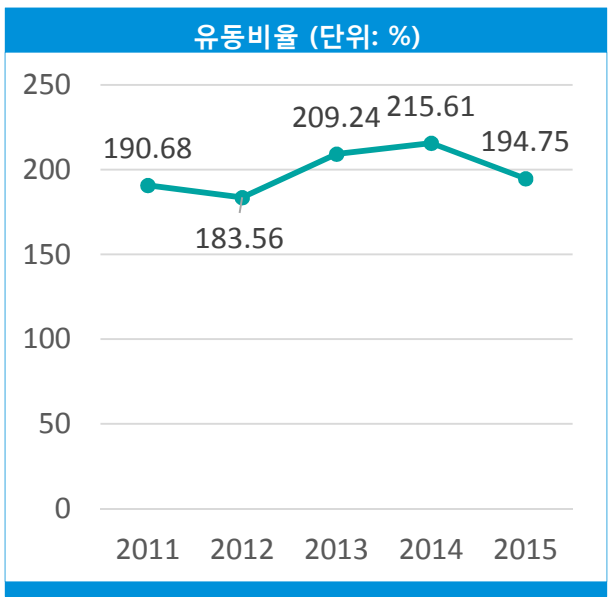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제철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89.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58.07%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철강 산업 전체 부채비율 평균인 217.98%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의 56.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67.33%를 기록했다. 반면 유동비율은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215.61%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194.75%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변동 추이를 볼 때, 제철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단기지급능력은 다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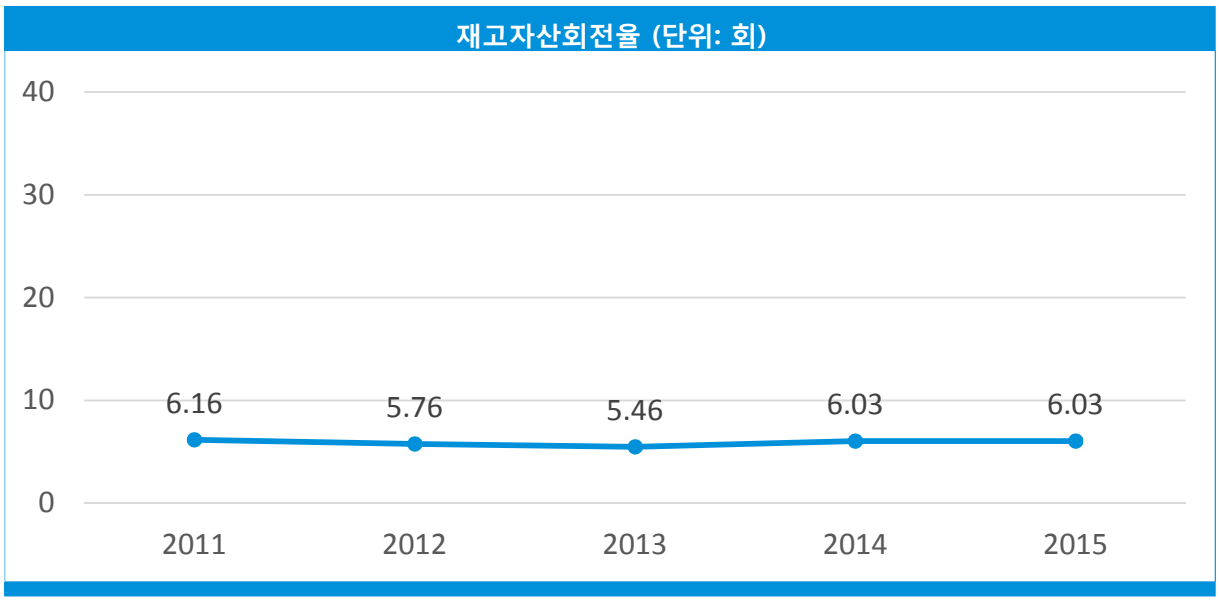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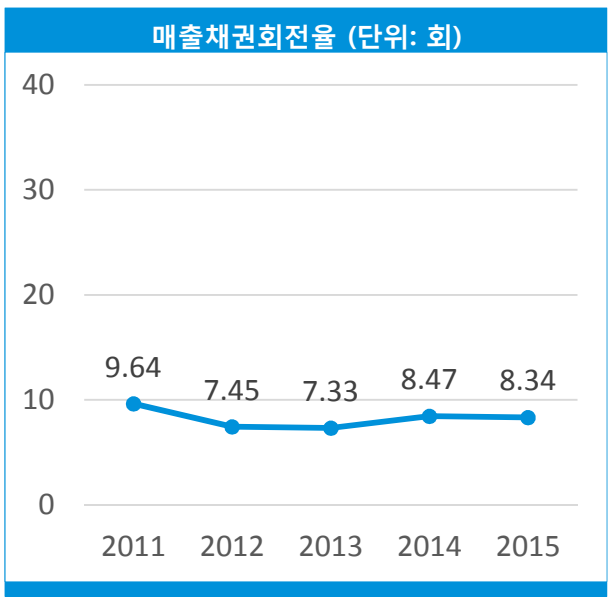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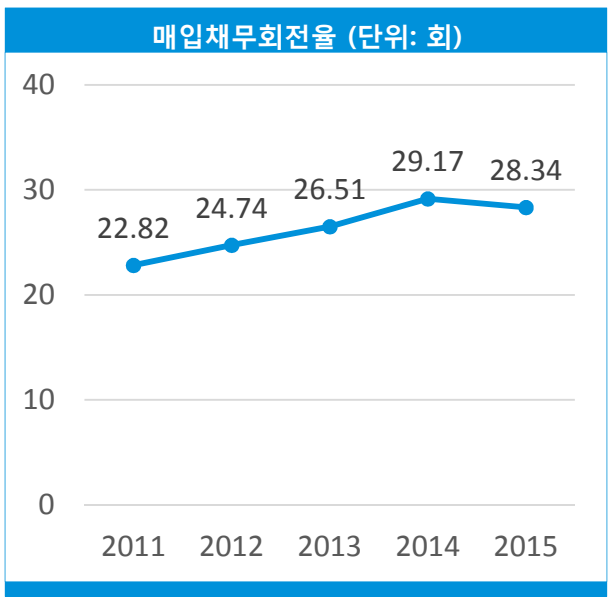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제철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의 6.16회에서 2015년에 6.03회로 소폭 하락했으나, 분석기간인 5년 동안의 변동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매출채권회전율도 2011년 9.64회에서 2015년 8.34회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의 22.82회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28.34회를 기록했다. 매입채무회전율의 상승은 매입채무의 변제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채무 상환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철업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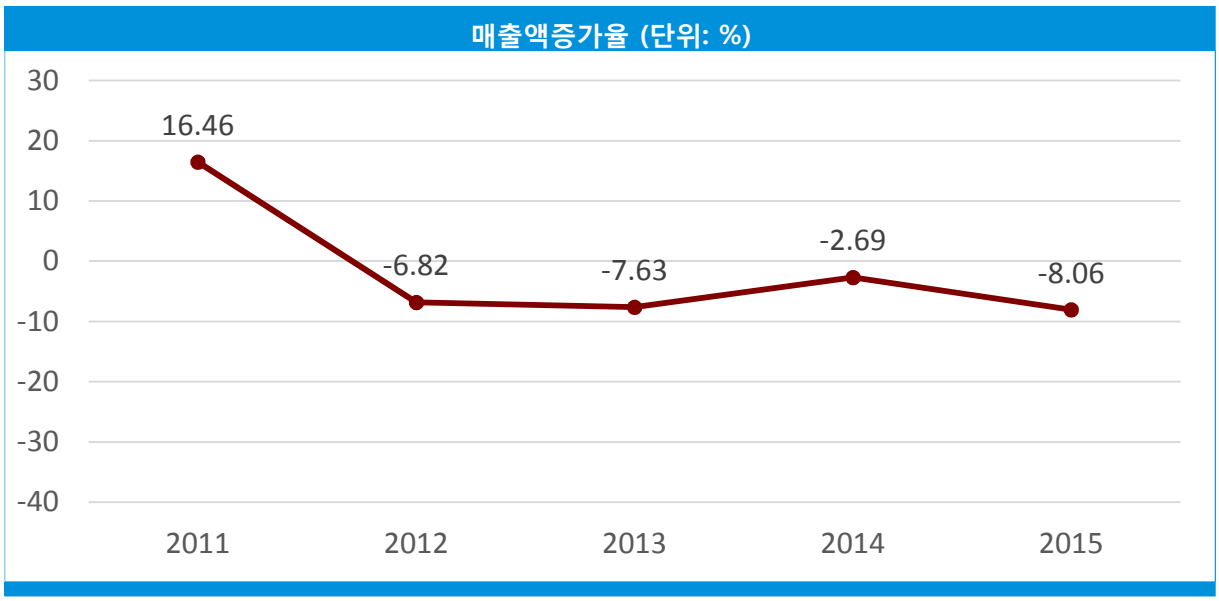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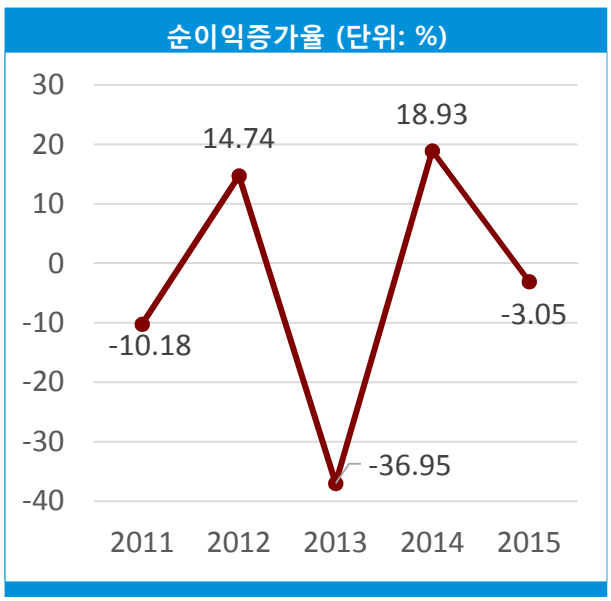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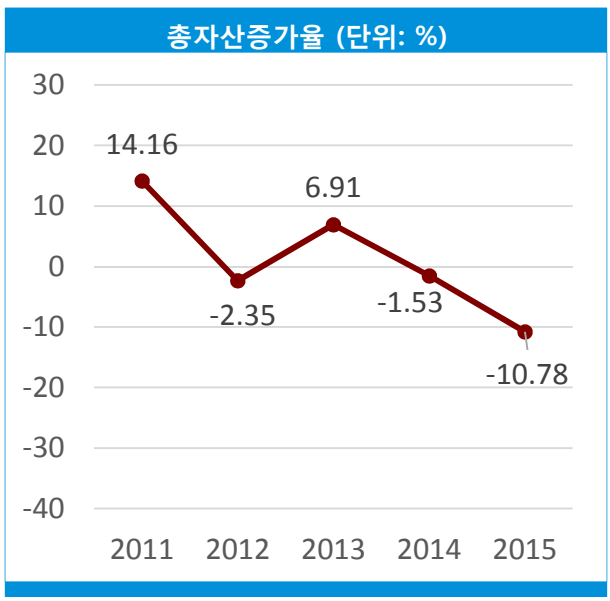
제강업

성장성

제강업은 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 파일링, 형강 등과 같은 1차 형재 또는 반제품상태의 철강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강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16.46%에서 2012년에 -6.82%로 급락했고, 이후 2015년 -8.06%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순이익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따라 등락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2015년의 경우 -3.05%를 기록했다. 총자산증가율의 경우도 2014년 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총자산 축소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하면 제강업의 성장성은 둔화를 넘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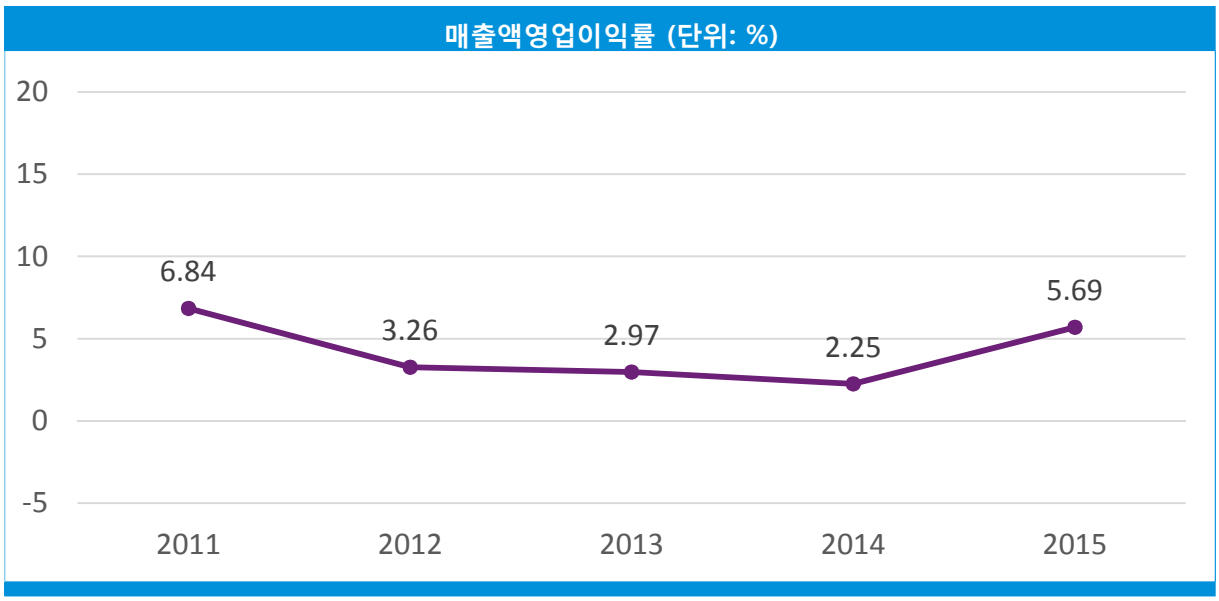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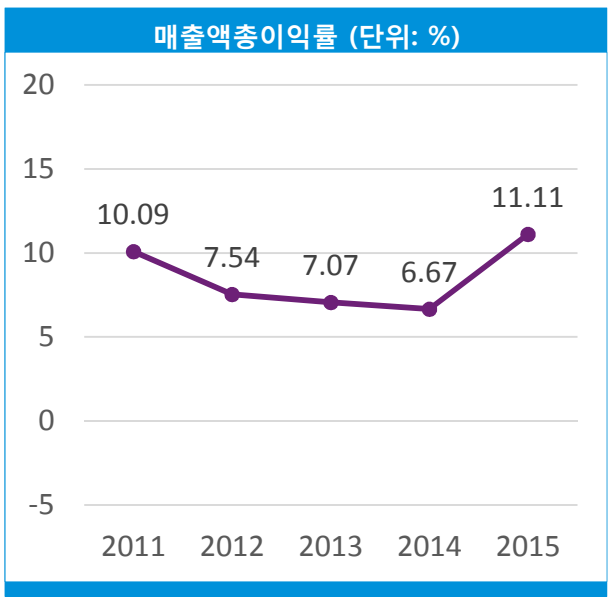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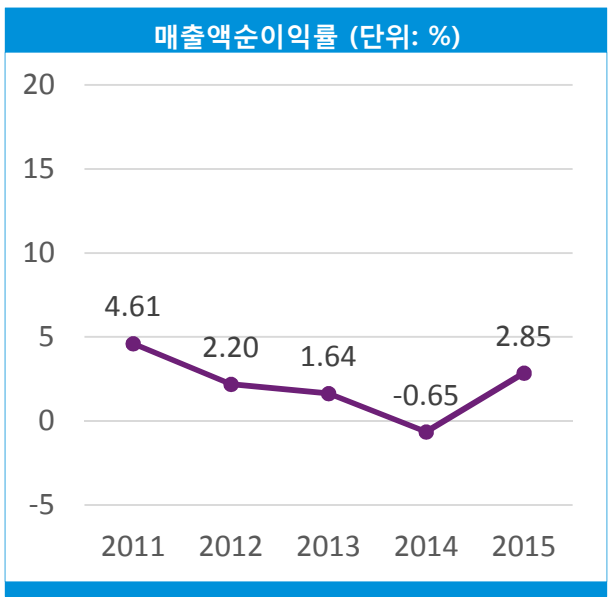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제철업과 마찬가지로 제강업은 성장성 후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2015년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84%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2.25%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반등하여 5.69%로 나타났다. 매출액총이익률도 2011년~2014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11.1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2014년 -0.65%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2.8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강업은 전체적인 매출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가관리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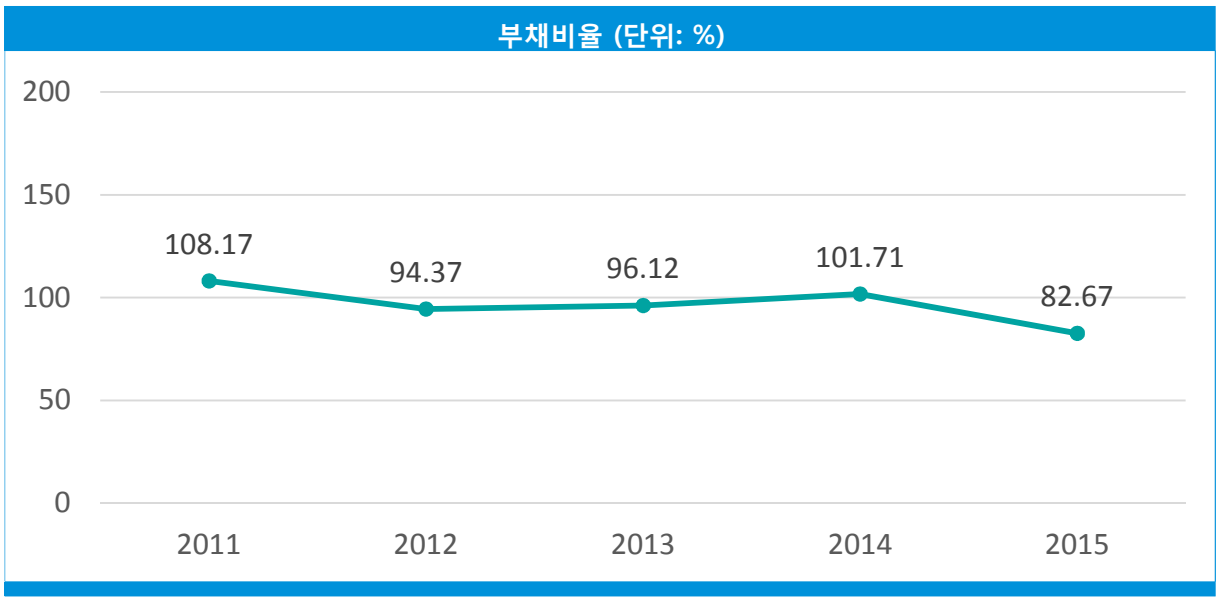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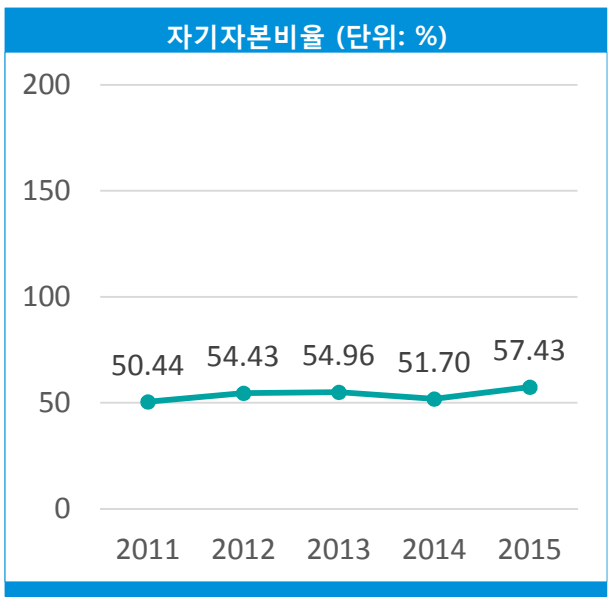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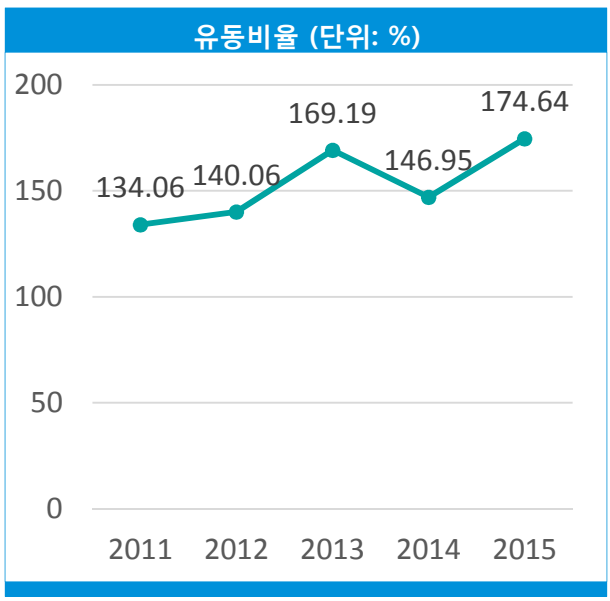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제강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의 108.17%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82.67%를 기록했다. 제철업과 마찬가지로 동기간 철강 산업 전체의 부채비율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의 50.4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57.43%를 기록했다. 한편 유동비율은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4년 단기간 하락했으나, 2015년 174.64%로 반등하여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변동 추이를 볼 때, 제강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단기지급능력 또한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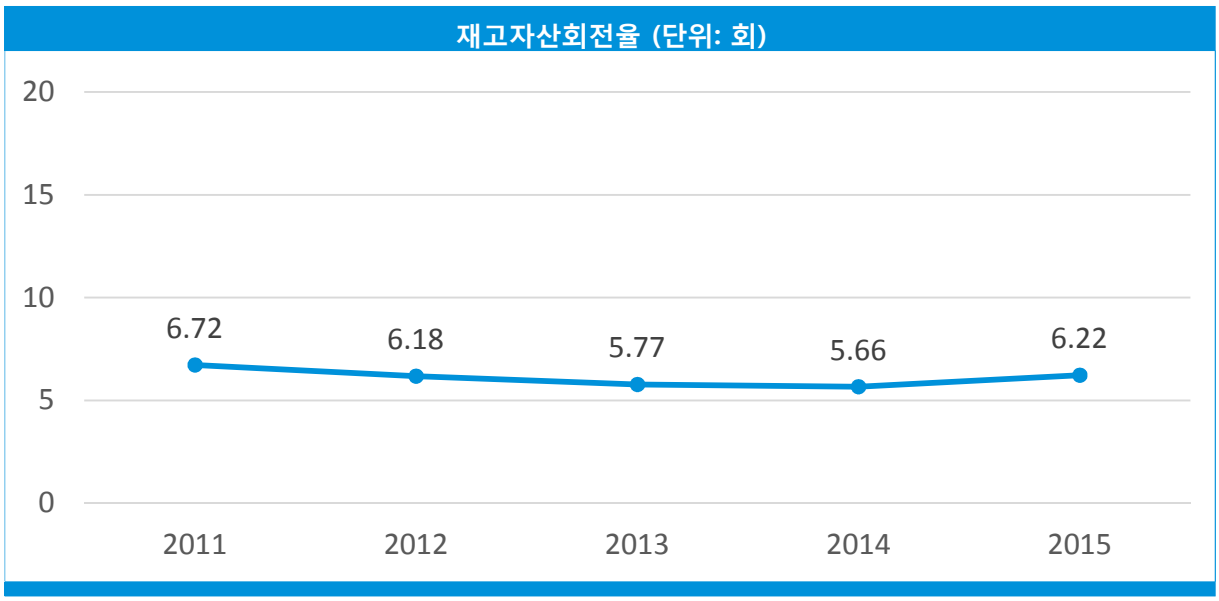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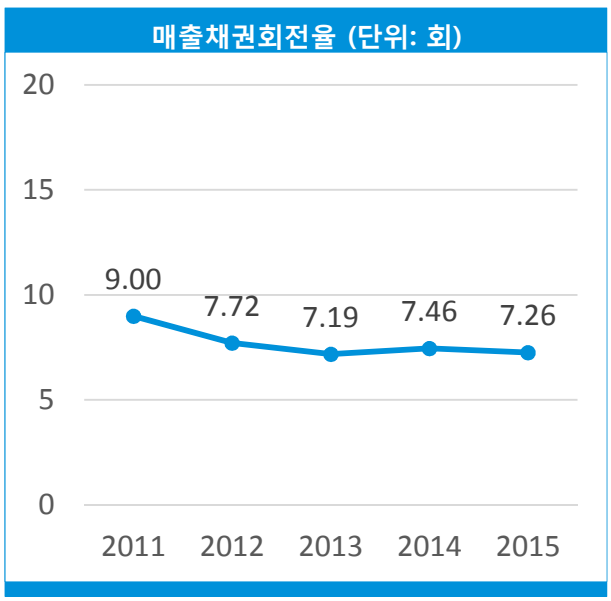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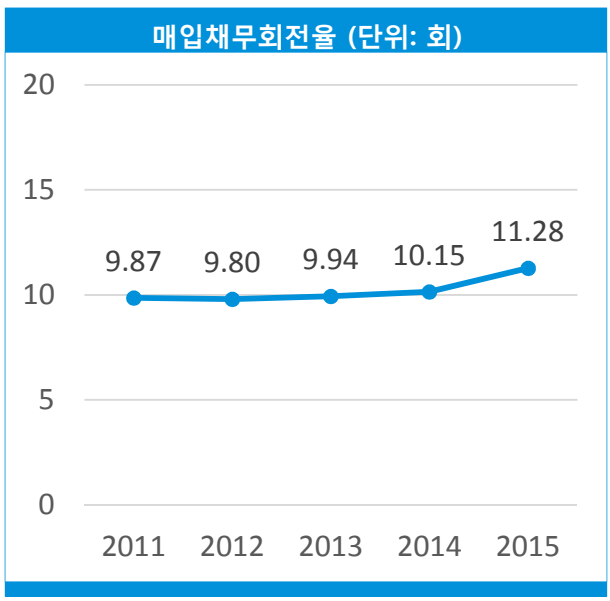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제강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의 6.72회에서 2015년에 6.22회로 소폭 하락했으나, 분석기간인 5년 동안의 변동폭은 매우 작다. 반면 매출채권회전율은 2011년 9.00회에서 2015년 7.26회로 다소 하락하였다. 매출채권회전율의 하락은 이미 발생한 매출의 현금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지속성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의 9.87회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11.28회를 기록했다. 매입채무의 변제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유동부채가 빠른 속도로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유출속도가 빨라져 안정적인 경영측면에서는 부정적인면이 상존한다고 하겠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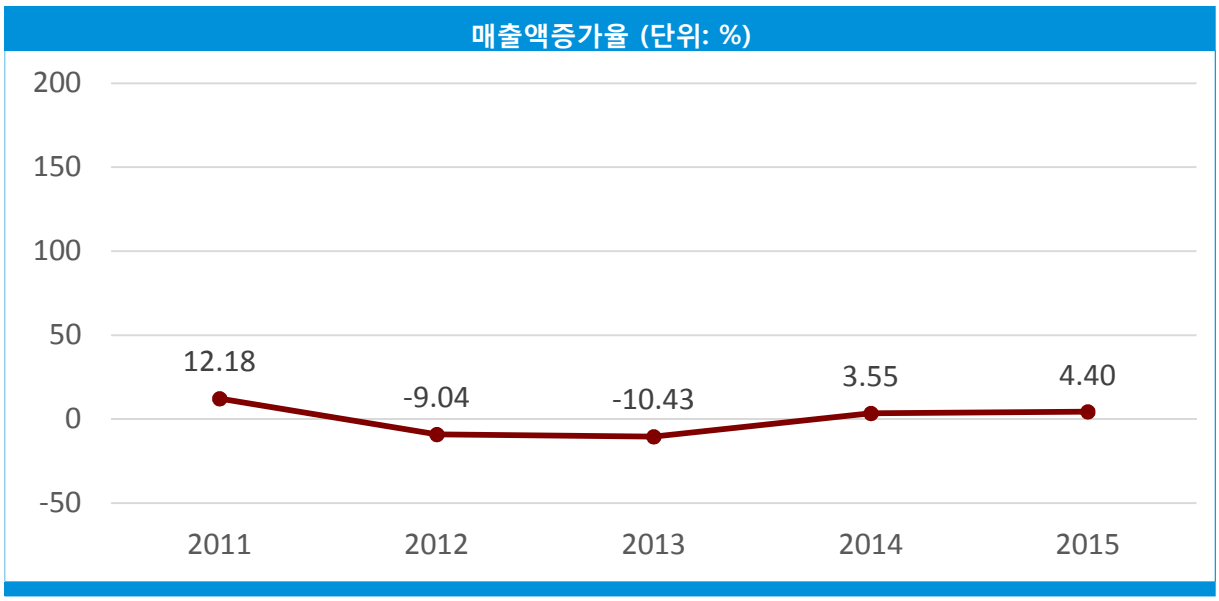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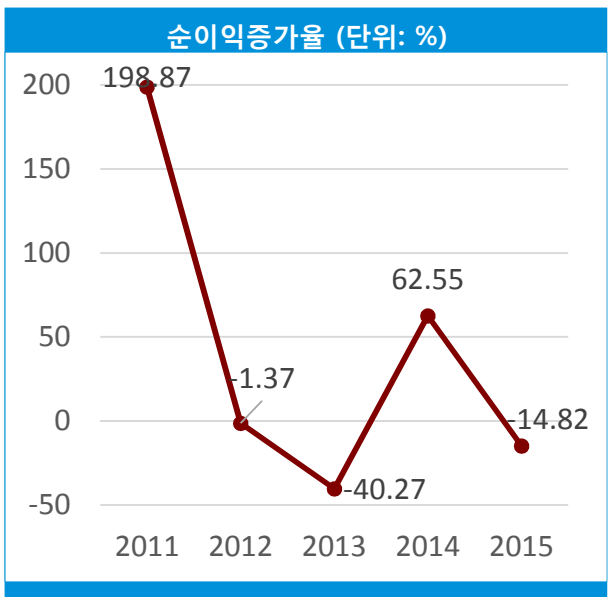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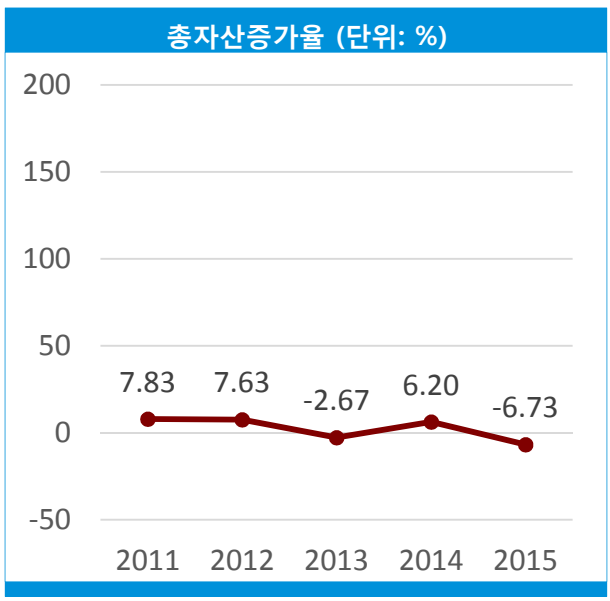
합금철제조업

성장성

합금철은 탄소 이외의 원소를 다량으로 함유하는 선철의 일종으로 주로 합금강 또는 합금 주철의 제조와 제강 작업에 있어서 탈산제, 탈황제 및 탈질제로서 사용된다. 합금철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12.18%에서 2013년 -10.43%까지 급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15년 4.40%를 기록했다. 제철업과 제강업이 2015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증가율은 다른 철강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합금철 제조업의 순이익증가율은 2015년 -14.82%를 기록했으며, 총자산증가율도 -6.7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성장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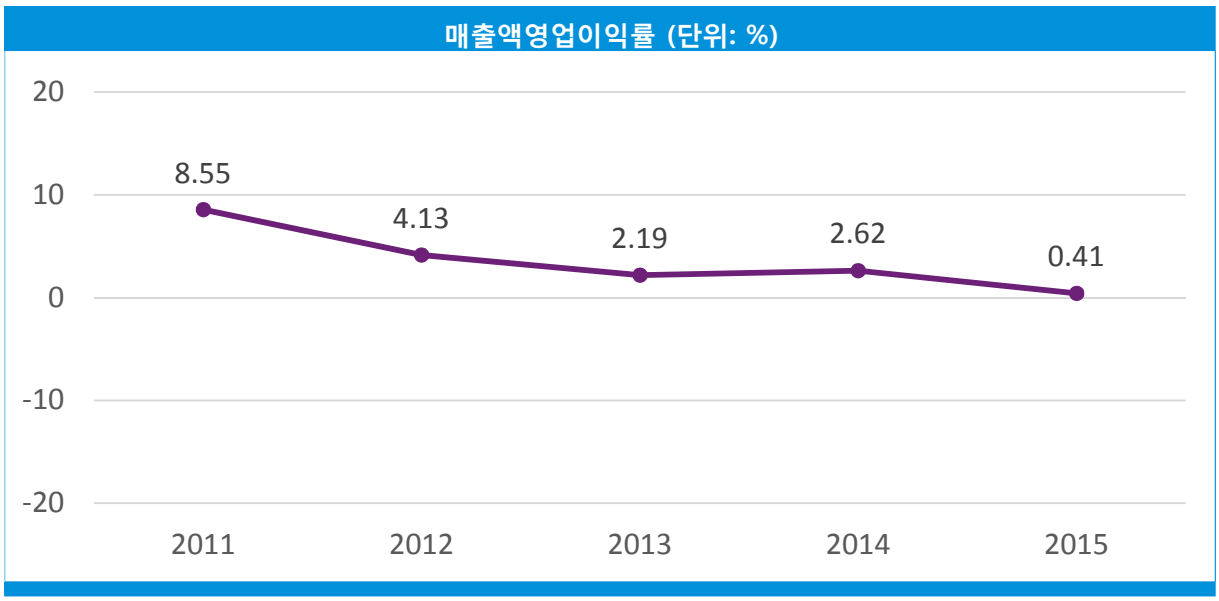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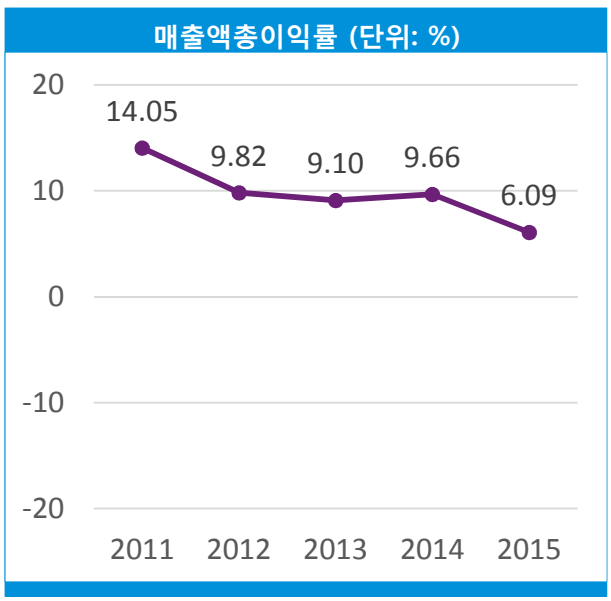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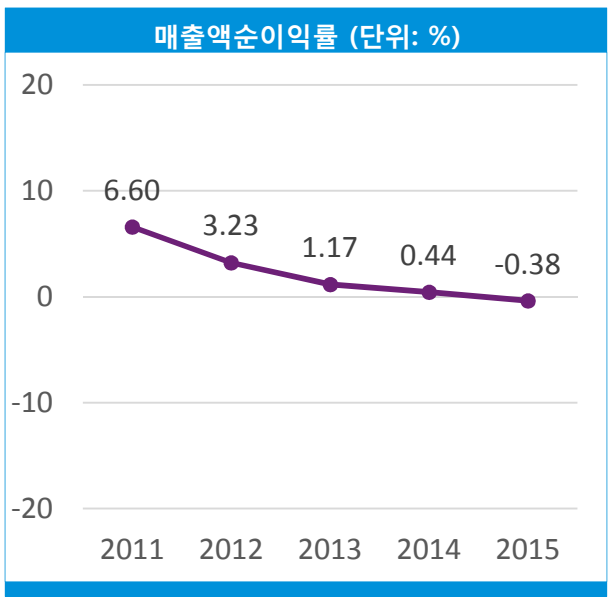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합금철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의 8.55%에서 2014년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0.41%를 기록했다. 철강 산업 전체의 2015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2.34%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내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총이익률도 2011년의 14.0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09%로 나타났는데, 2015년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총이익률 감소는 원가관리의 효율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출액순이익률 또한 2011년 6.6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 -0.38%의 적자를 기록했다. 합금철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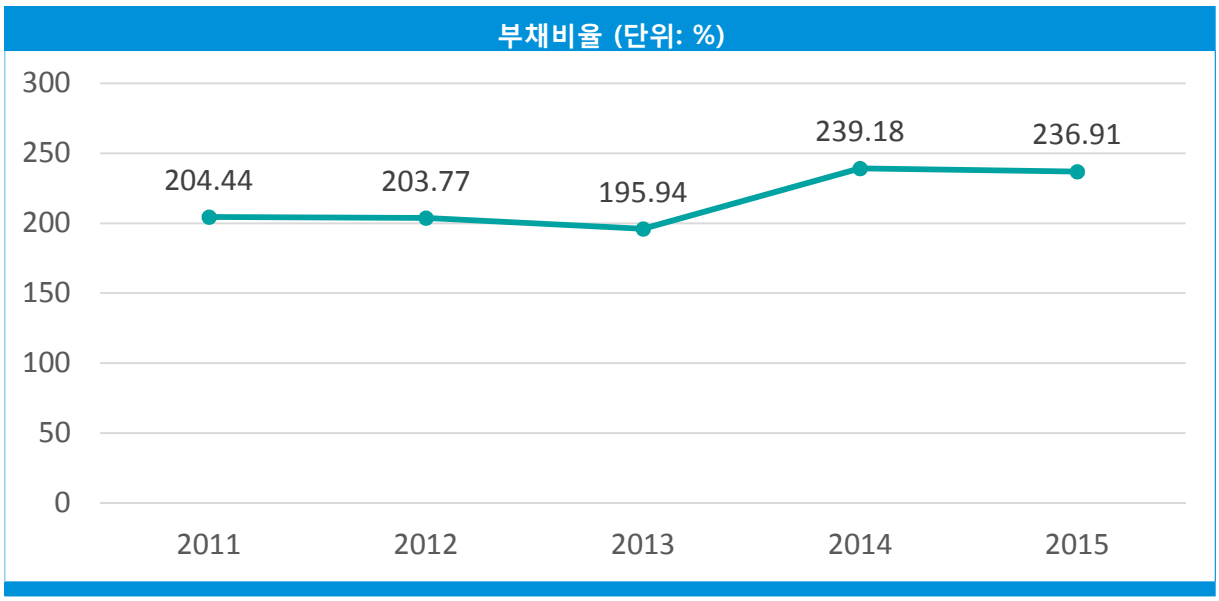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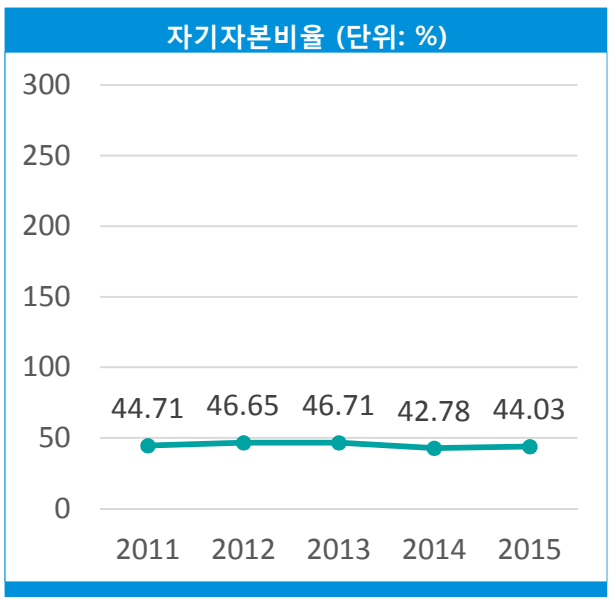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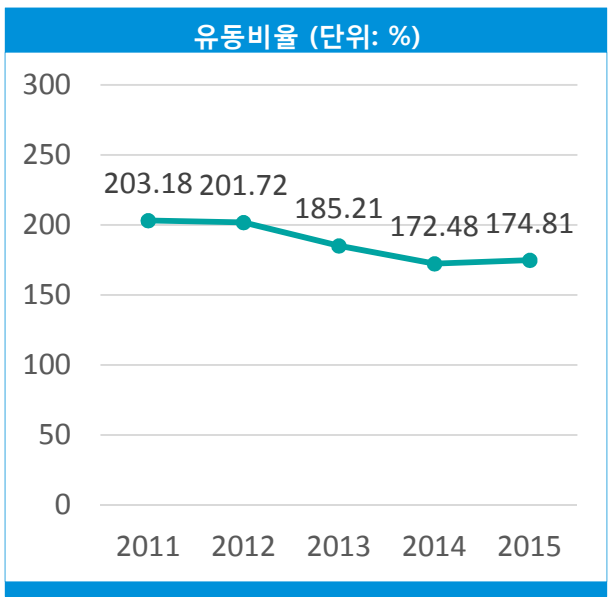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합금철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204.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195.94%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급격히 증가한 후 2015년 236.91%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철강 산업 전체 부채비율 평균인 217.98%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의 44.71%에서 2015년에는 44.03%를 기록하였는데 분석기간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동비율 경우 2011년 203.18%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74.81%로 나타났다. 재무비율을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합금철 제조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단기지급능력은 모두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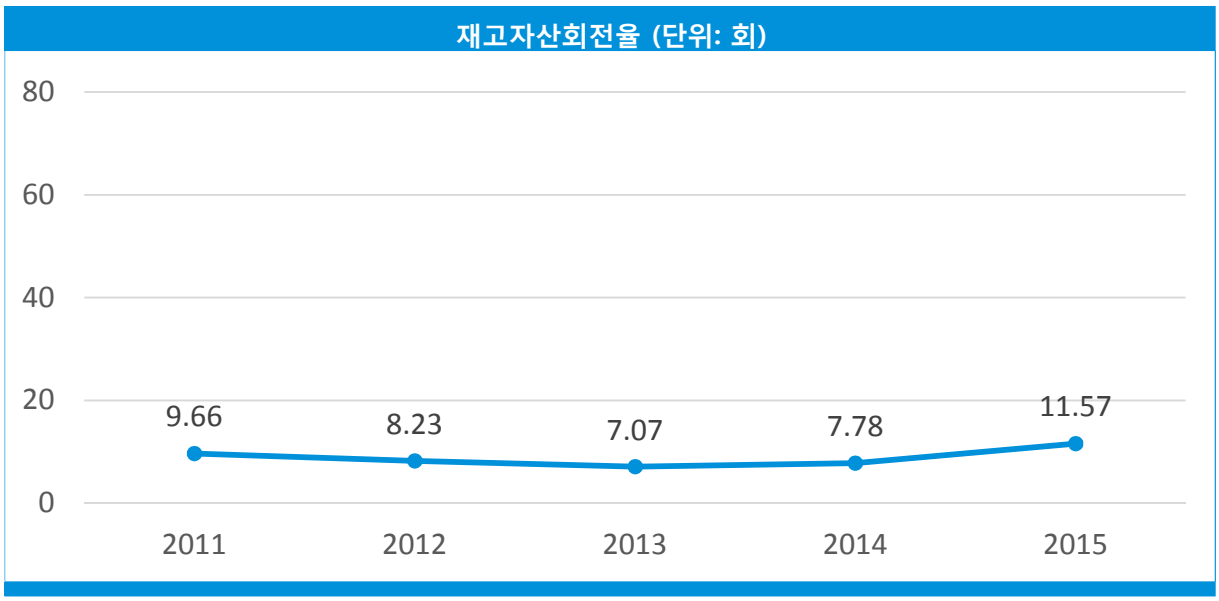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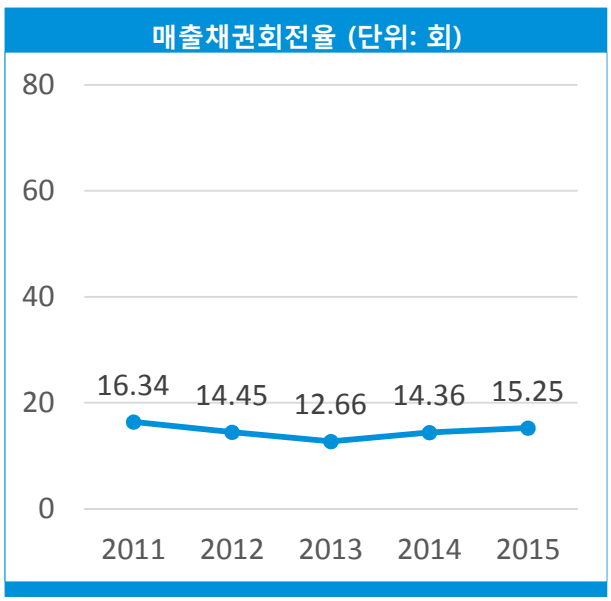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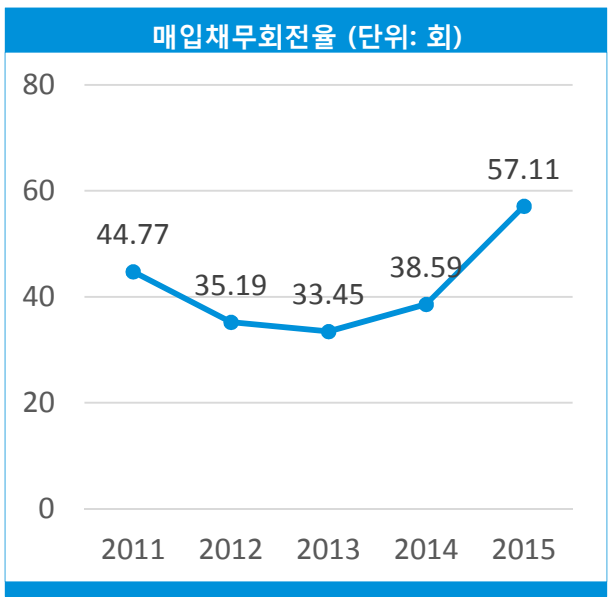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합금철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의 9.66회에서 2013년 7.07회로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11.57회를 기록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도 2011년 16.34회에서 2013년 12.66회로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5년 15.25회로 나타났다. 또한 매입채무회전율도 재고자산회전율 및 매출채권회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2013년 이후 상승폭이 다른 활동성 비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고, 2015년 57.11회를 기록했다.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현금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합금철 제조업의 전반적인 활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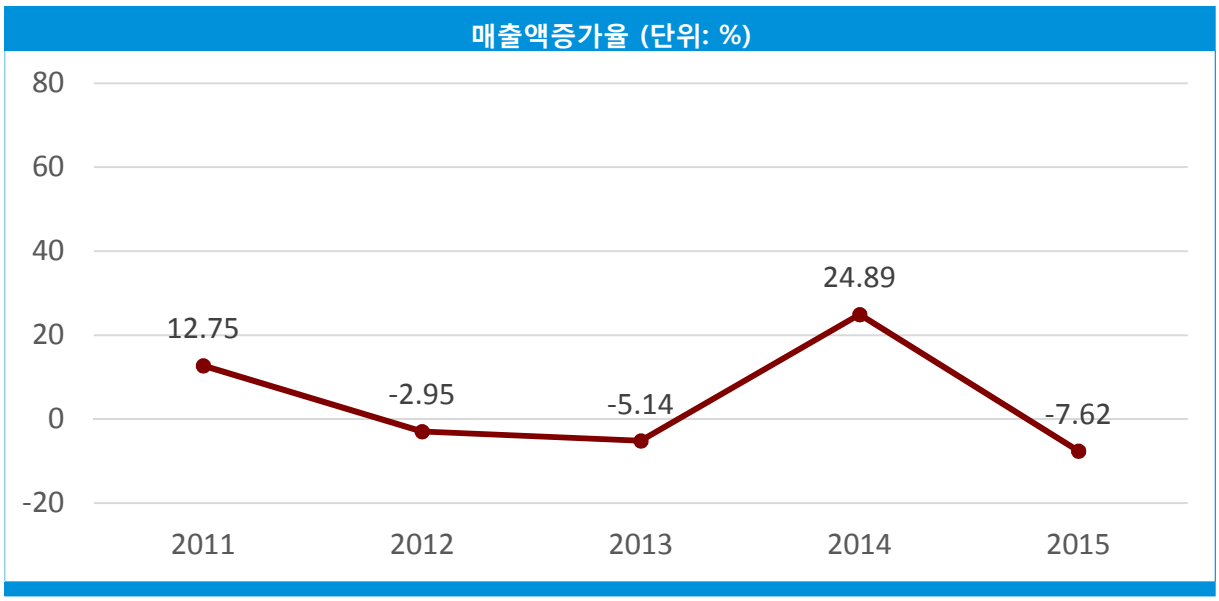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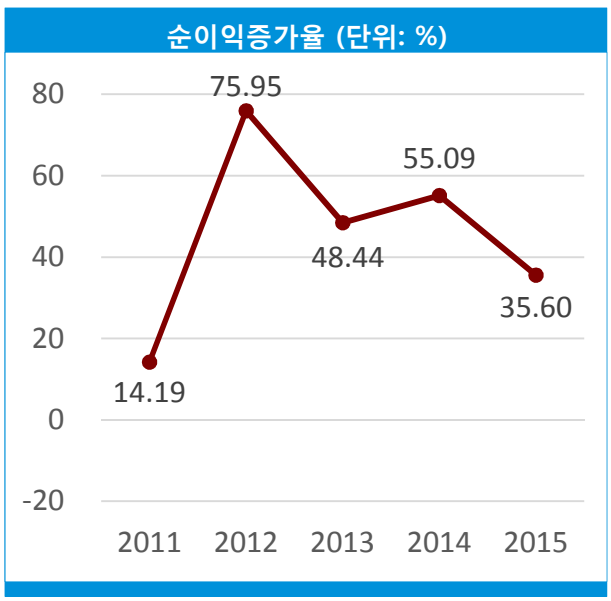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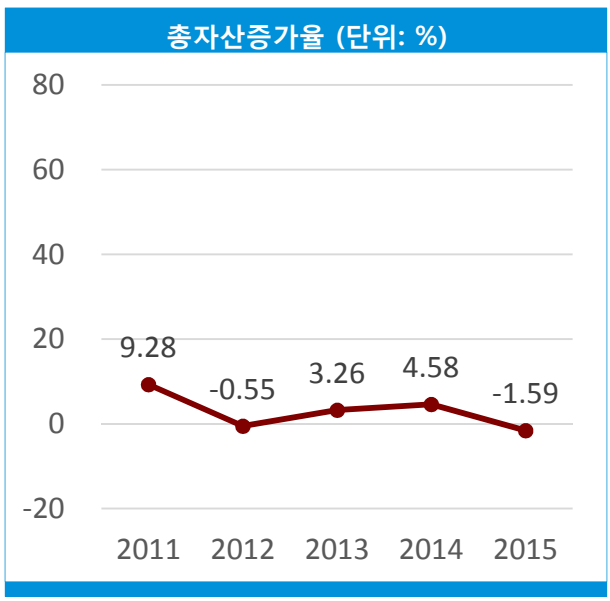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성장성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이하 열연)은 금속을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압연하는 방식으로 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열연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 12.75%를 기록한 후 201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4년 24.89%로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5년 다시 -7.62%로 성장후퇴로 접어들었다. 한편 2015년 순이익증가율의 경우 35.60%로 산업내 타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나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총자산증가율도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열연 제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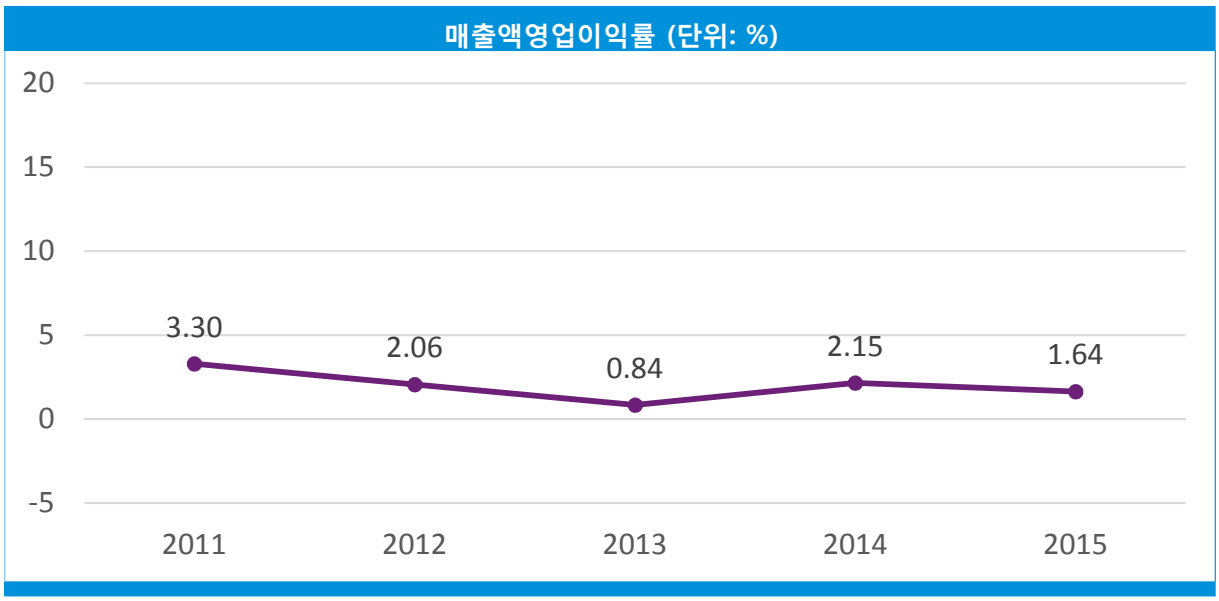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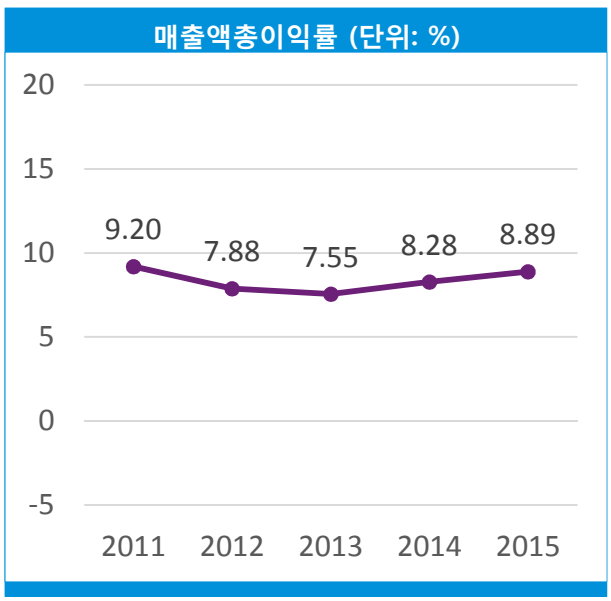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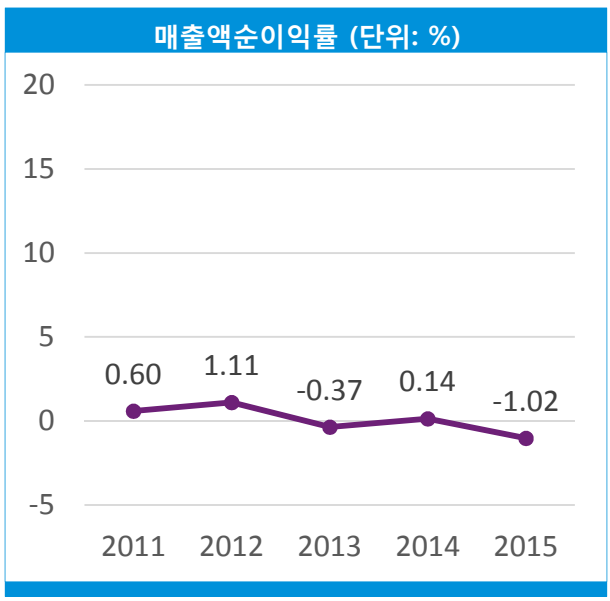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열연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3.30%에서 2013년 0.84%까지 하락한 후 2014년 잠시 2%대를 회복하였으나, 2015 다시 1.64%로 하락했다. 2015년 철강 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34%인 것을 감안할때 산업내 낮은 수치이다. 한편 매출액총이익률은 2011년 9.20%에서 2013년 7.55%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2015년 8.89%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지난 5년간 1% 내외의 낮은 수치를 보이며 2015년에는 -1.02%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총이익률의 상승추세로 볼 때 원가관리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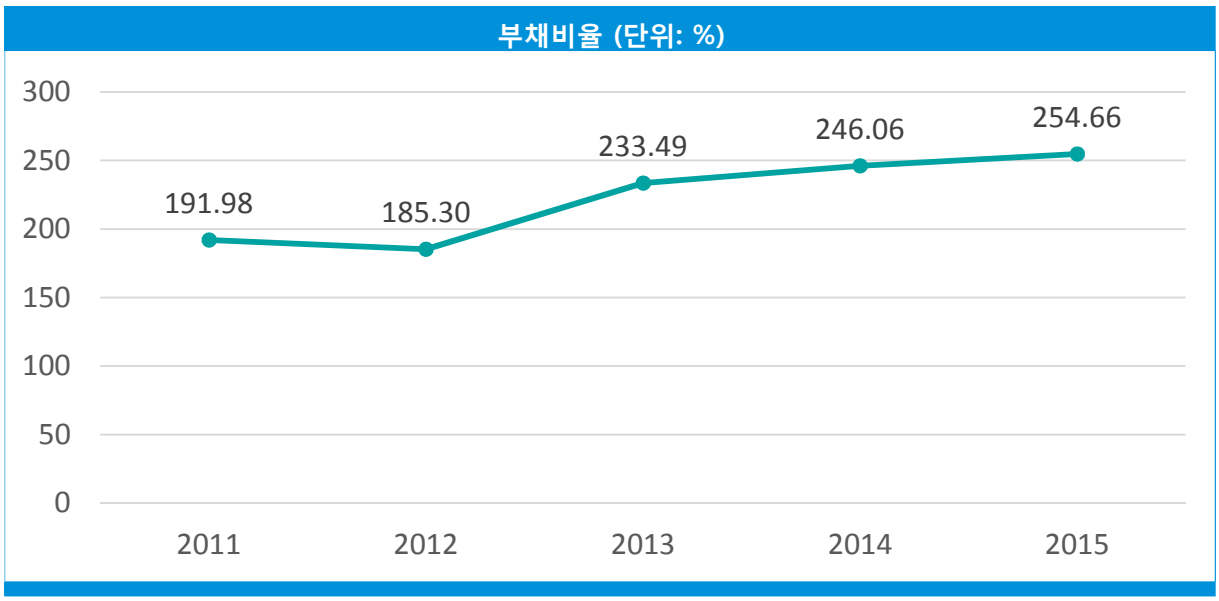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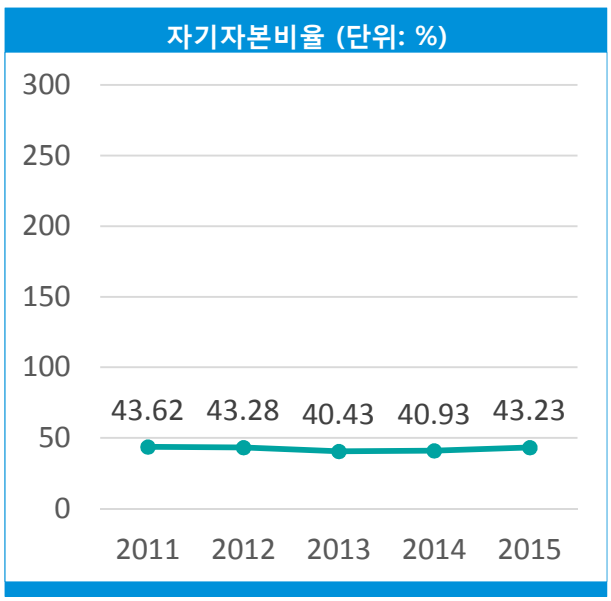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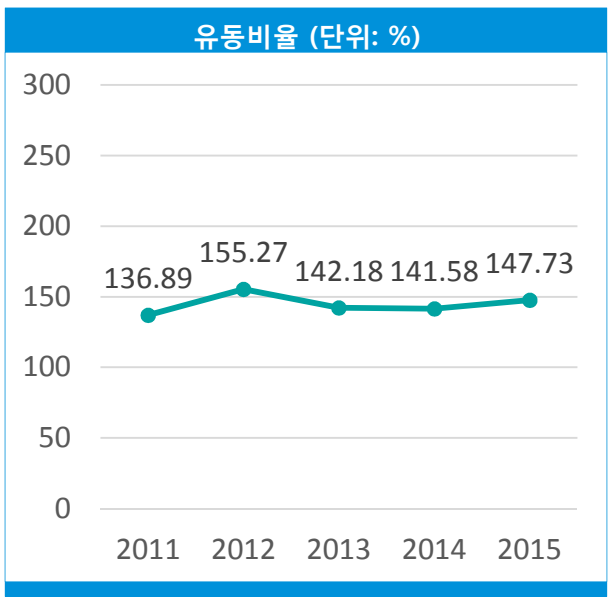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열연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191.98%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며 2015년 254.66%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철강 산업 전체 부채비율 평균인 217.98%와 비교할때 산업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의 43.62%에서 2015년에는 43.23%를 기록하였는데 분석기간내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동비율 경우도 2012년 155.27% 이후 140% 초반대를 기록하다 2015년 들어 147.73%로 소폭 상승하였다. 열연 제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 비율 중 그 변화가 큰 항목은 부채비율이며, 이를 통해 볼때 열연 제조업의 장기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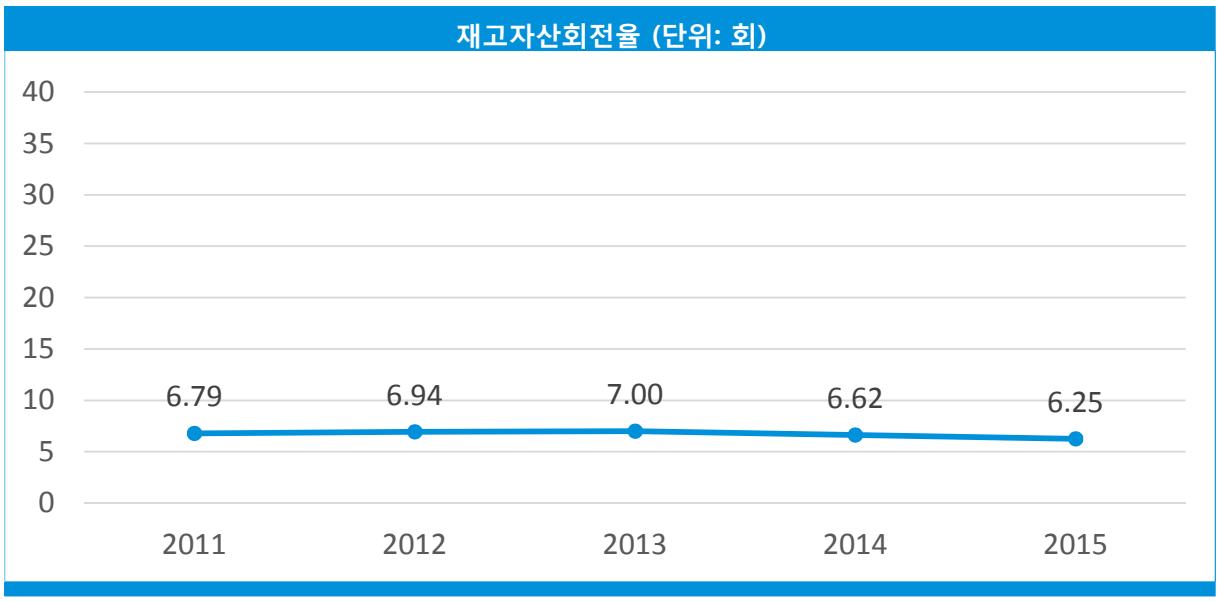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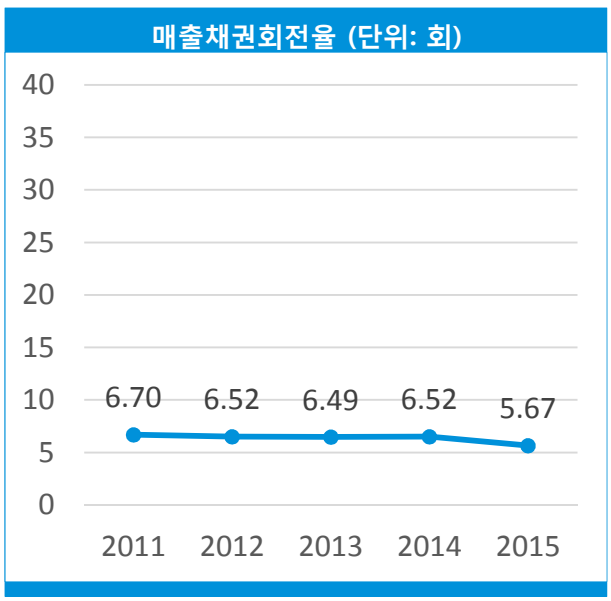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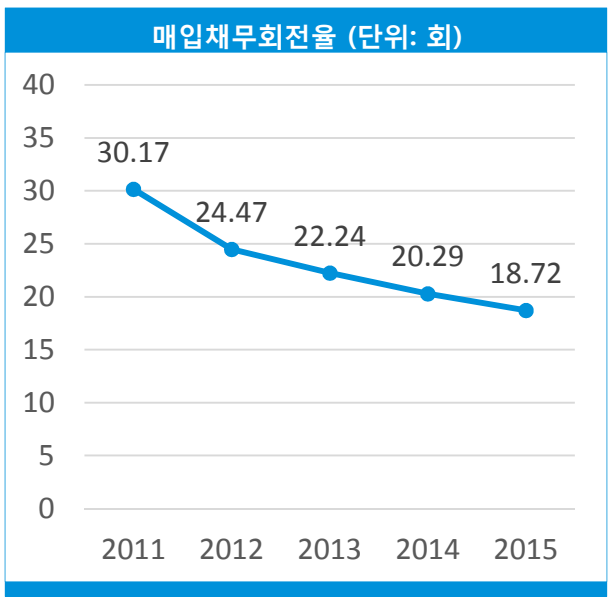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열연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의 6.79회에서 2015년 6.25회로 최근 들어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변동성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도 2011년 6.70회에서 2015년 5.67회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 30.17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8.72회를 기록했다. 매입채무회전율의 하락은 단기간 효율적인 기업경영 측면에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보유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의 지급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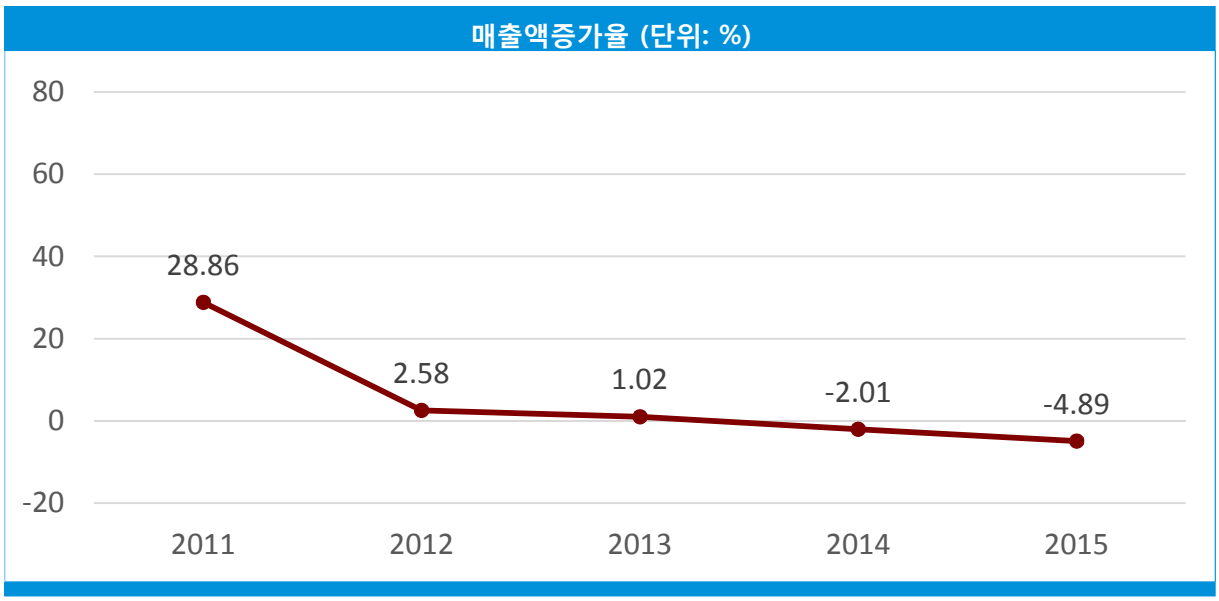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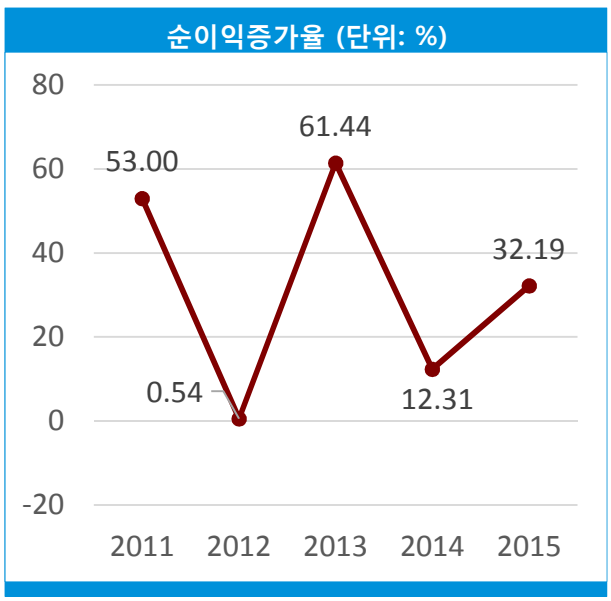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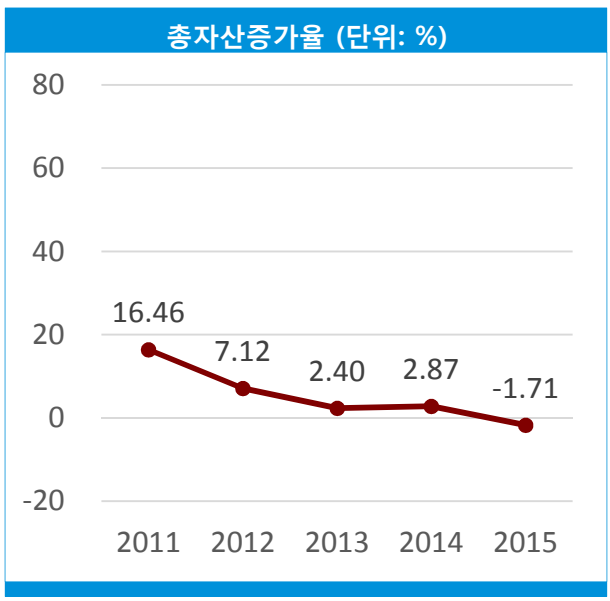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성장성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이하 냉연)은 열간 압연강재를 상온에서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냉연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경우도 타 철강업종과 유사하게 2011년 28.86%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2012년 급락한 후 오히려 성장이 후퇴하는 상황이다. 2015년 매출액증가율은 -4.89%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순이익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증가율의 변동성은 산업내 타 업종에 비해 큰 편이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2011년 16.46%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1.7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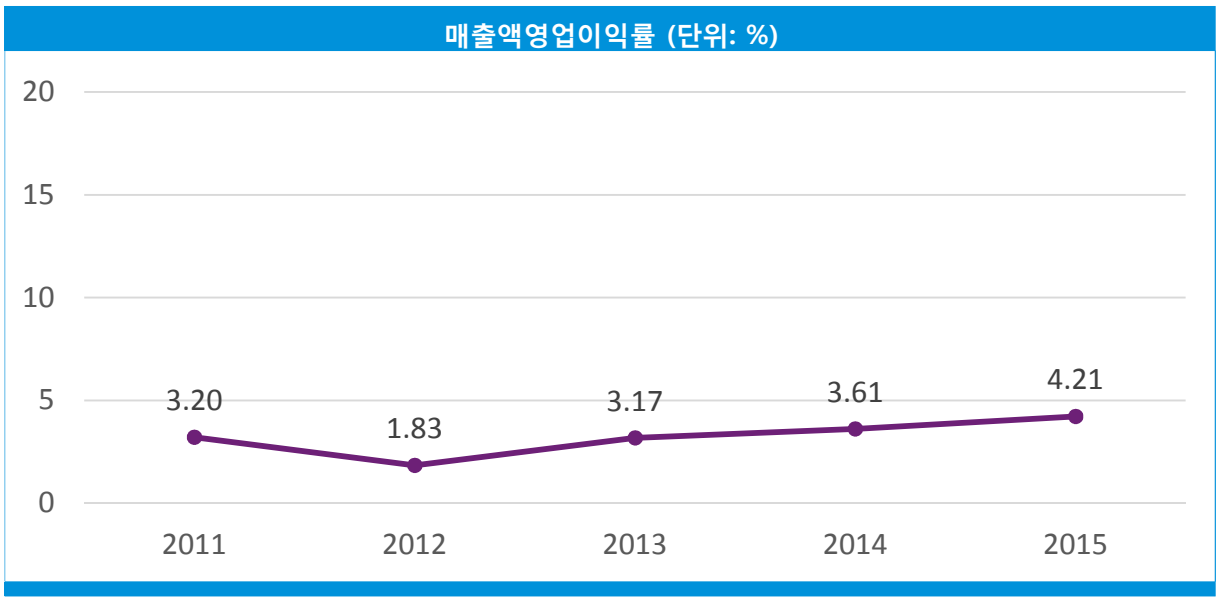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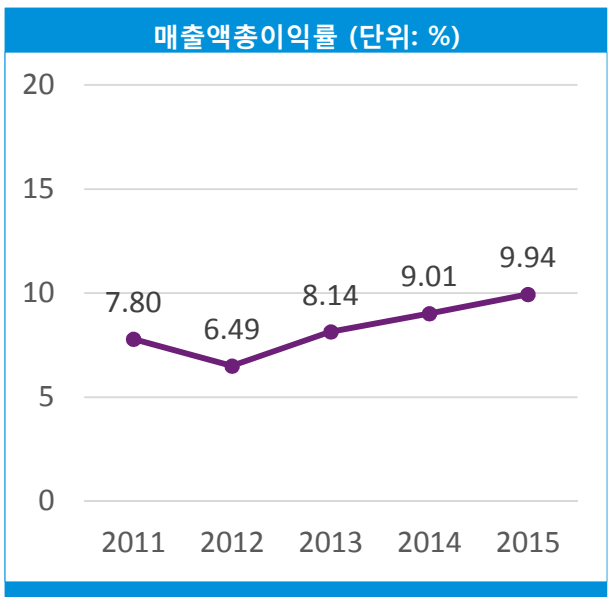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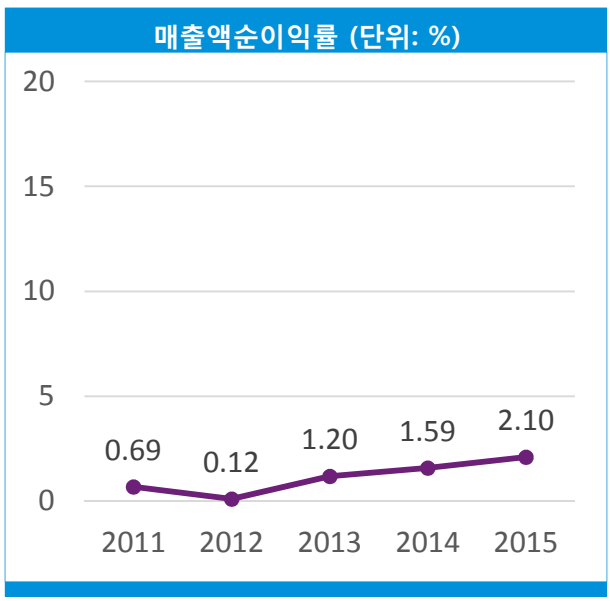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냉연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3.20%에서 2012년 1.83%로 단기간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21%를 기록했다. 매출액총이익률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2년 6.49%에서 2015년 9.94%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도 2012년 0.12%에서 2013년 1.20%로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2.10%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냉연 제조업의 경우 성장성은 둔화되는 추세이나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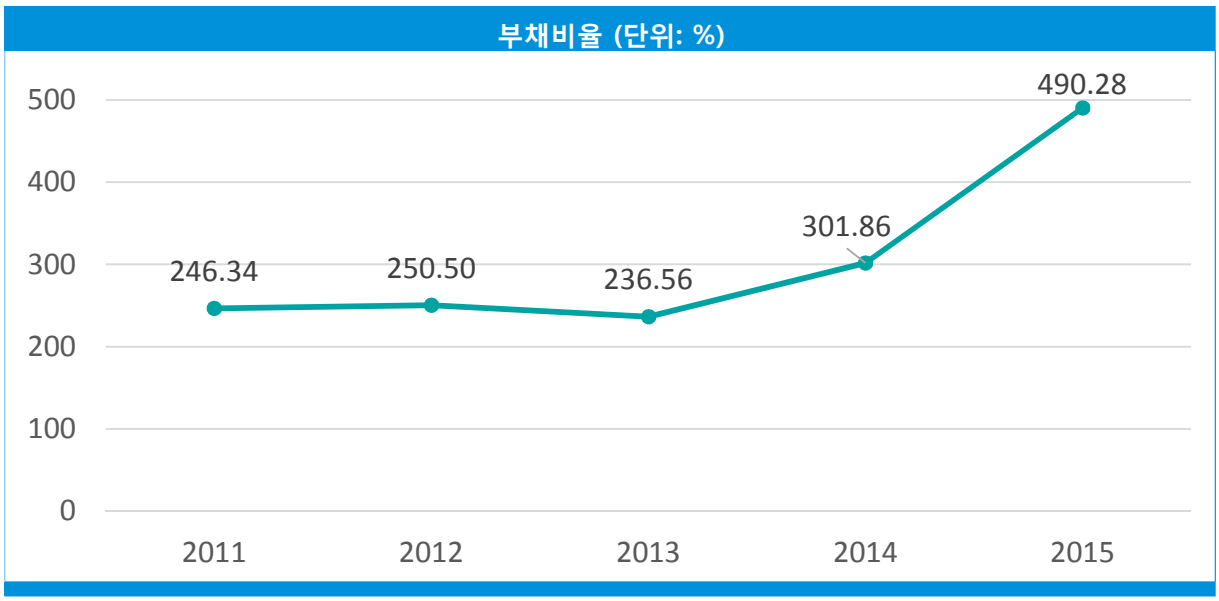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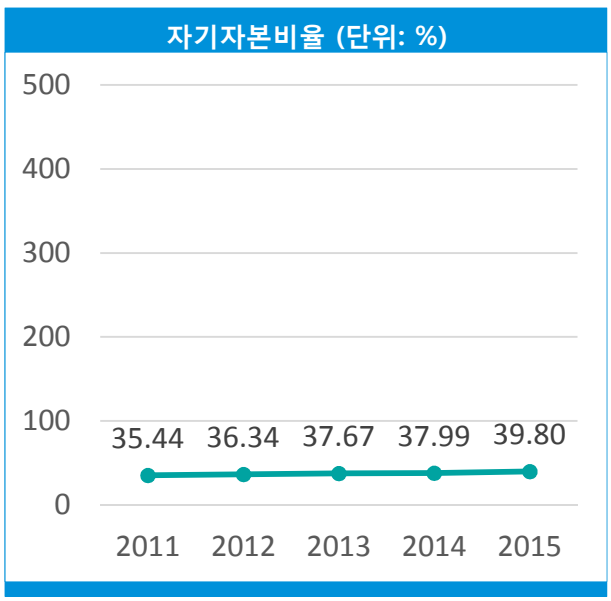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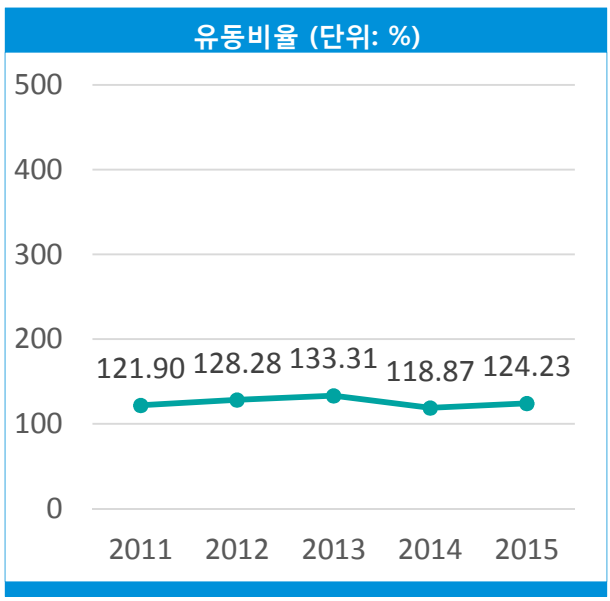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냉연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246.34%에서 2013년 236.56%로 미미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2014년 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490.28%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철강 산업 전체 부채비율 평균인 217.98%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의 35.4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39.80%를 기록했다. 자기자본의 증가분 보다는 총부채의 증가분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과 함께 부채비율도 동시에 상승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유동비율의 경우 분석기간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냉연 제조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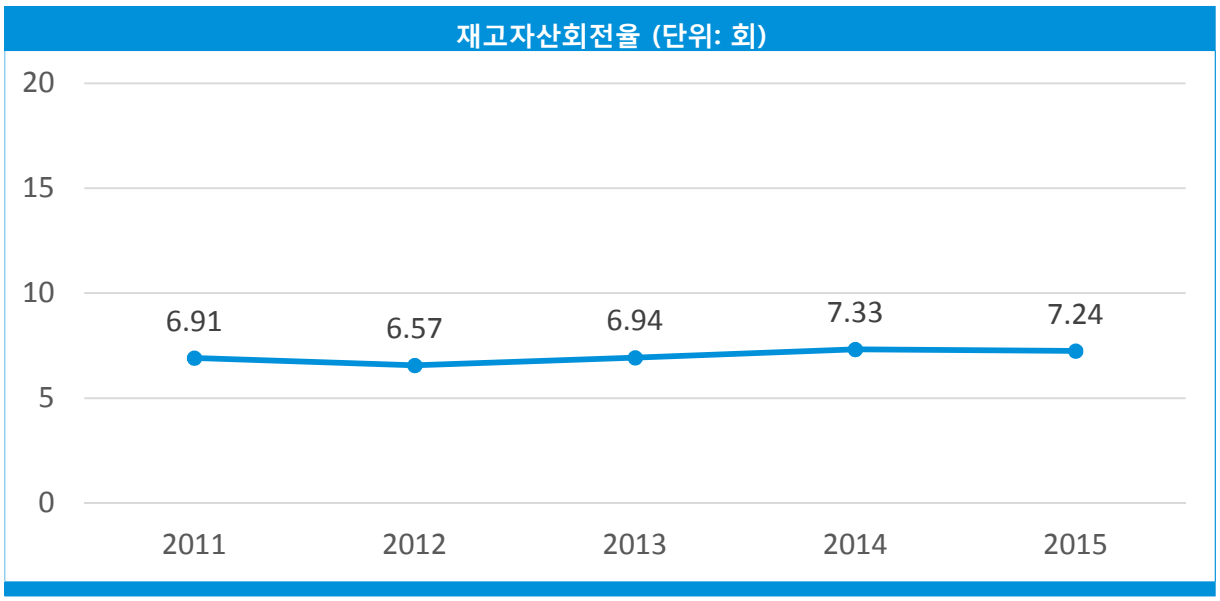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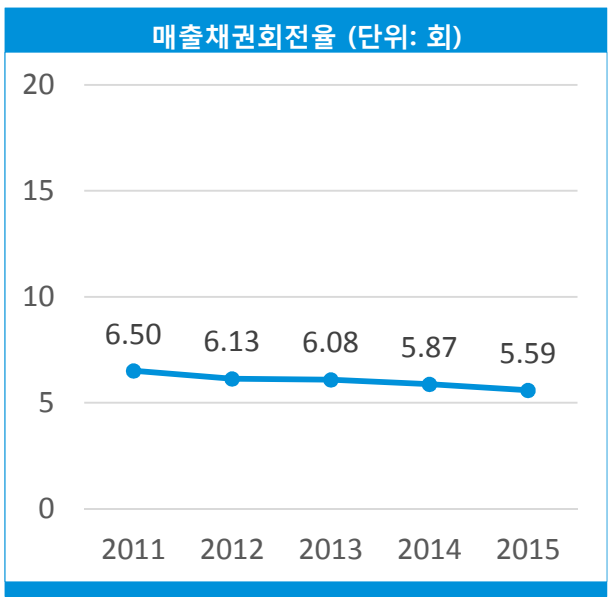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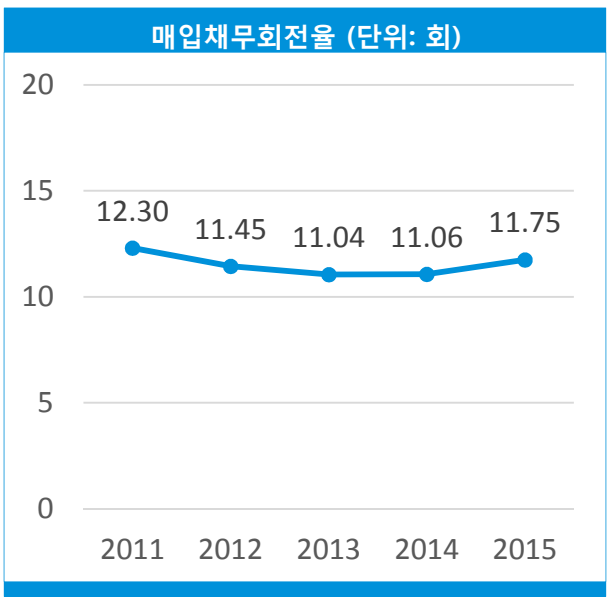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냉연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 6.91회에서 2015년 7.24회로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변동성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1년 6.50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5.59회를 기록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기발생한 매출의 현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부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 12.30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11.04회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11.75회를 기록하였다. 매입채무회전율은 과거와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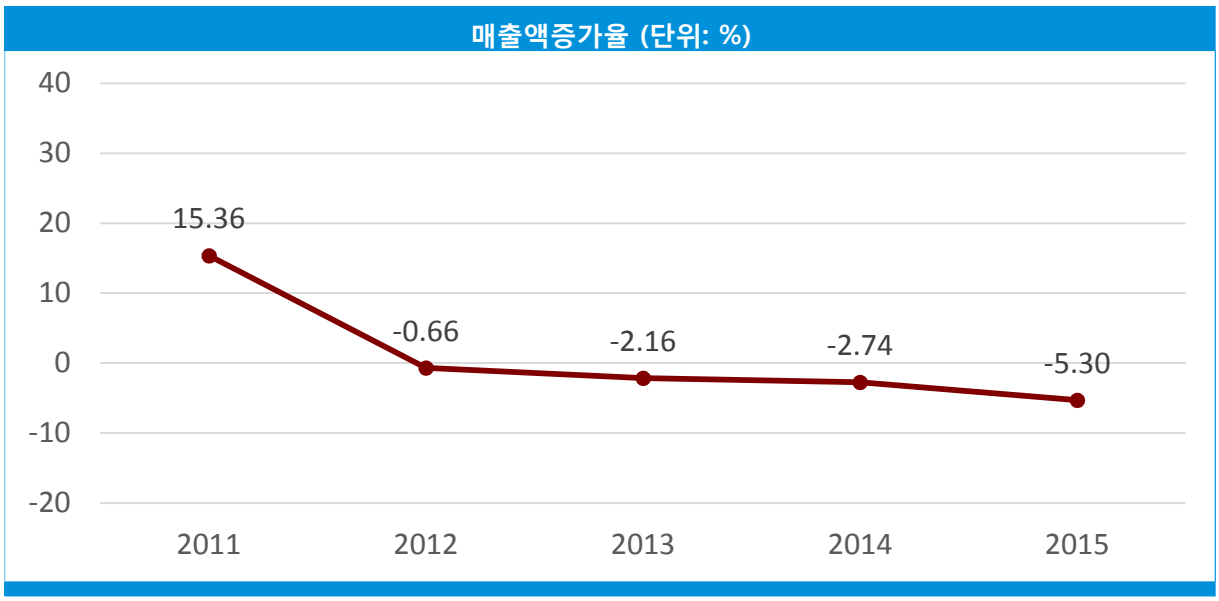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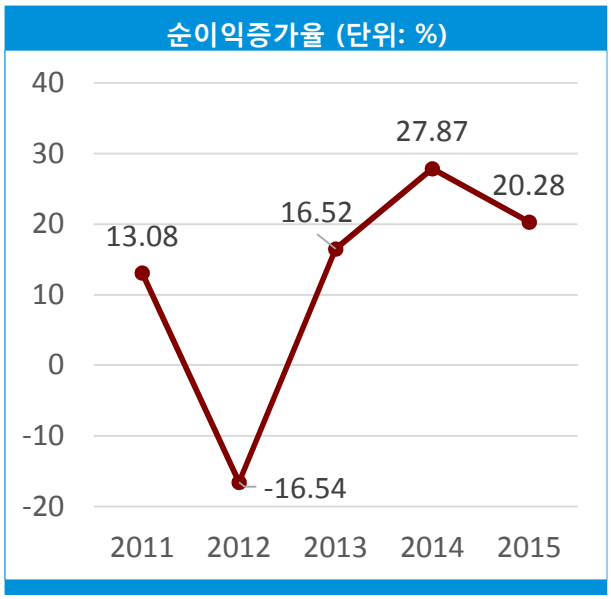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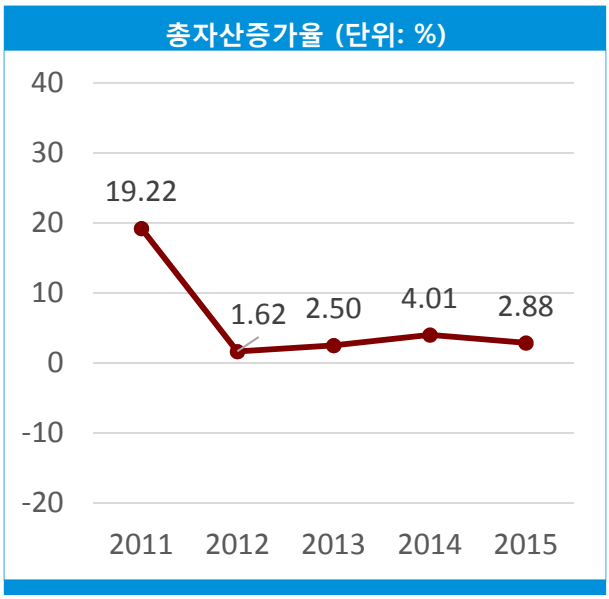
철강선 제조업

성장성

철강선 제조업은 선재, 봉, 바 등의 1차 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선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에는 15.36%였으나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5.30%를 기록했다. 순이익증가율은 2012년의 -16.54%에서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20.28%로 나타났다.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의 19.22%에서 2012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88%를 기록했다. 재무비율로 본 철강선 제조업의 성장성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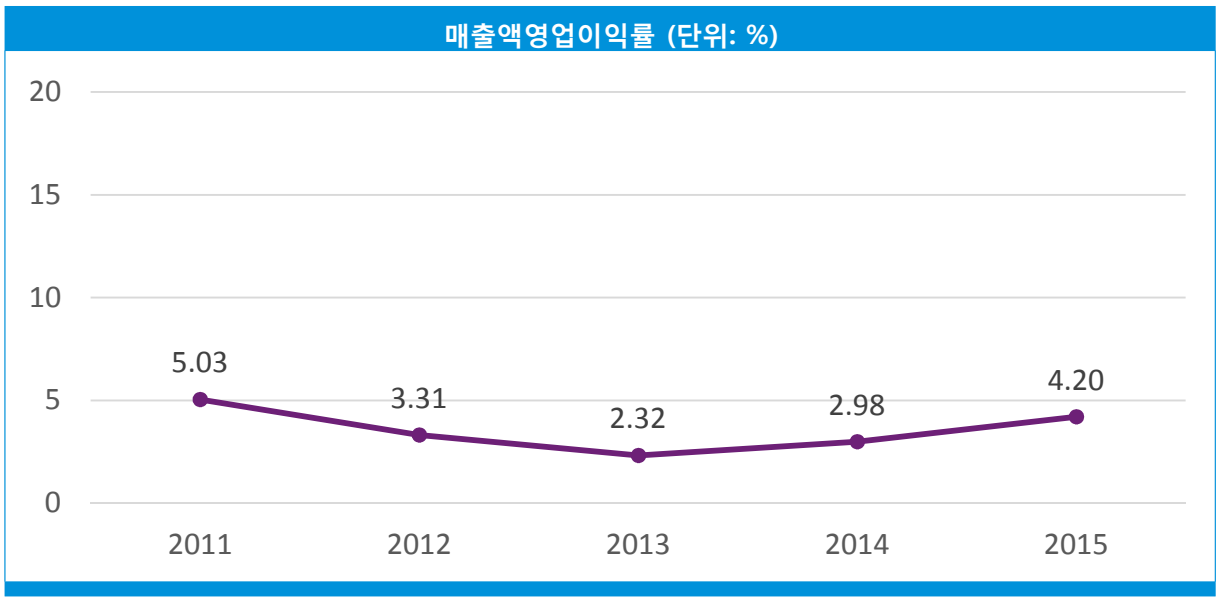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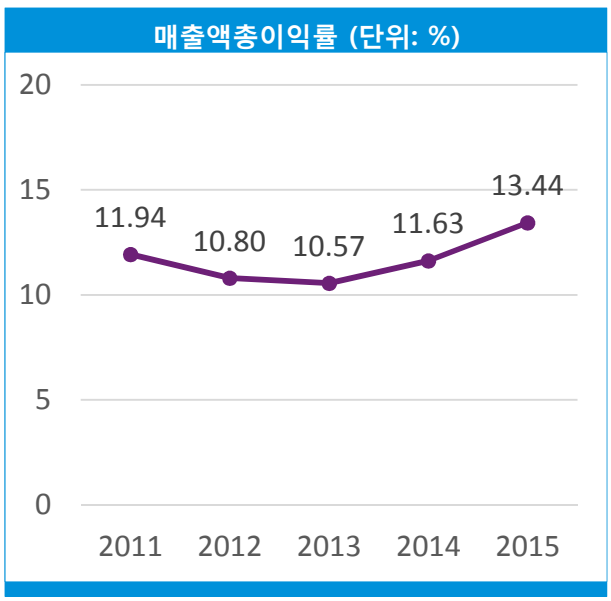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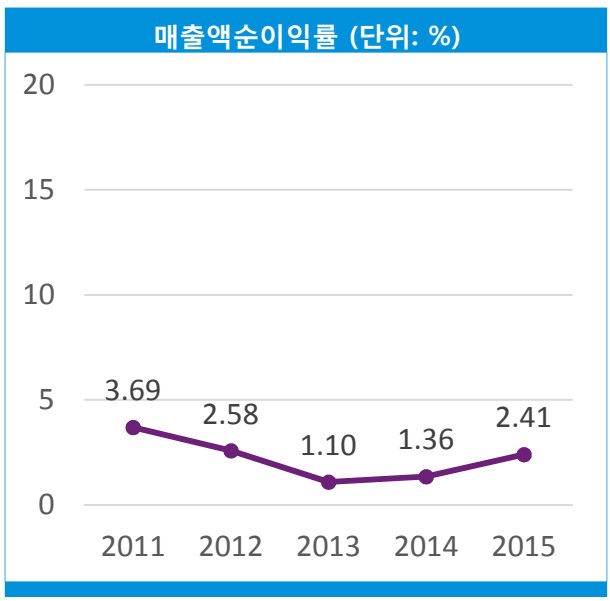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철강선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5.0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32%를 기록했으나, 이후 반등하여 2015년에는 4.20%까지 상승했다. 매출액총이익률은 2011년 11.94%에서 2013년까지 10.57%로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13.44%를 보여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순이익률도 2011년 3.69%에서 2013년 1.10%까지 하락하였다가 2015년 2.41%로 상승했다. 철강선 제조업의 수익성은 2013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며, 철강 산업 전체 평균의 수익성 지표와 비교할 때 철강선 제조업의 수익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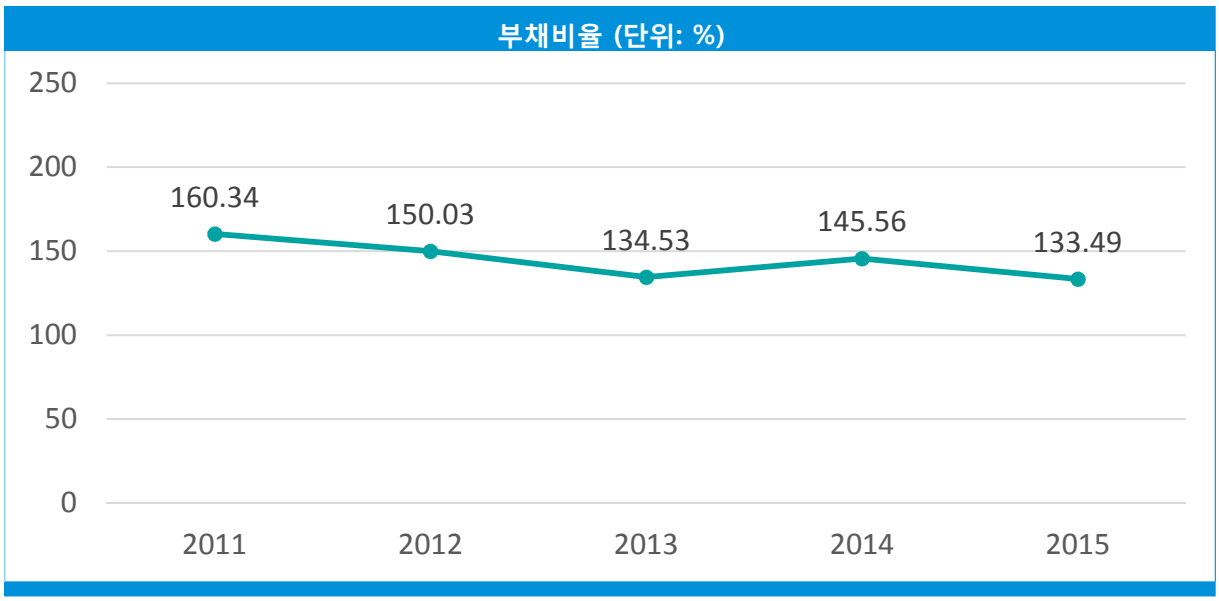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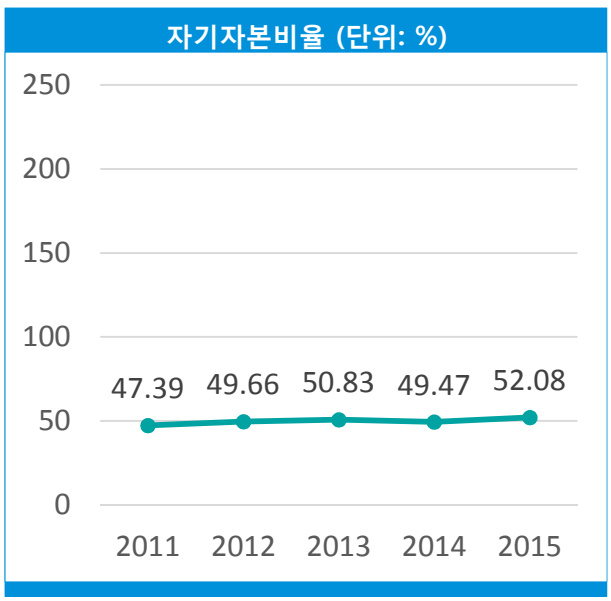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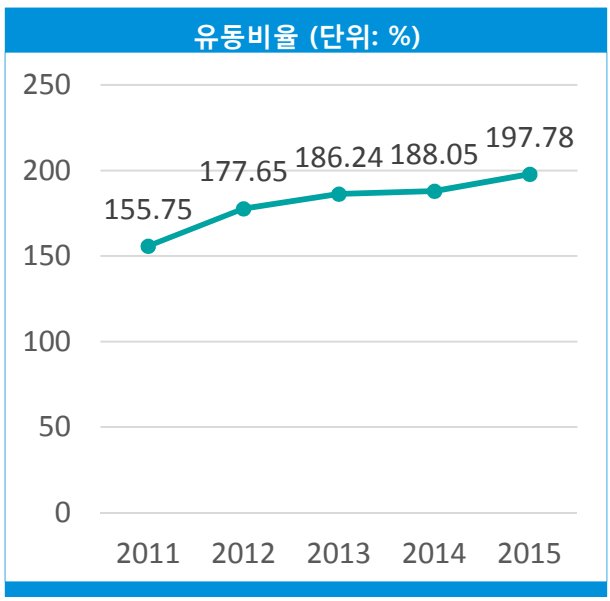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철강선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 5년간 하락추세로 2011년 160.34%에서 2015년 133.49%를 기록하여 지난 5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동기간 내 상승추세로 2011년 47.39%에서 2015년에는 52.08%로 나타났다. 한편, 유동비율은 2011년 155.7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97.78%로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변동 추이를 볼 때, 철강선 제조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단기지급능력 또한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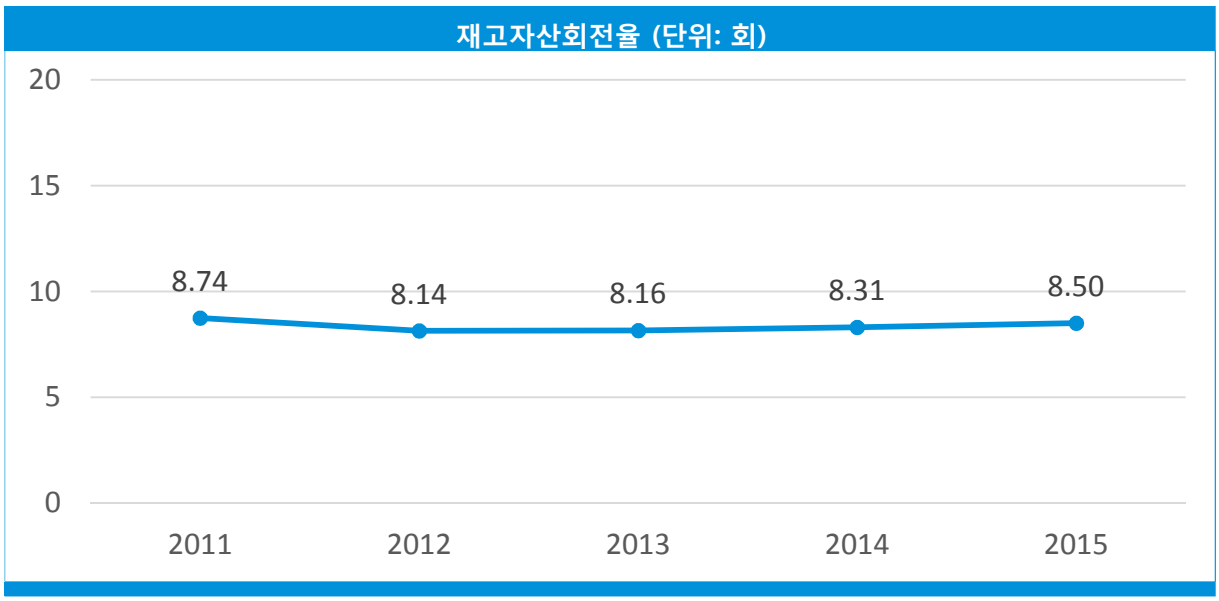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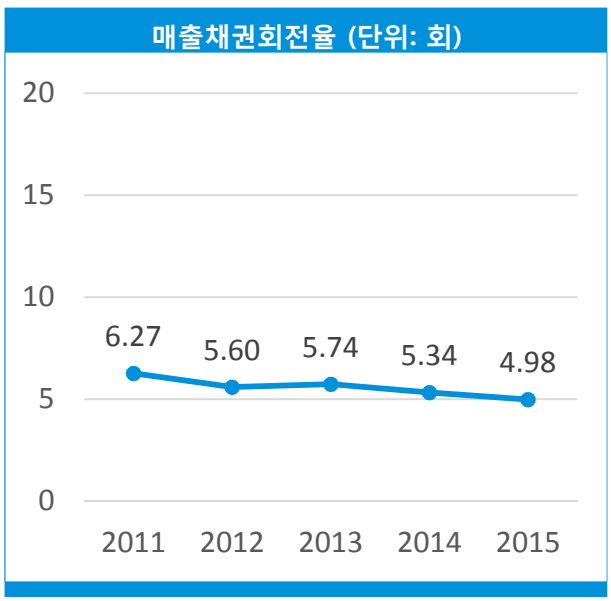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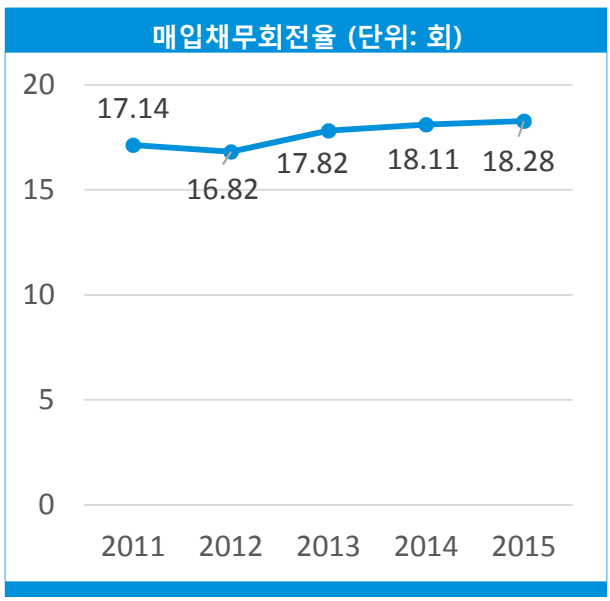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2015년 철강선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8.50회로 2011년의 8.74회와 비교할 때 소폭 하락하였으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11년 6.27회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에는 4.98회로 나타나 기업의 매출채권 현금화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매입채권회전율은 2011년 17.14회에서 2012년 16.82회로 하락했으나, 이후 2013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18.28회를 기록했다. 철강선 제조업의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매출채권의 현금 회수의 지연으로 경영지속성 측면이 악화되고 있으며, 매입채무의 변제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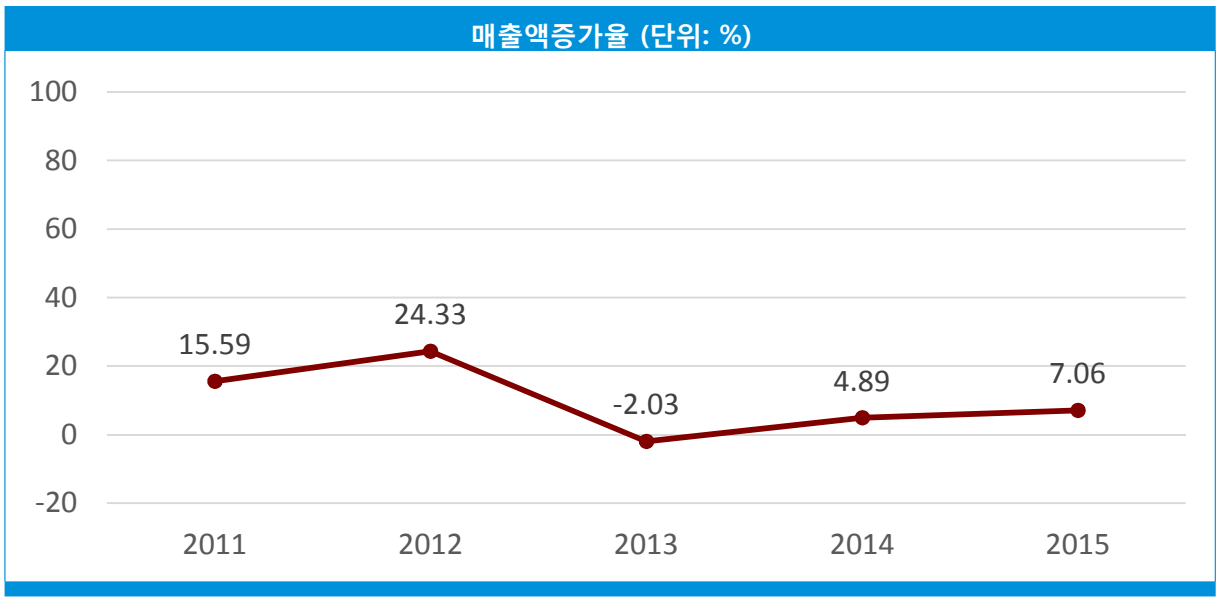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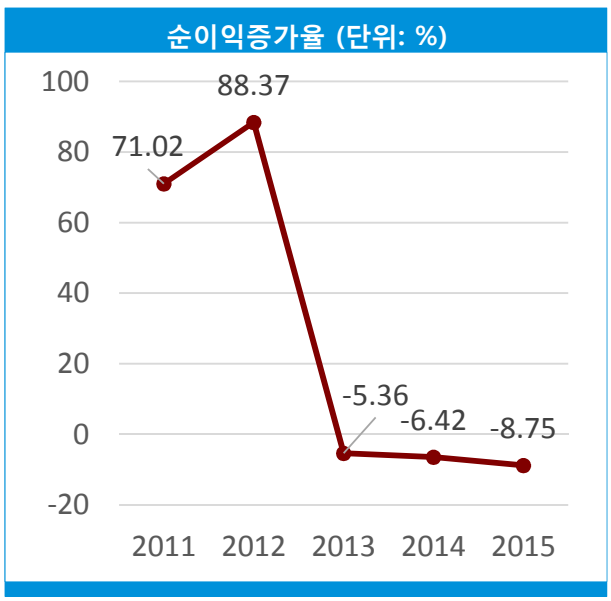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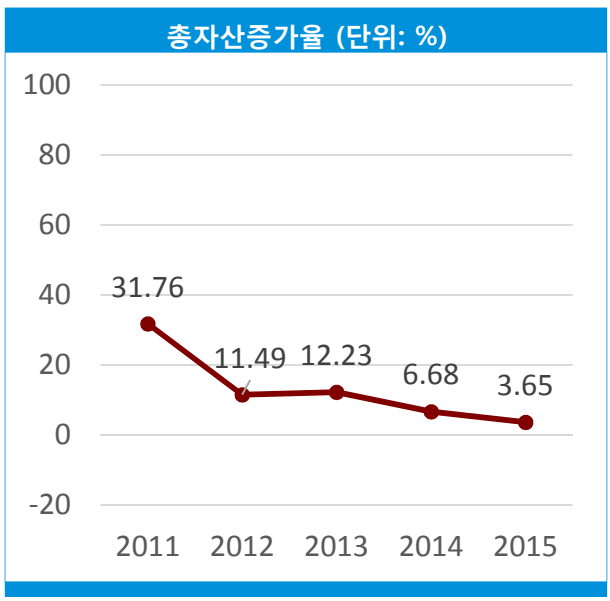
주철관 제조업

성장성

주철관 제조업은 주형, 주조 또는 원심분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철관, 중공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철관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2년 24.33%에서 2013년 -2.03%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5년에는 7.06%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순이익증가율은 2011년 88.37%에서 2013년 -5.36%로 급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8.75%를 기록했다.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 31.76%에서 지난 5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65%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주철관 제조업의 순이익과 총자산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매출액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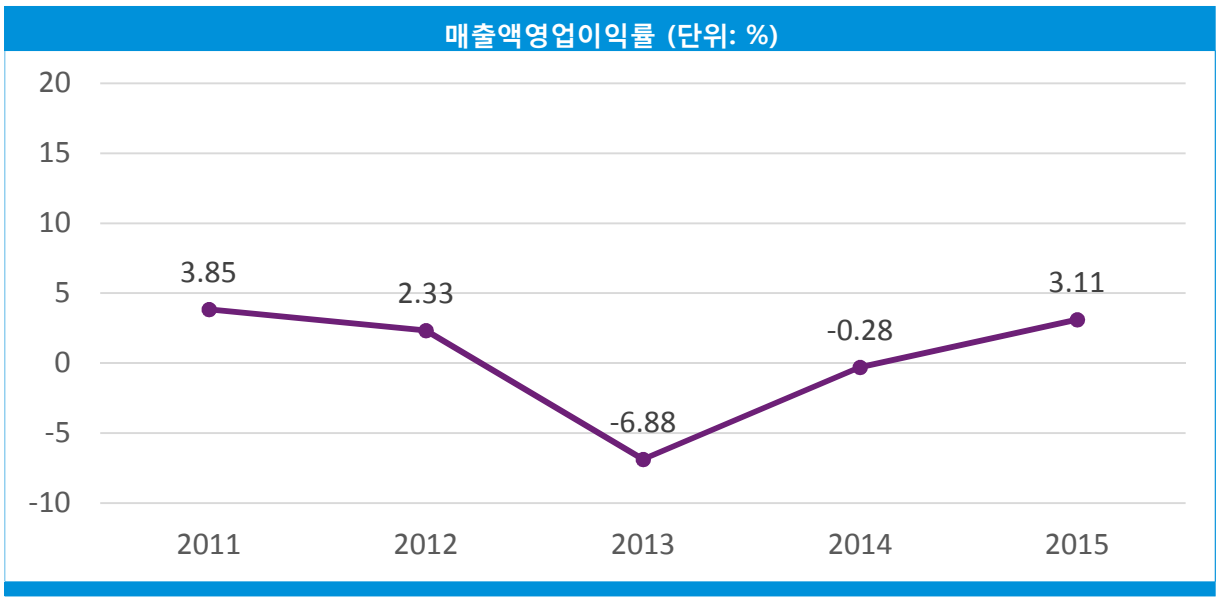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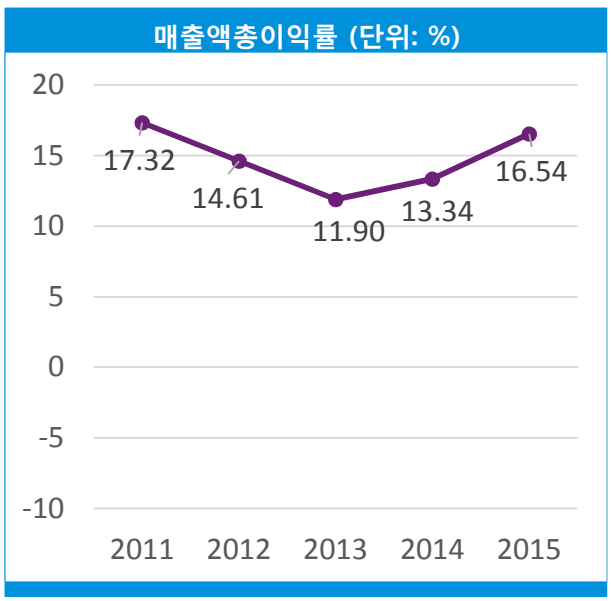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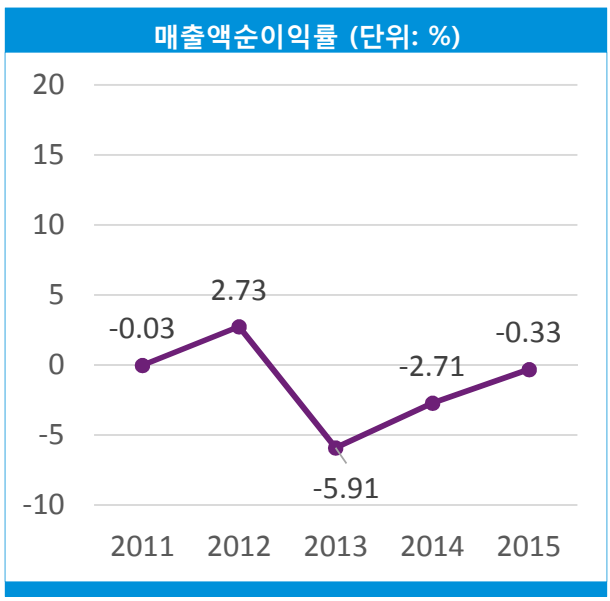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주철관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3.85%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3년에는 -6.88%로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3.11%의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총이익률도 2011년 17.32%에서 2013년 11.90%로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하여 2015년에는 16.54%를 기록하는 등 최근 원가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 -5.91%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여 2015년에는 -0.3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주철관 제조업의 수익성은 2011년 이후부터 하락하여 2013년에 저점을 보인 후 최근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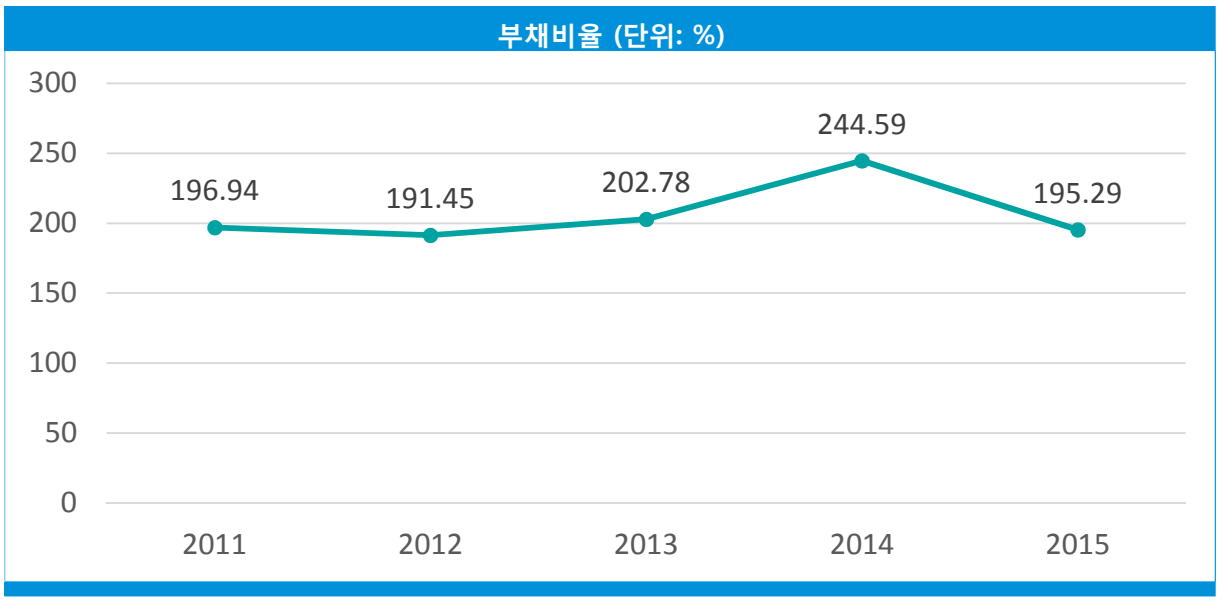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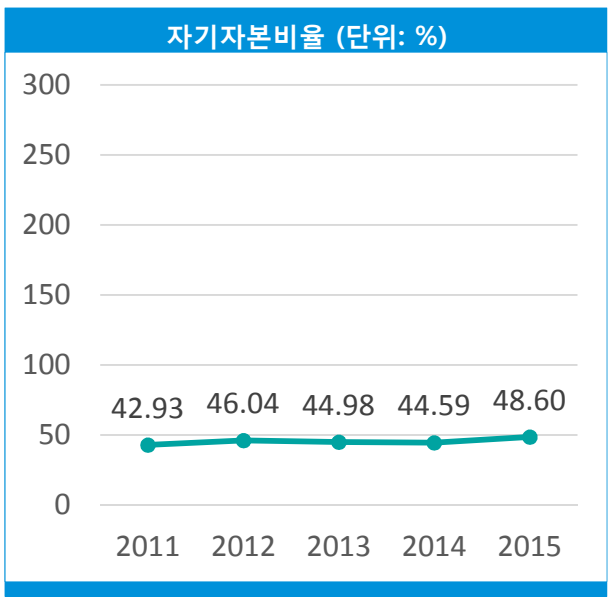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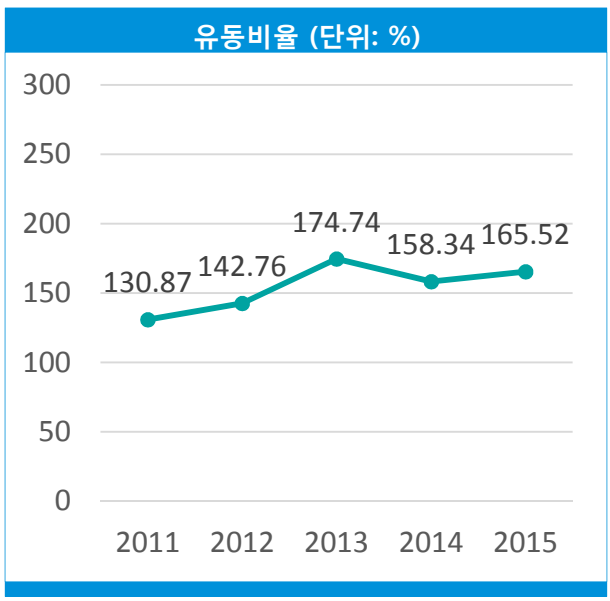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주철관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196.94%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4년 244.59%로 지난 5년간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가장 최근인 2015년에 195.29%까지 급락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42.93%에서 2015년 48.60%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3년의 174.74%에서 2014년에 158.34%로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2015년 다시 165.52%로 반등했다. 전반적으로 2015년 주철관 제조업의 안정성과 유동성은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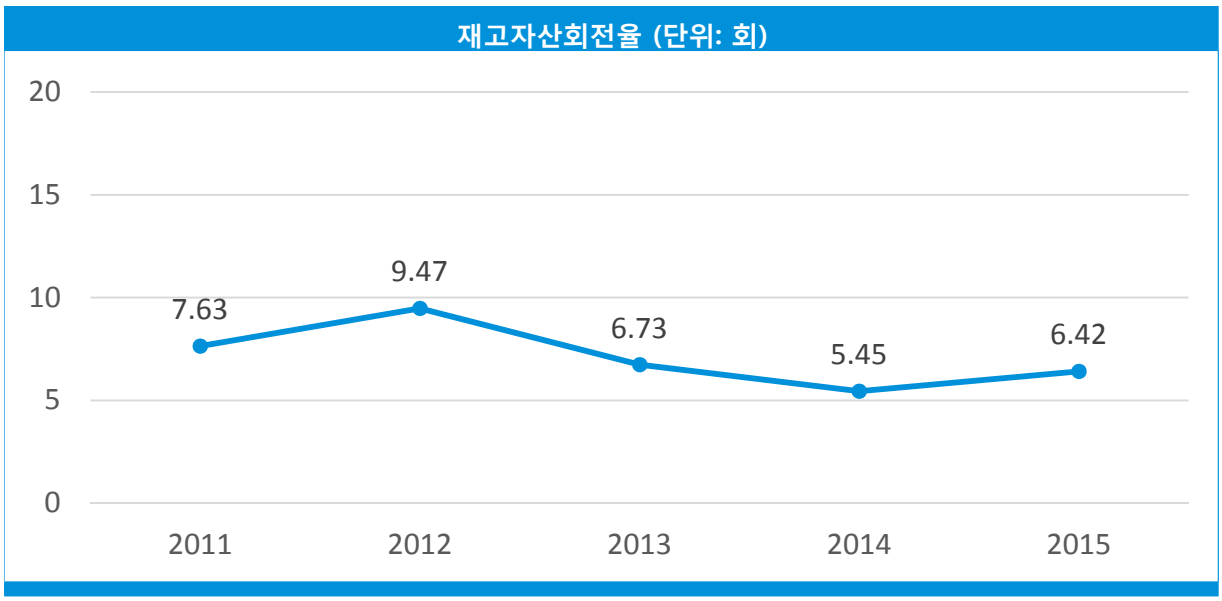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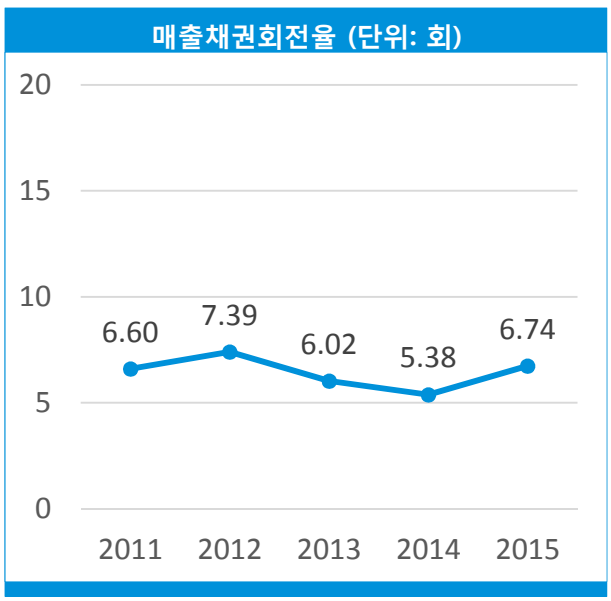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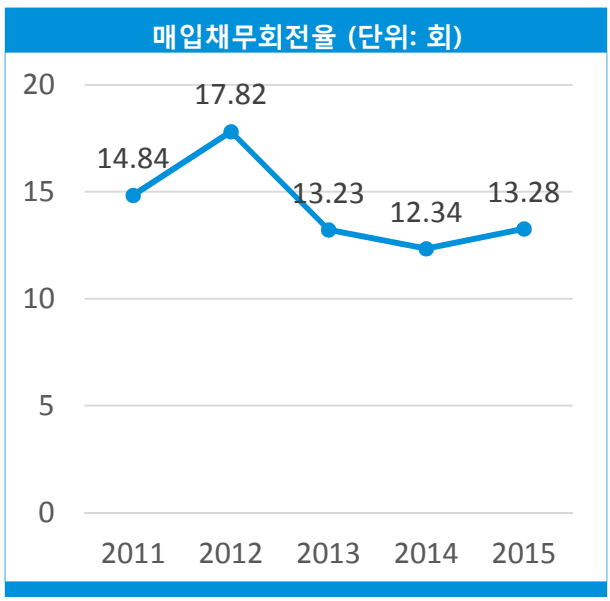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주철관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 9.47회에서 2014년 5.45회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인 2015년 소폭 상승한 6.42회를 기록했다. 매출채권회전율 또한 2012년 7.39회에서 2014년 5.38회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인 2015년에 소폭 상승하여 6.74회로 나타났다. 유사한 추세로 매입채무회전율은 2012년 17.82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12.34회를 기록했으나 최근인 2015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여 13.28회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주철관 제조업의 활동성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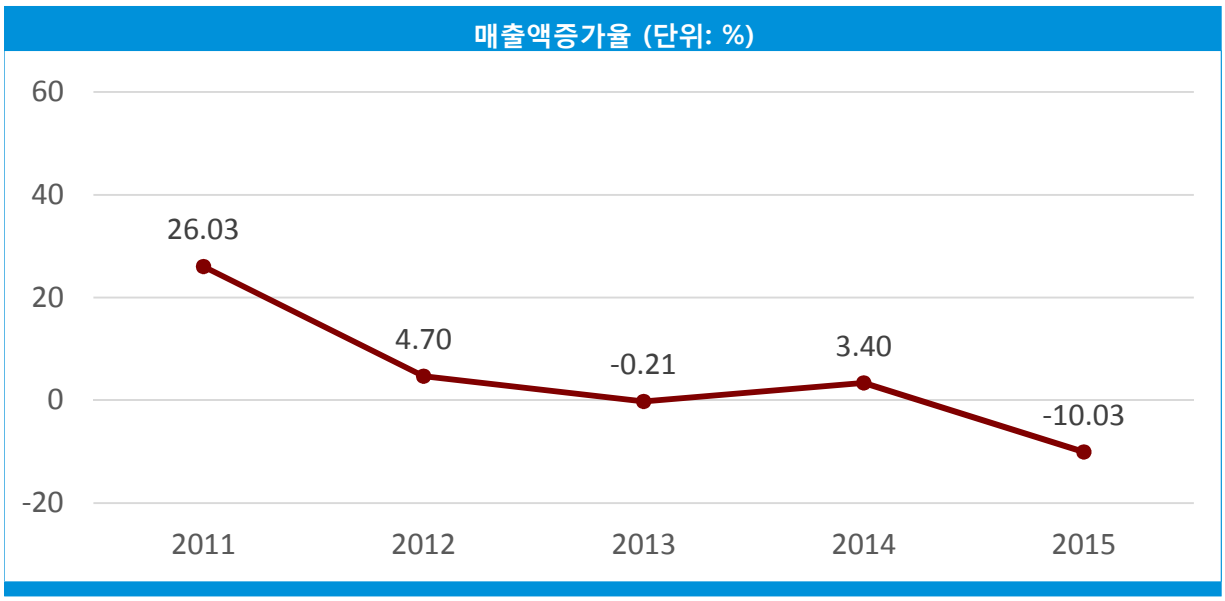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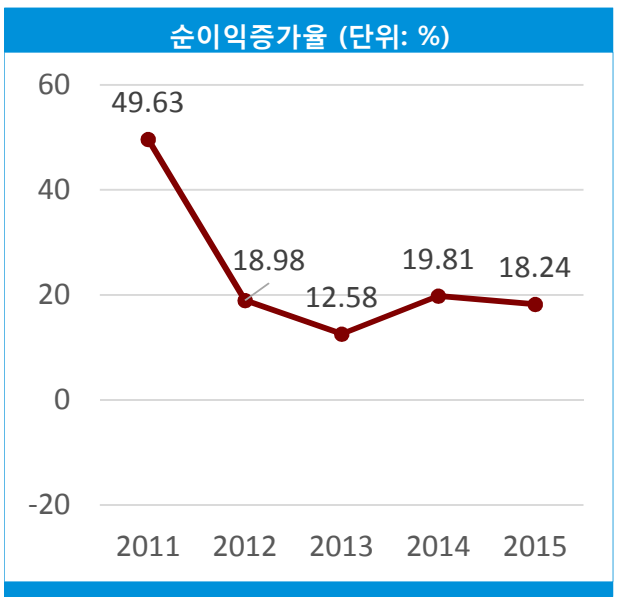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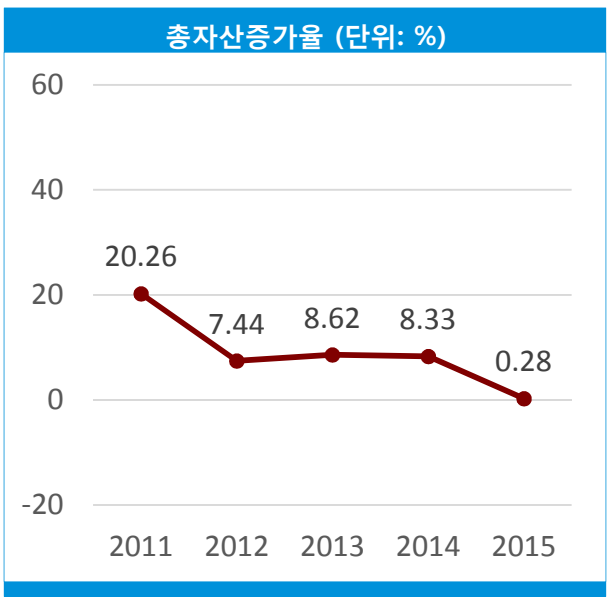
강관 제조업

성장성

강관 제조업은 강재를 단조·인발·압출, 용접 및 기타 가공하여 무계목강관, 단접강관, 용접강관, 박질강관이나 튜브 및 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강관 또는 중고 강관을 인발 또는 재생인발하여 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강관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6.03%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10.0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순이익증가율도 2011년 49.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 18.24%까지 하락했다. 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인 총자산증가율의 경우도 2011년 20.26%에서 2015년 0.28%로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강관 제조업의 성장세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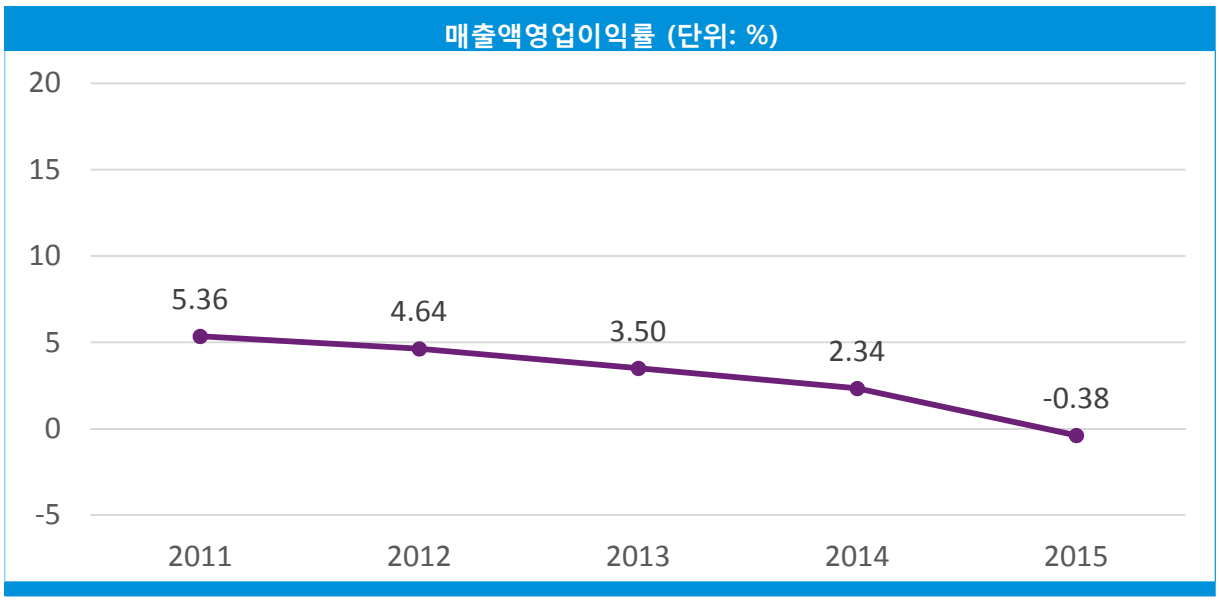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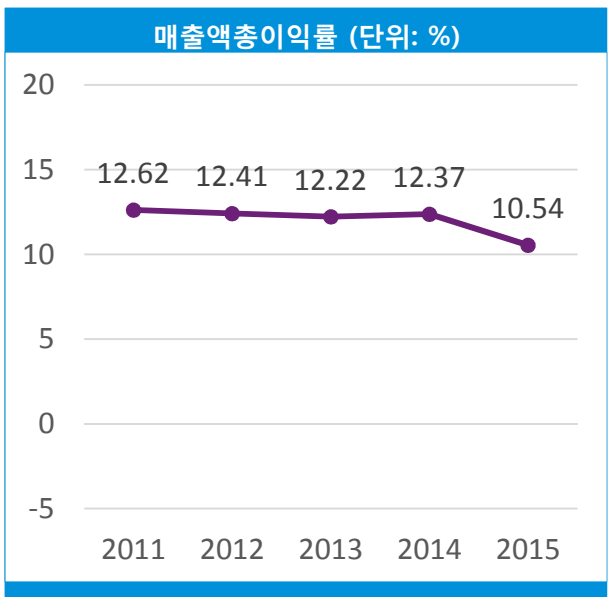
삼정 KPMG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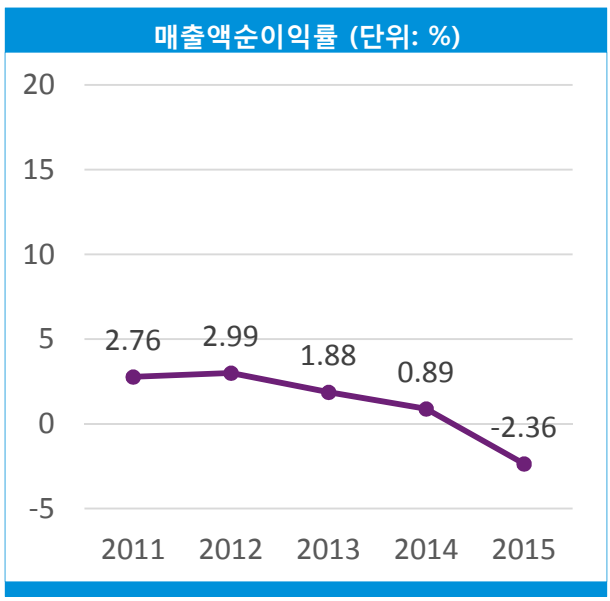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강관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5.36%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0.38%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매출액총이익률은 2011년 12.62%에서 4년간 12% 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소폭 하락하여 10.54%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은 2012년의 2.9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36%로 업계 평균 적자를 기록했다. 강관 제조업의 수익성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2015년에 들어서 그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관 제조업은 철강 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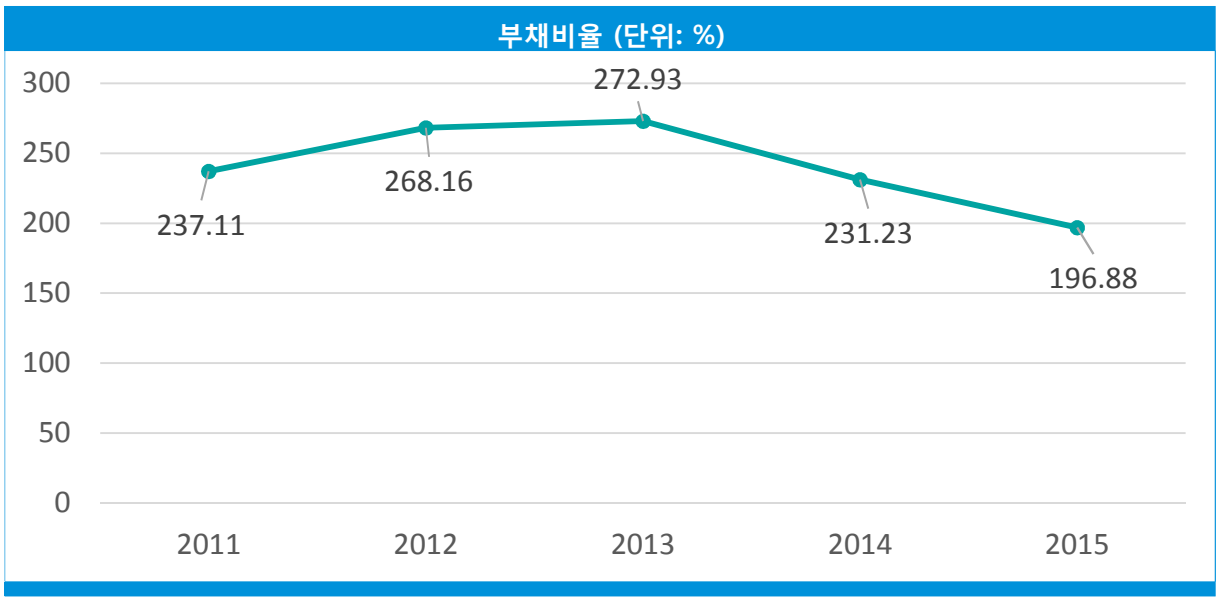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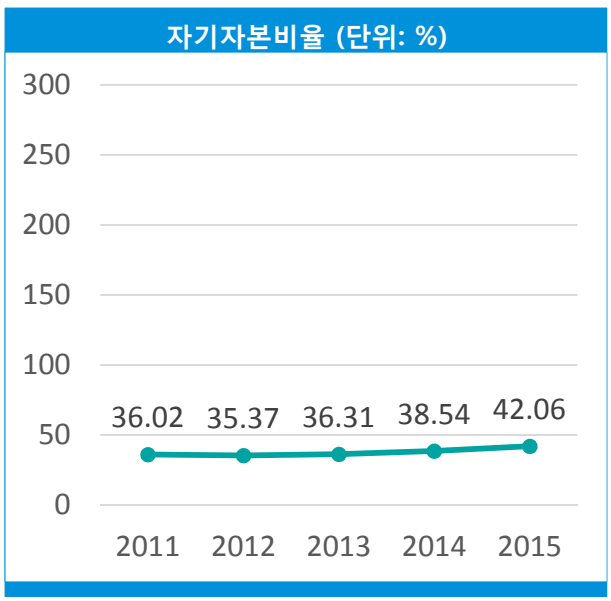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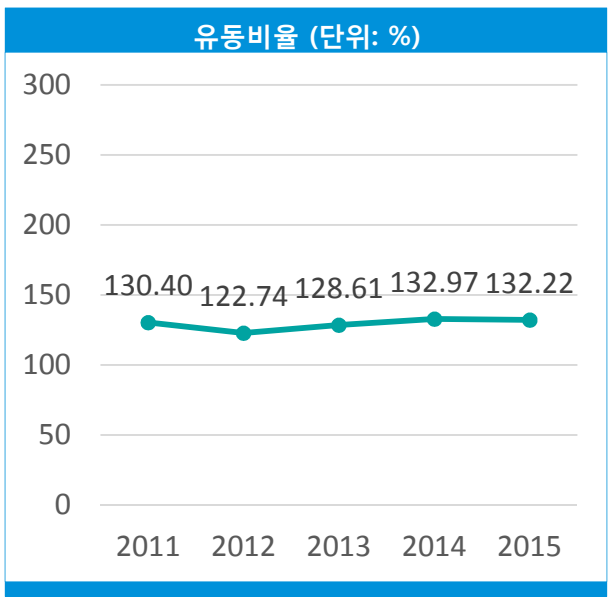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강관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237.11%에서 상승하여 2013년 272.93%로 분석기간내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196.88%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2012년에 35.37%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지난 5년간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한 42.06%를 기록했다. 유동비율은 2011년 130.40%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2015년 132.22%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강관 제조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2013년부터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의 변동은 분석기간내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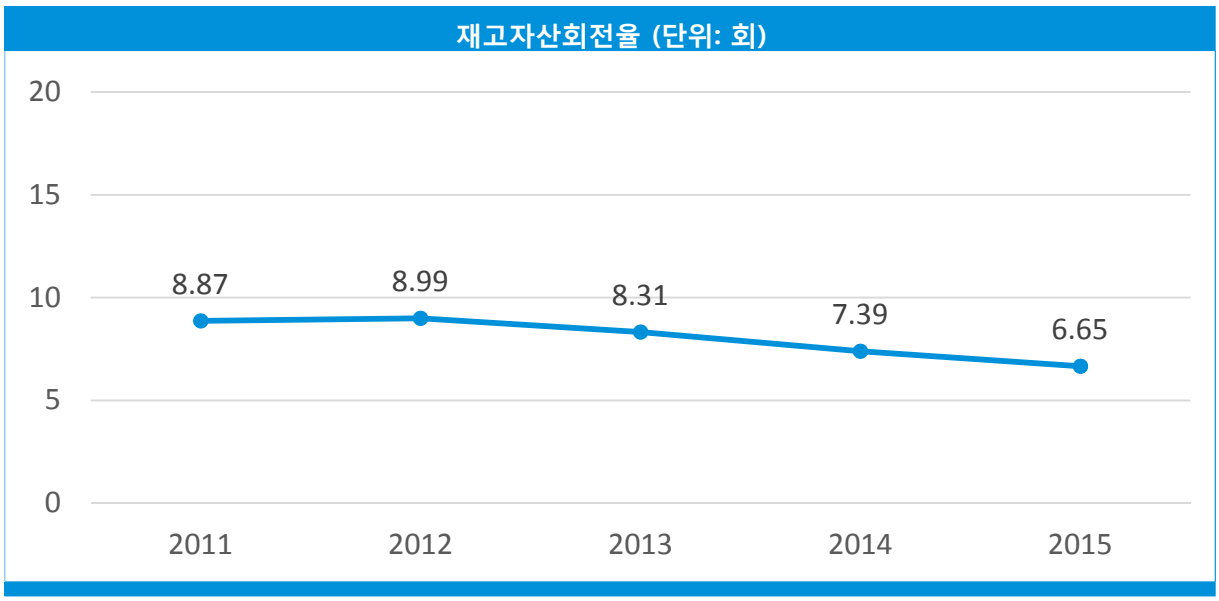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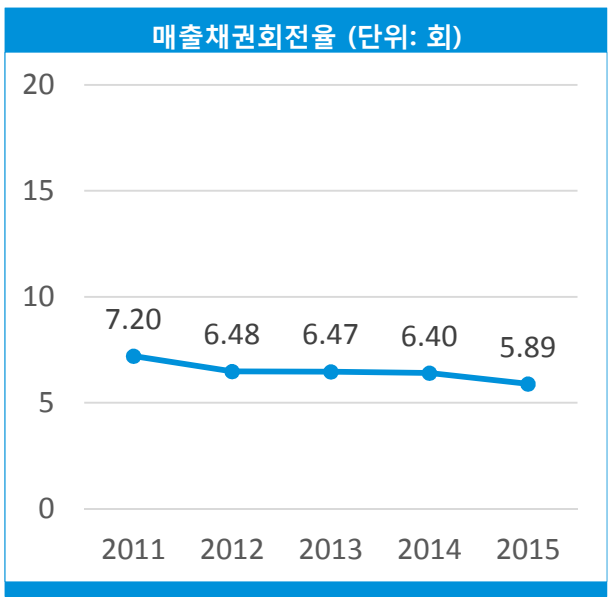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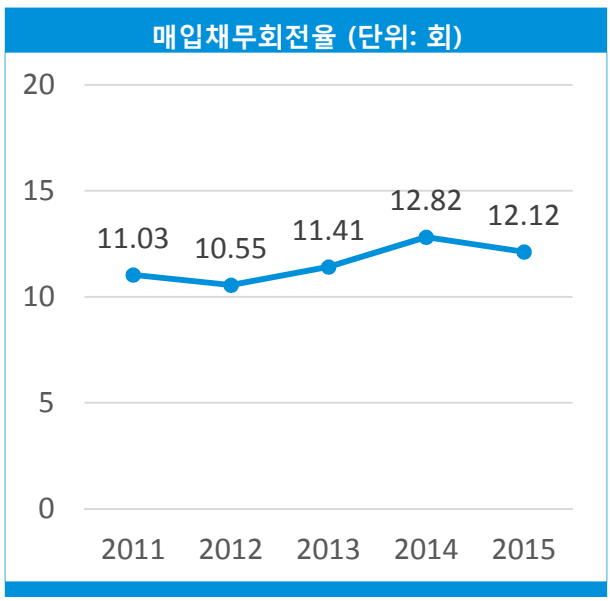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강관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의 8.99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6.65회로 나타나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율도 2011년의 7.20회에서 2015년 5.89회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 11.03회에서 2015년 12.82회로 다소 상승했으나, 2015년 들어 12.12회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강관 제조업의 활동성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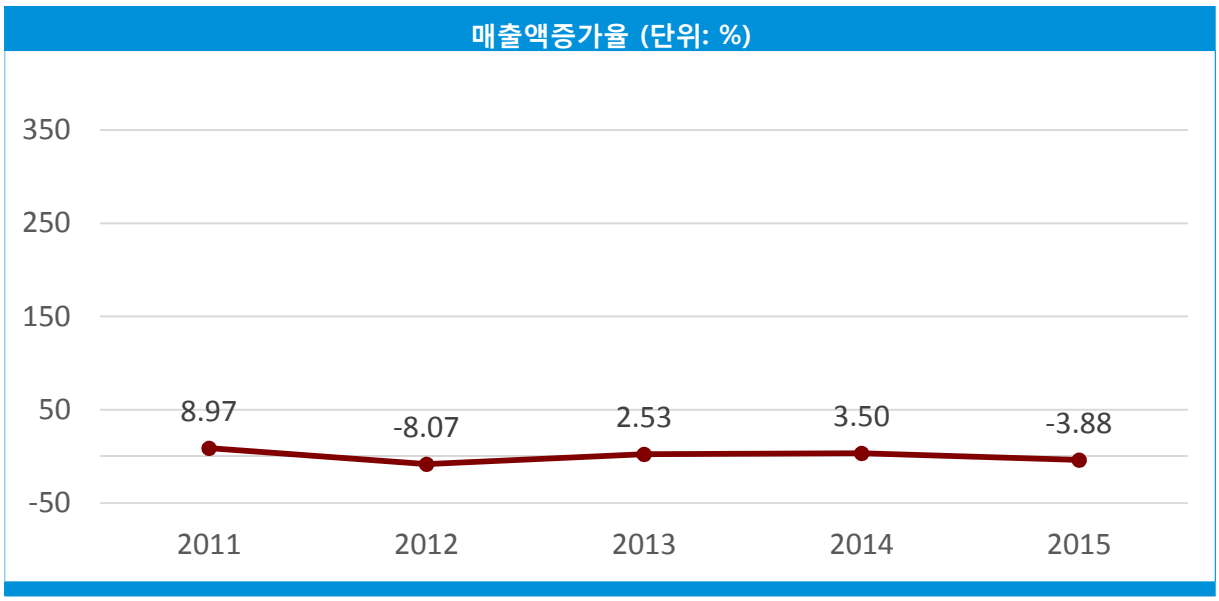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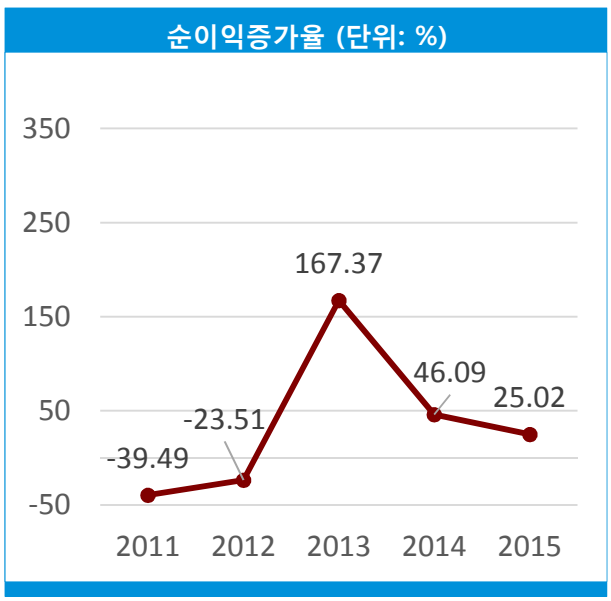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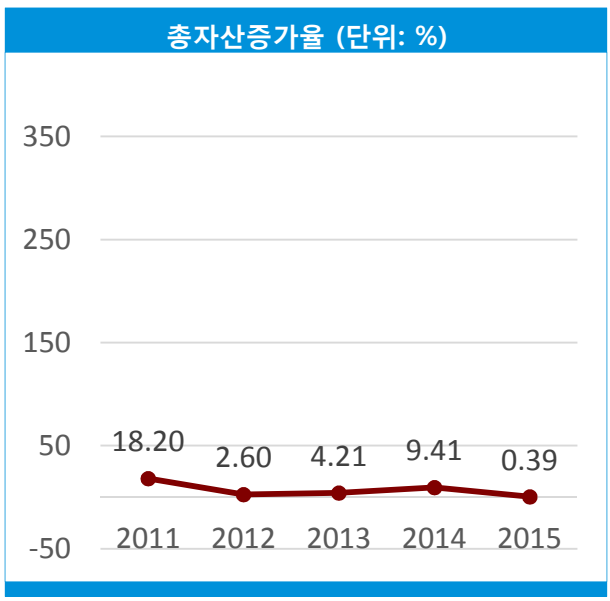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

성장성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8.97%에서 2012년 -8.07%로 급락했고,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에 -3.88%로 다시 성장 후퇴를 보였다. 순이익증가율은 2011년 -39.4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67.37%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25.02%로 나타났다.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 18.20%에서 2012년 2.60%로 급감한 후 2015년 0.39%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성장성은 2015년에 들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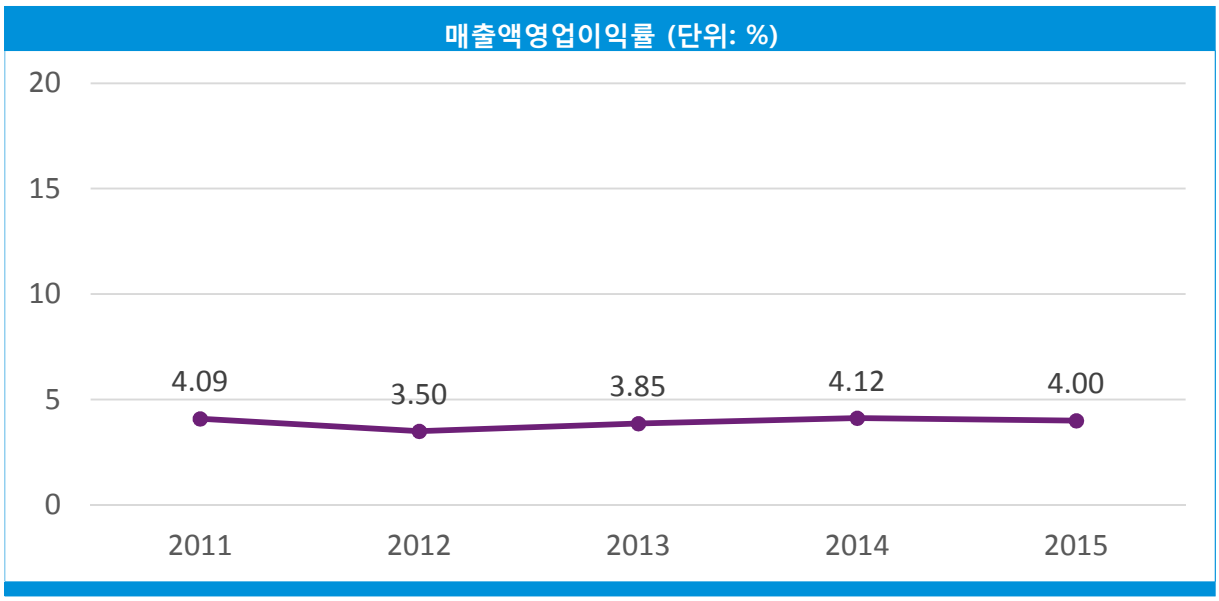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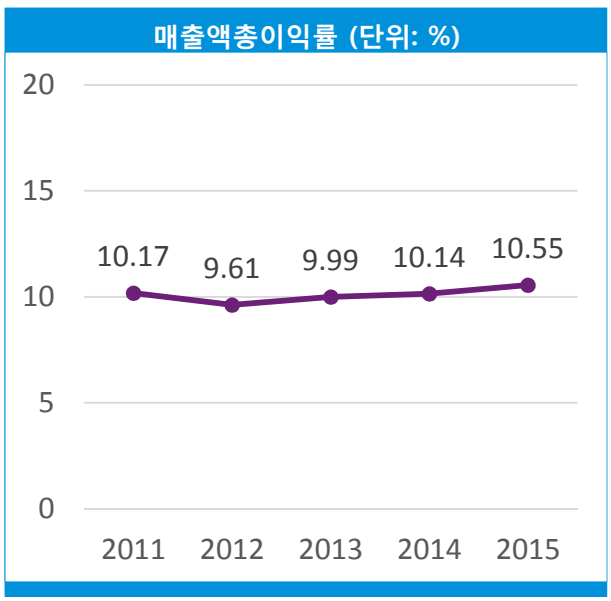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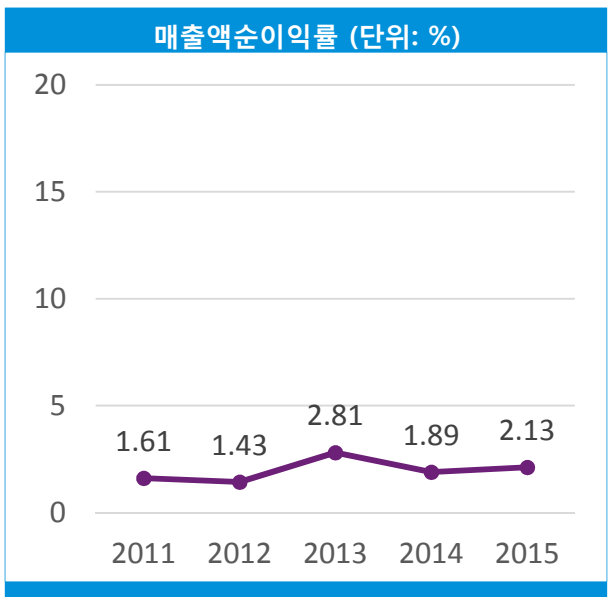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4.09%에서 분석기간 동안 소폭의 등락이 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5년 4.00%를 기록했다. 매출액총이익률도 2012년 9.61%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 10.55%를 기록했으나 그 변동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기업이 실현한 최종이익을 나타내는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에 2.81%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고점 대비 소폭 하락한 2.1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수익성은 지난 5년간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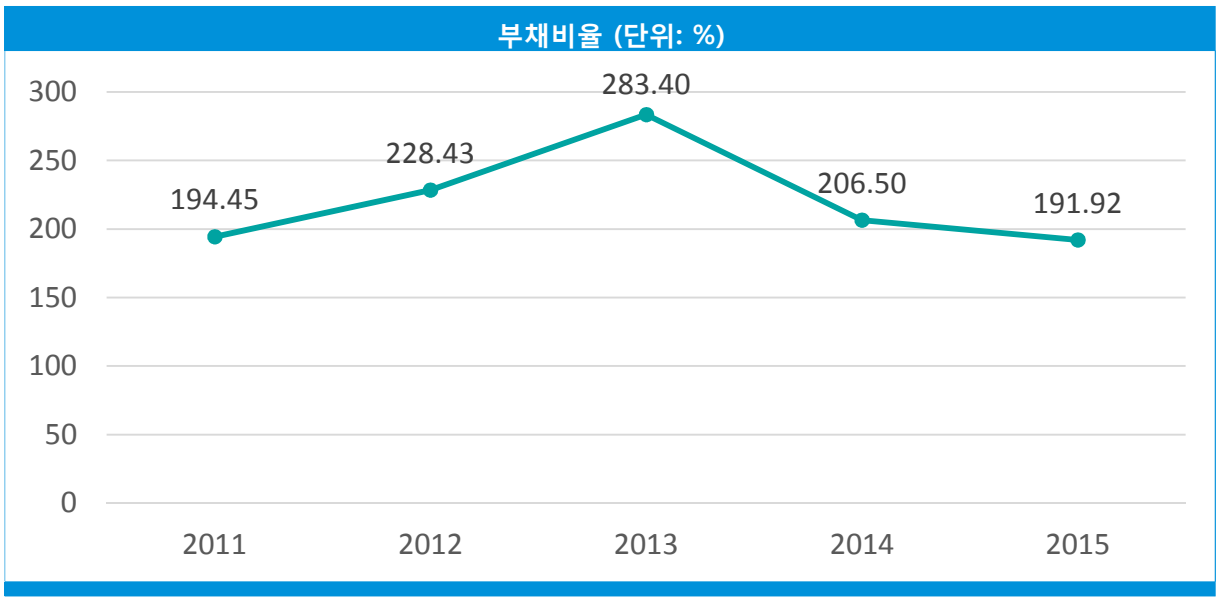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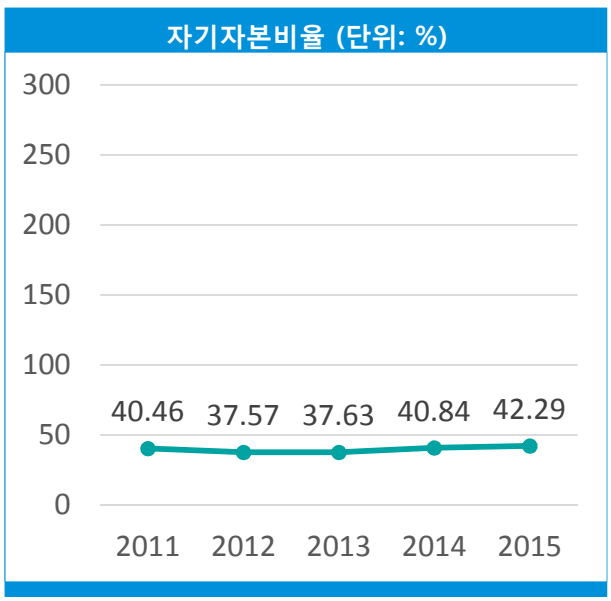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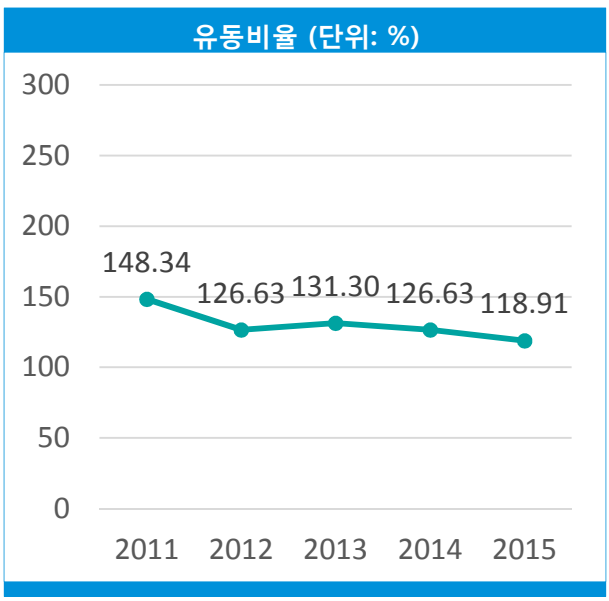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194.4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283.40%로 분석기간내 최고점을 보인 후, 점차 하락하여 2015년 191.92%를 기록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2013년 37.6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42.29%를 기록했다. 한편 유동비율은 2011년의 148.34%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5년 118.91%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성을 볼 때,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장기적인 재무적 안정성은 최근 들어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유동비율로 표현되는 기업의 단기 유동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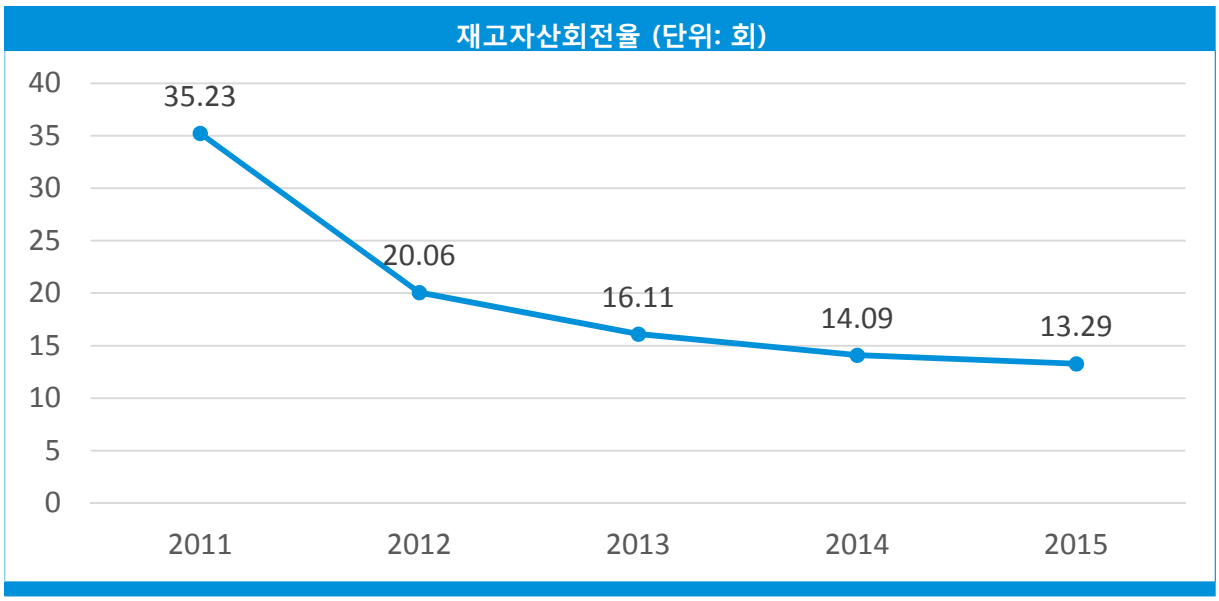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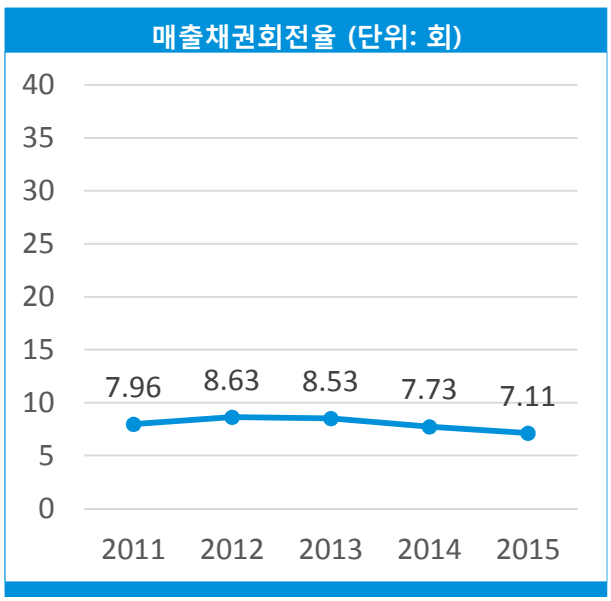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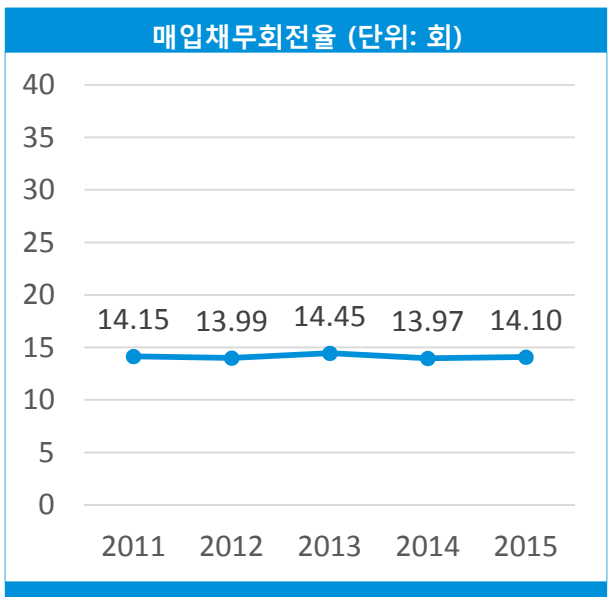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 35.23회로 비교적 산업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3.29회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도 2012년 8.63회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 7.11회를 기록했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 14.15회에서 2015년에는 14.10회로 소폭 하락했으나, 분석기간내 변동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의 경우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매출에 대한 현금회수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전반적인 활동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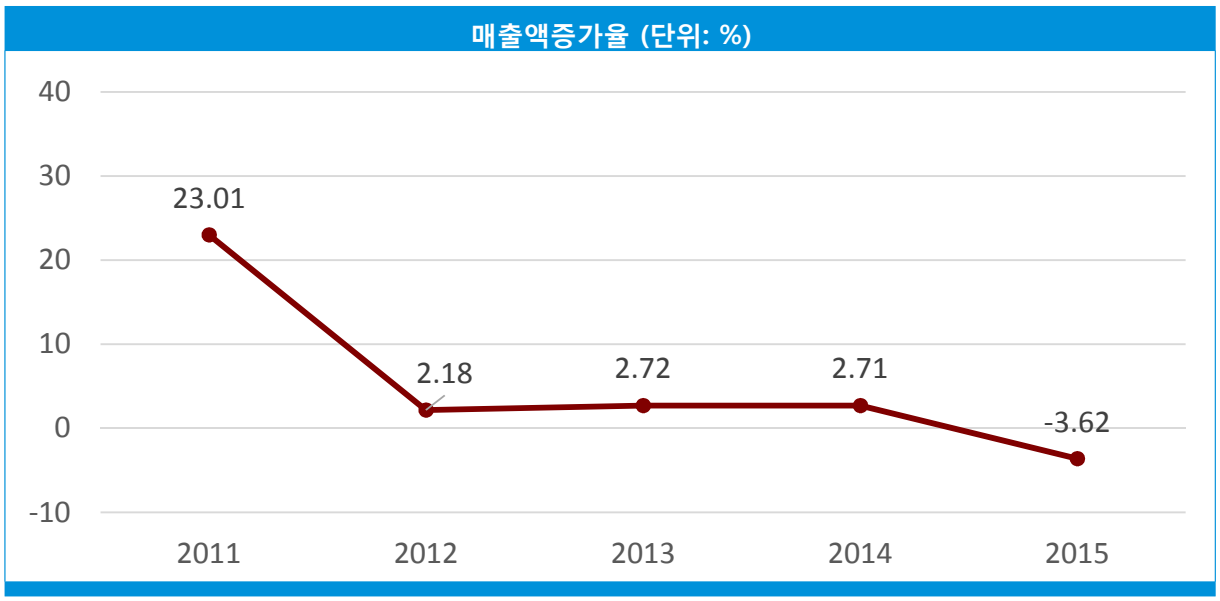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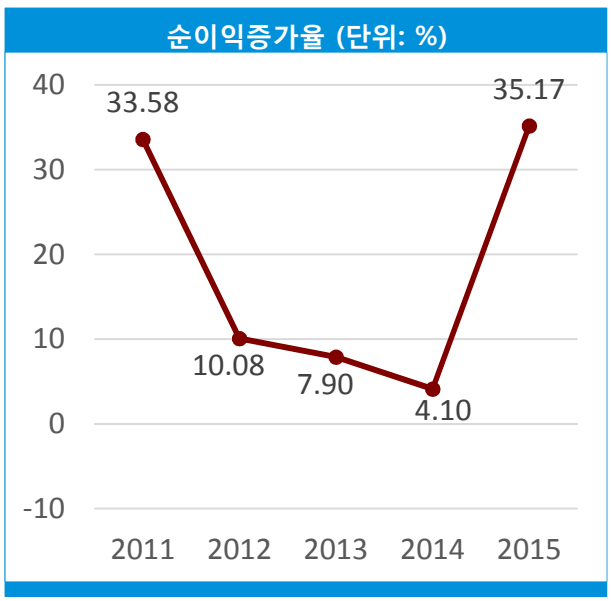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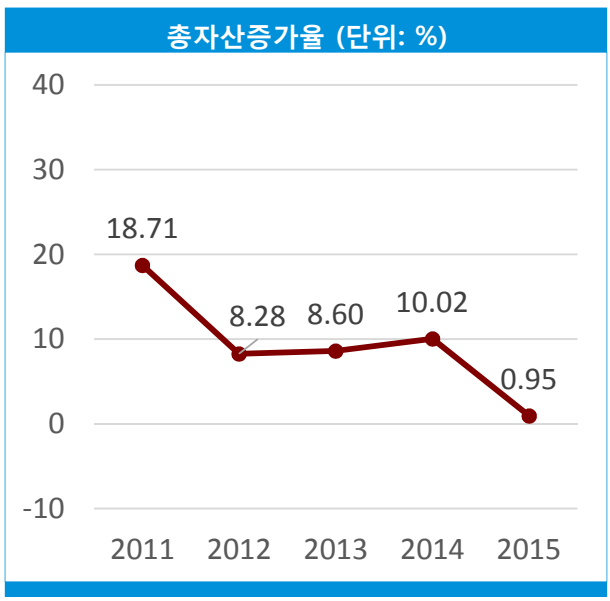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성장성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은 열간 또는 냉간제품을 제외한 기타 형강, 단공강재, 용접형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3.01%에서 2012년 2.18%로 급락했으며, 2015년에는 -3.62%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순이익증가율은 2011년 33.58%에서 2012년에 10.08%로 급락했으나, 이후 2015년에는 35.17%로 회복했다.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 18.21%에서 2012년 8.28%로 급락한 후 2015년에는 0.95%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성장성은 변동성이 큰 순이익증가율을 제외하고는 점차 악화 또는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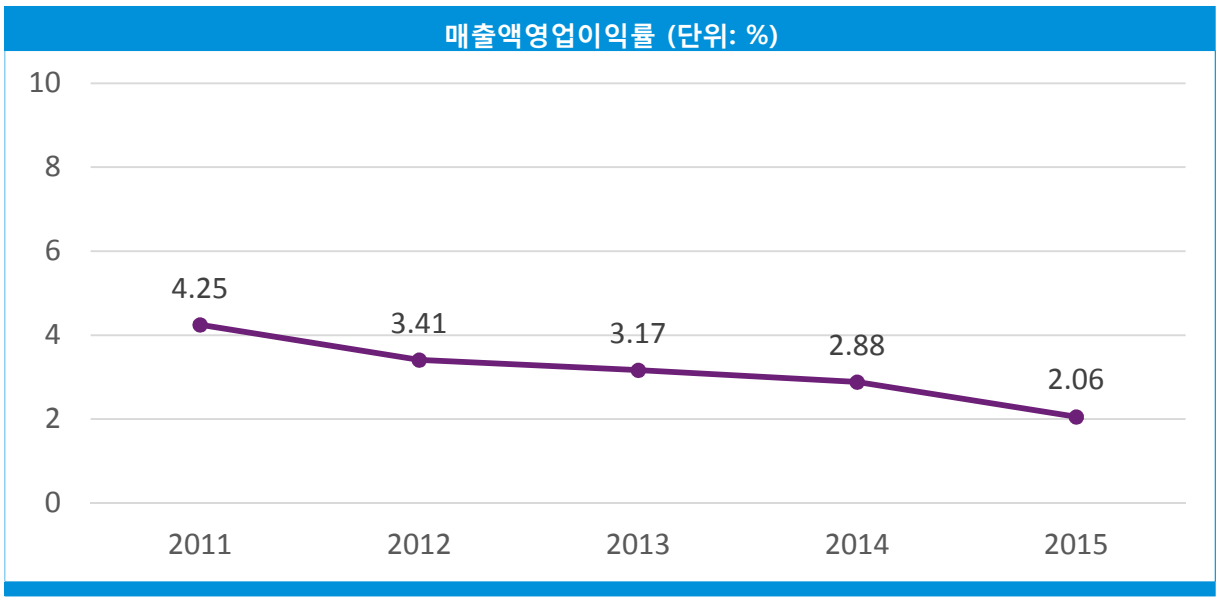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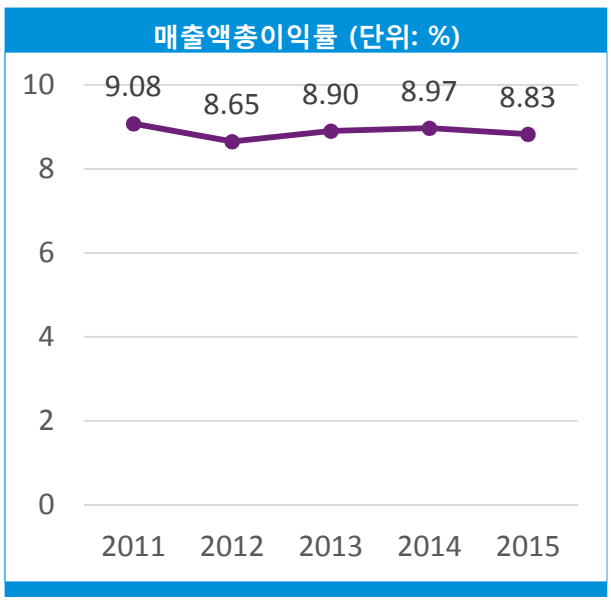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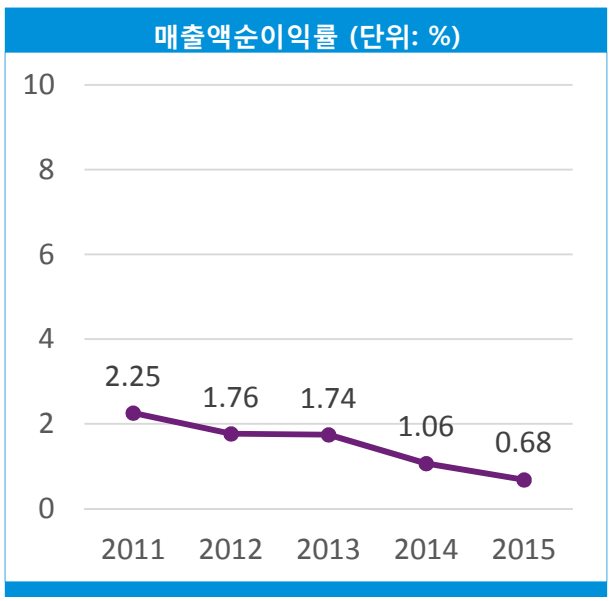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4.2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06%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철강 산업 전체 매출액증가율의 평균인 2.34%와 비교할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반면 매출액총이익률은 2011년 9.08%에서 소폭 하락 후 큰 변동 없이 매년 8%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8.83%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순이익률은 2011년 2.2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0.68%로 분석기간내 최저점을 기록했다. 종합하면,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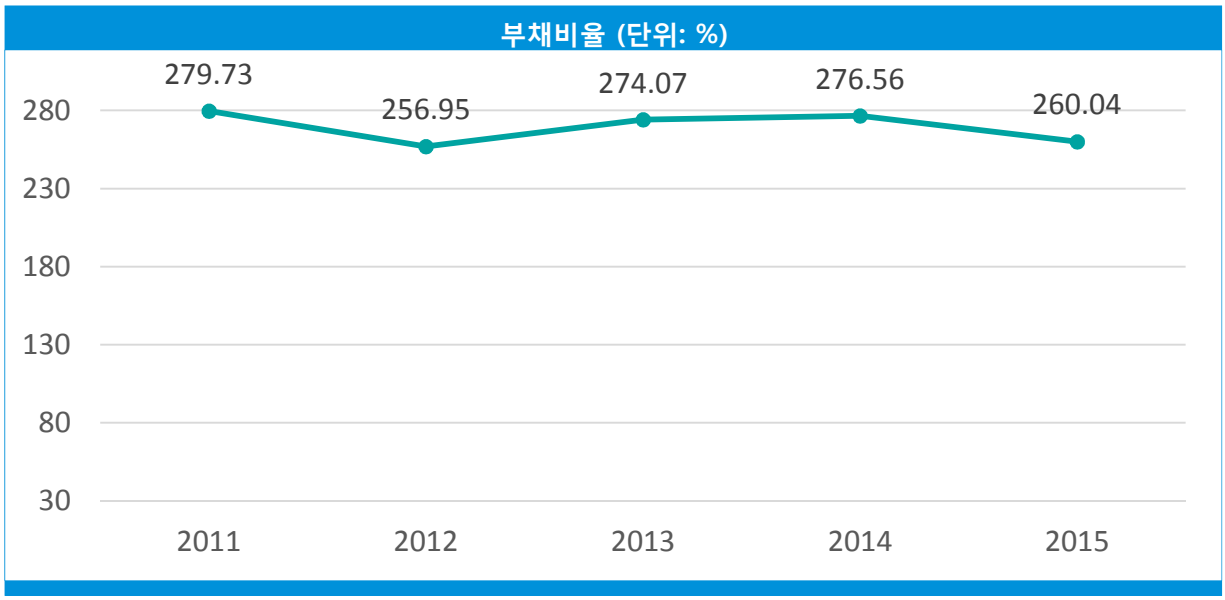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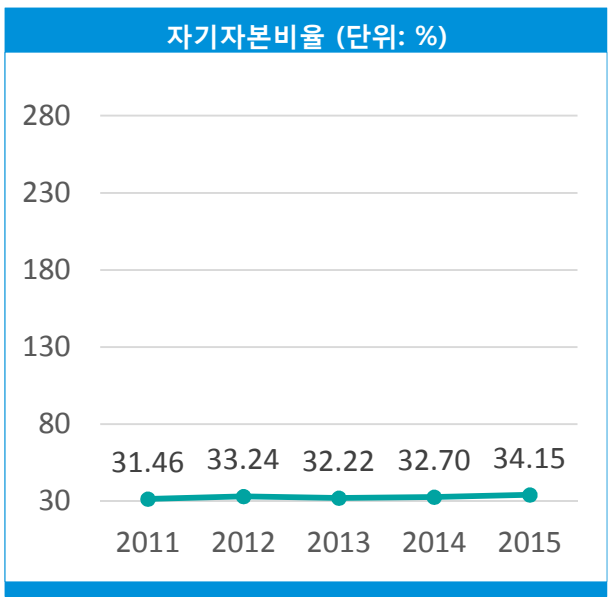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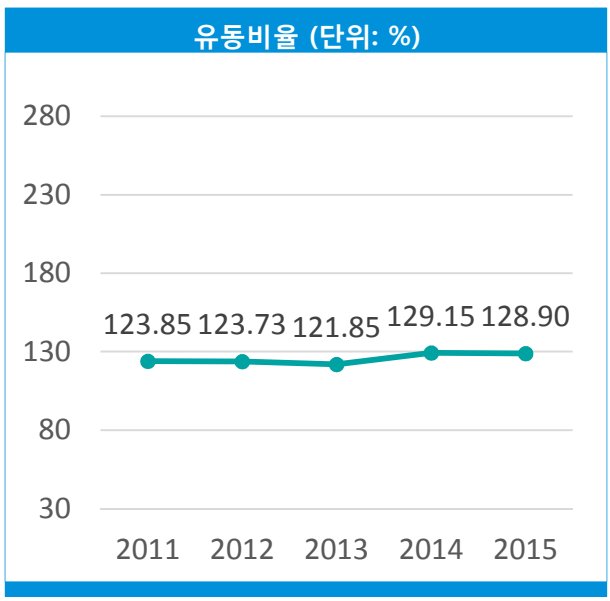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279.73%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 260.04%를 기록했다. 2015년 철강 산업 전체 부채비율 평균인 217.98%와 비교할때 산업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31.46%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34.15%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2013년 121.85%로 분석기간내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5년 128.90%를 기록했다. 2015년 들어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다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폭은 미미하지만 유동성 또한 2011년부터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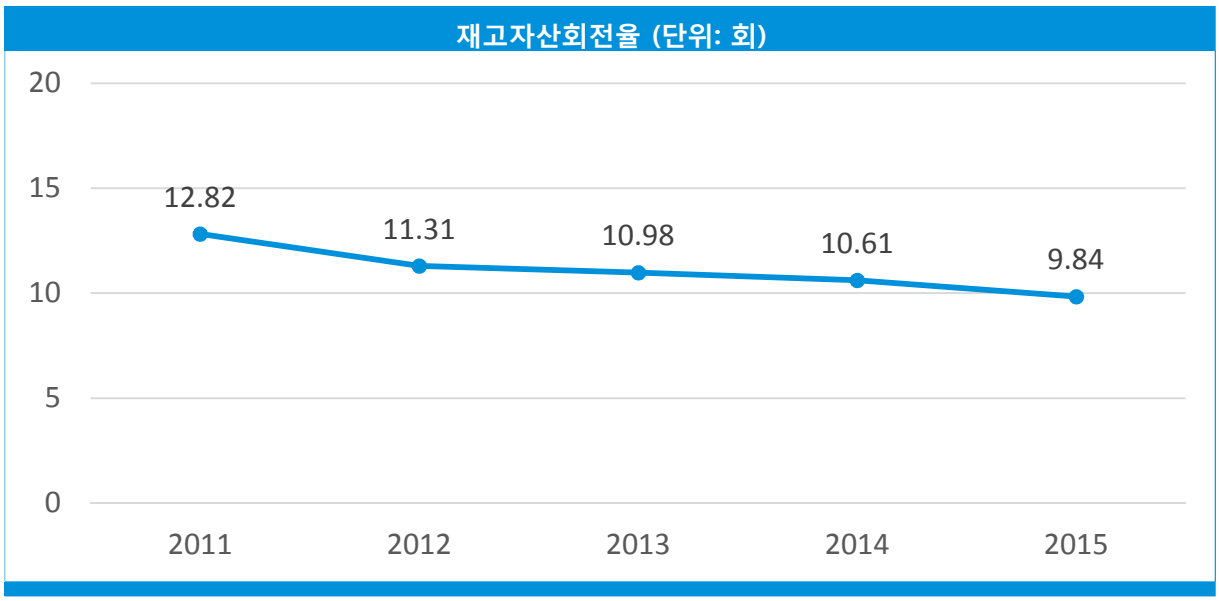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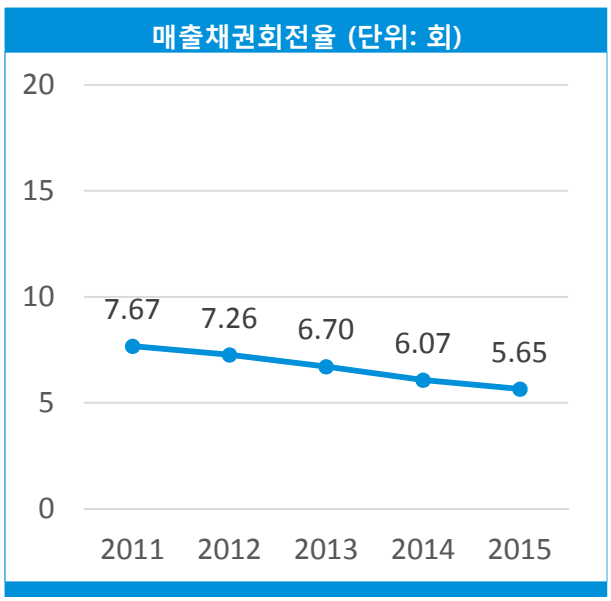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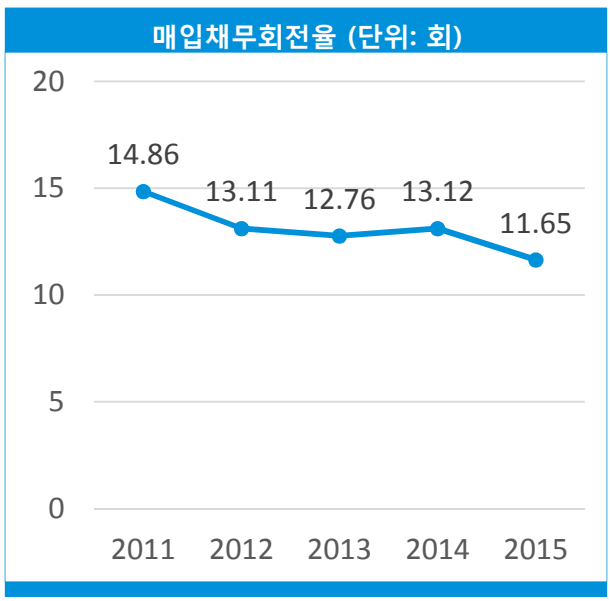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 12.82회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9.84회를 기록했다. 이는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출채권회전율도 마찬가지로 2011년의 7.67회에서 5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5.65회로 동기간 내 최저점을 보였다. 매출채권회전율의 하락은 기발생한 매출의 현금유입의 지연으로 기업경영의 지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매입채무회전율 또한 2011년 14.86회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1.65회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활동성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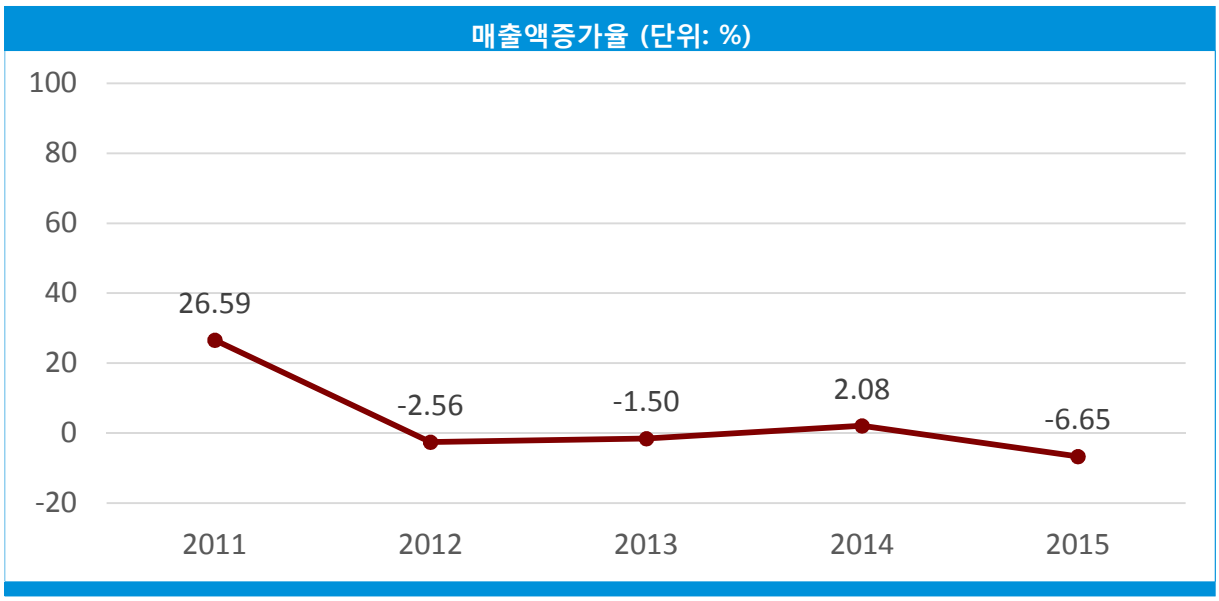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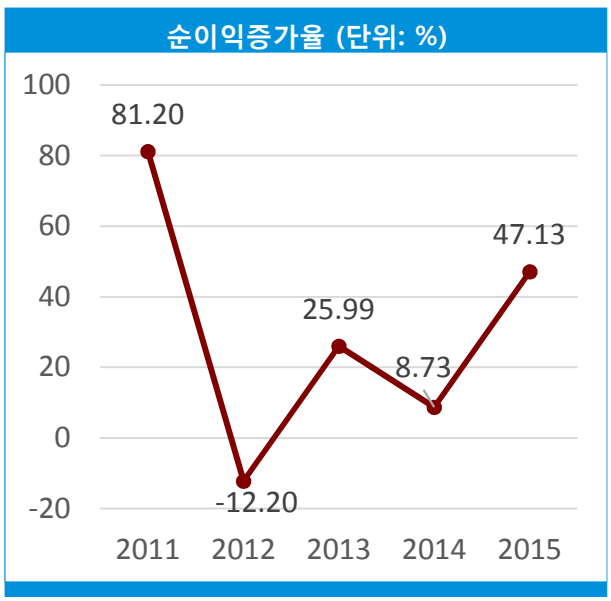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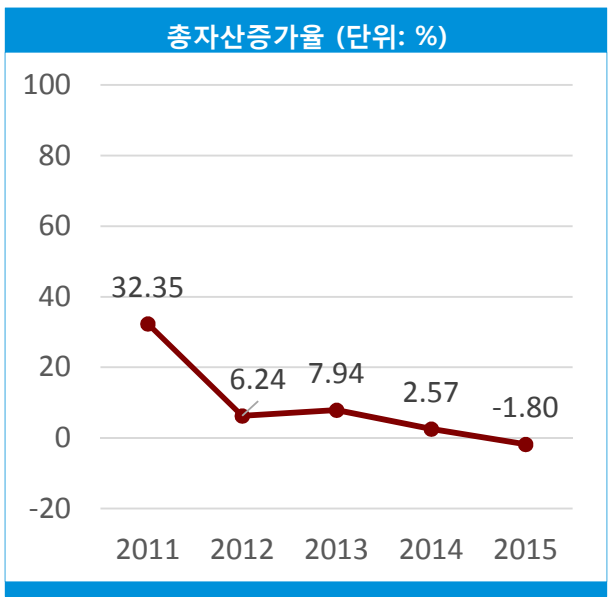
선철주물 주조업

성장성

선철주물 주조업은 선철 또는 합금철로 각종 선철(회)주물 및 가단 철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선철주물 주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6.59%에서 2012년 -2.56%로 급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6.65%로 더욱 악화됐다. 반면, 순이익증가율은 마이너스였던 2012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 들어서는 47.13%를 기록했다.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증가율과 마찬가지로 2011년 32.35%에서 2012년에 6.24%로 급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80%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선철주물 주조업의 성장성은 2012년에 전년 대비 급락한 이후 점차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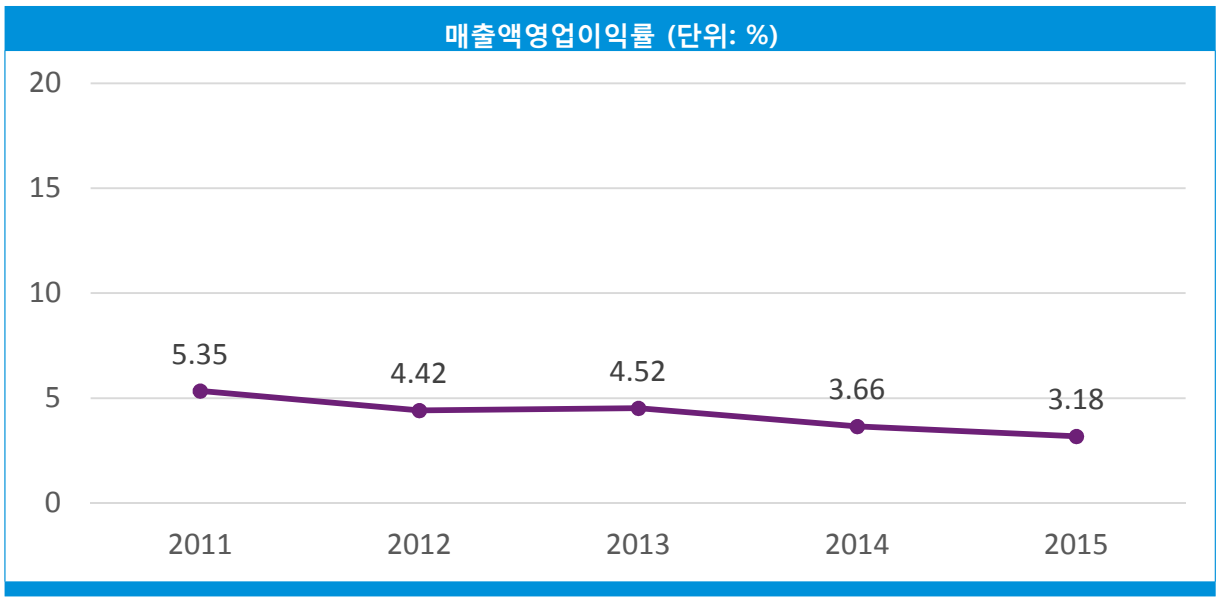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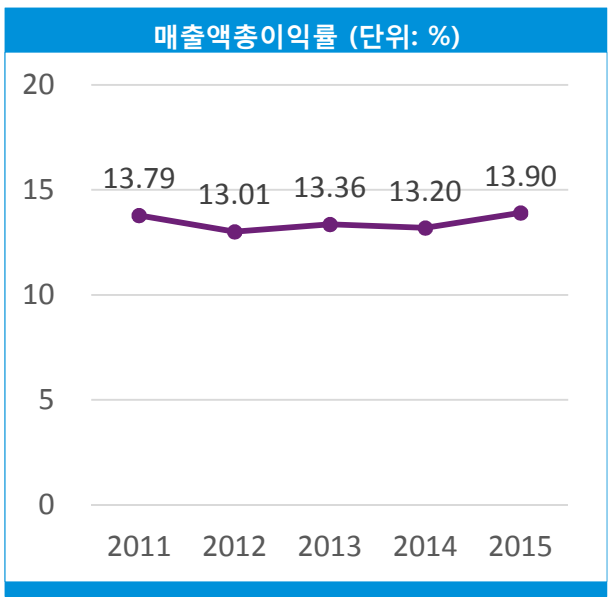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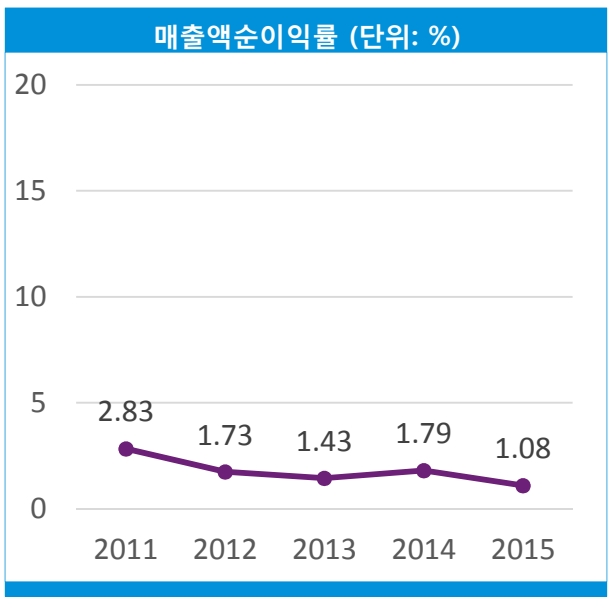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선철주물 주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5.3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들어서는 3.18%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 전체의 2015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2.34%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진 산업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13.79%에서 5년 동안 미미한 변동폭을 보이며 2015년 13.90%를 기록했다. 한편 매출액순이익률은 2011년 2.83%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08%로 지난 5년간의 최저점을 보였다. 종합하면, 선철주물 주조업의 경우 성장성 후퇴와 더불어 수익성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악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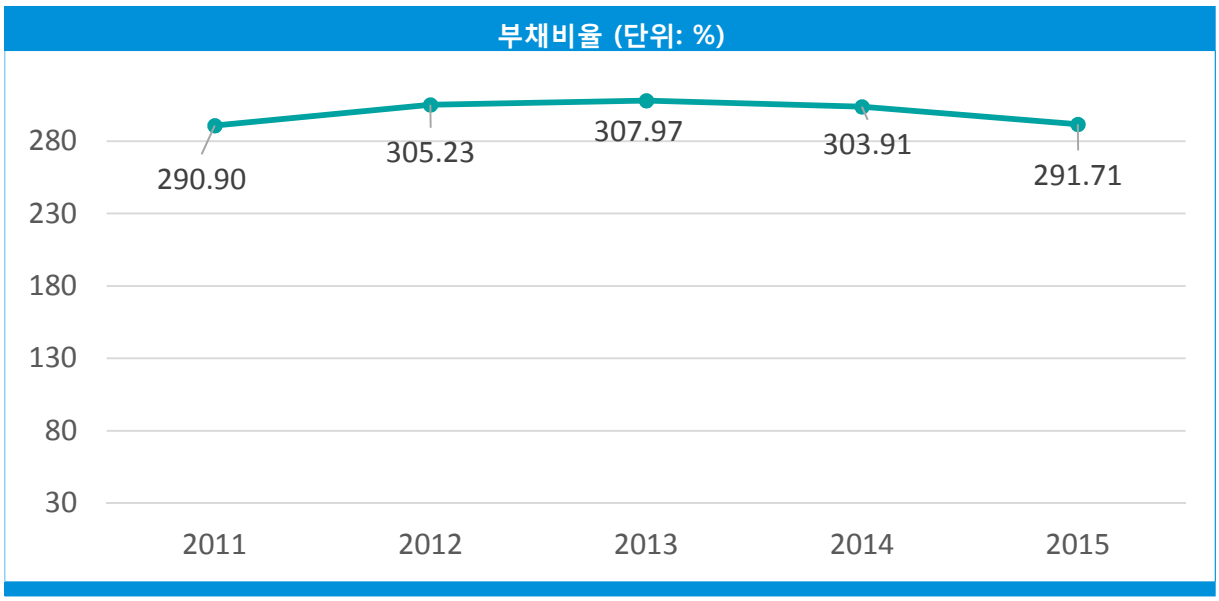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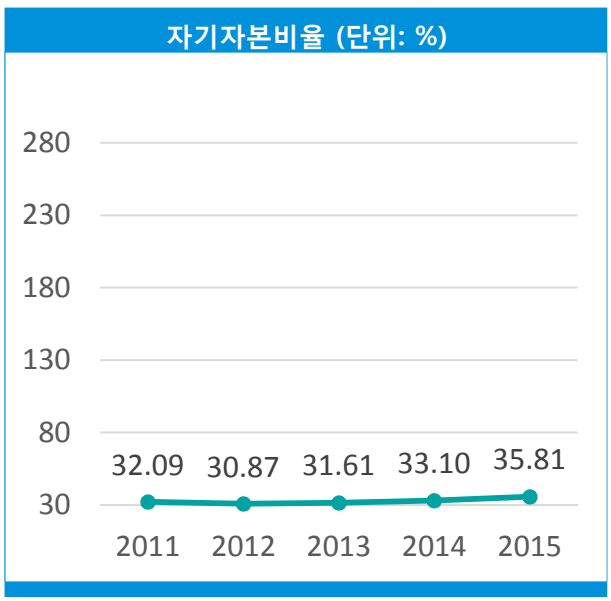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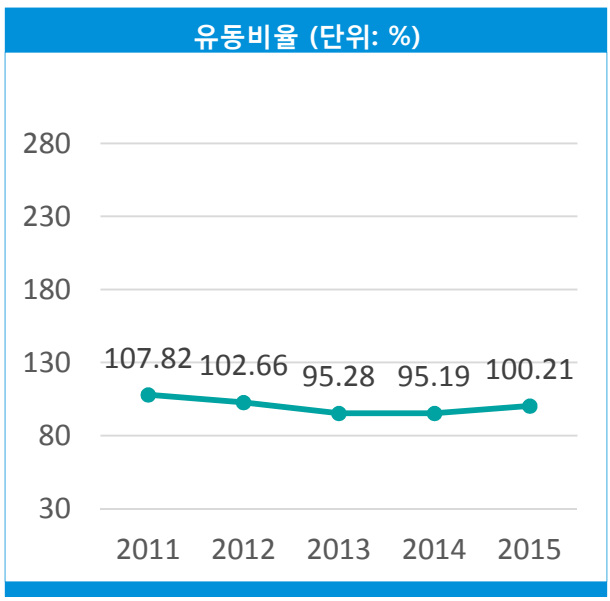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선철주물 주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 5년간 최고치였던 2013년의 307.9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91.71%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32.09%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한 이후 가장 최근인 2015년 지난 5년간의 최고치인 35.81%를 기록했다. 유동비율은 2011년 107.8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95.19%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100.21%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하면, 선철주물 주조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최근 들어 강화되는 추세이며, 단기지급능력도 2015년 들어 소폭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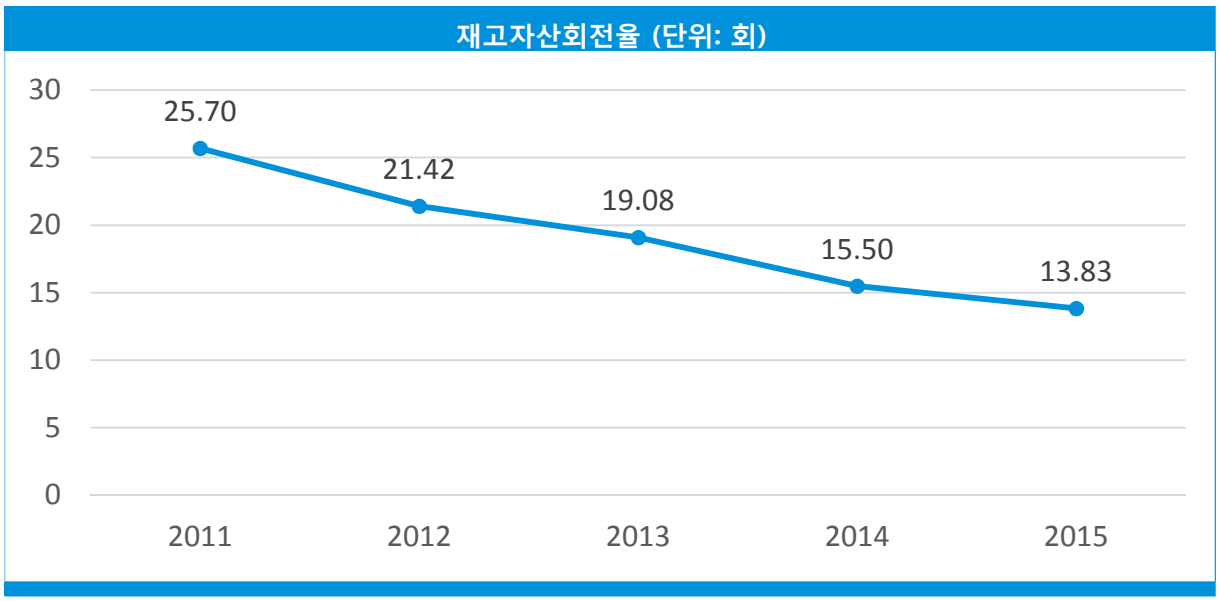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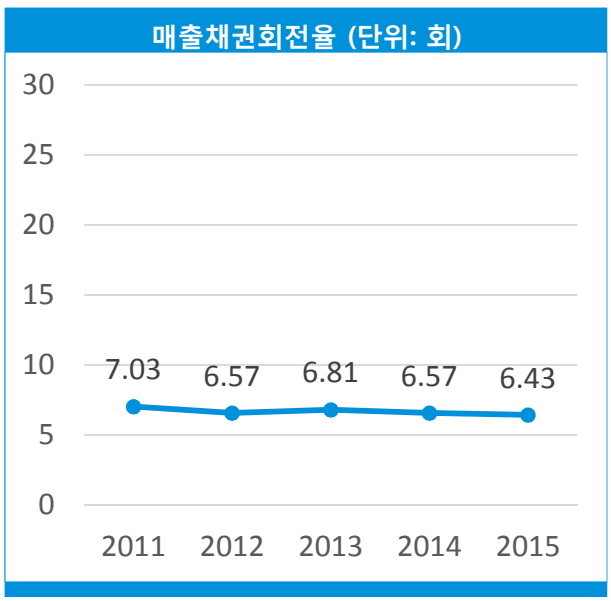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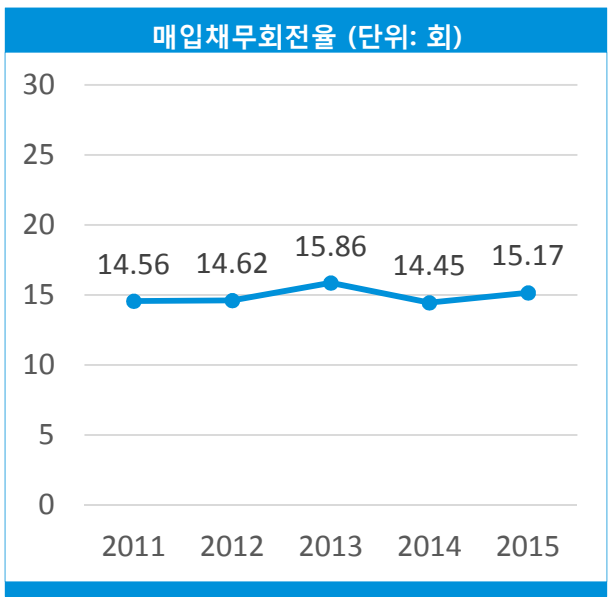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선철주물 주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 25.70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3.83%를 기록했다. 반면 매출채권회전율은 2011년 7.03회에서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5년에는 6.43회로 나타났으나 산업내 타산업과 비교할때 그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 14.56회에서 소폭 증가하여 2015년 15.17회를 기록하였으나, 매출채권회전율과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작아 의미있는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현금흐름과 관련된 선철주물 주조업의 활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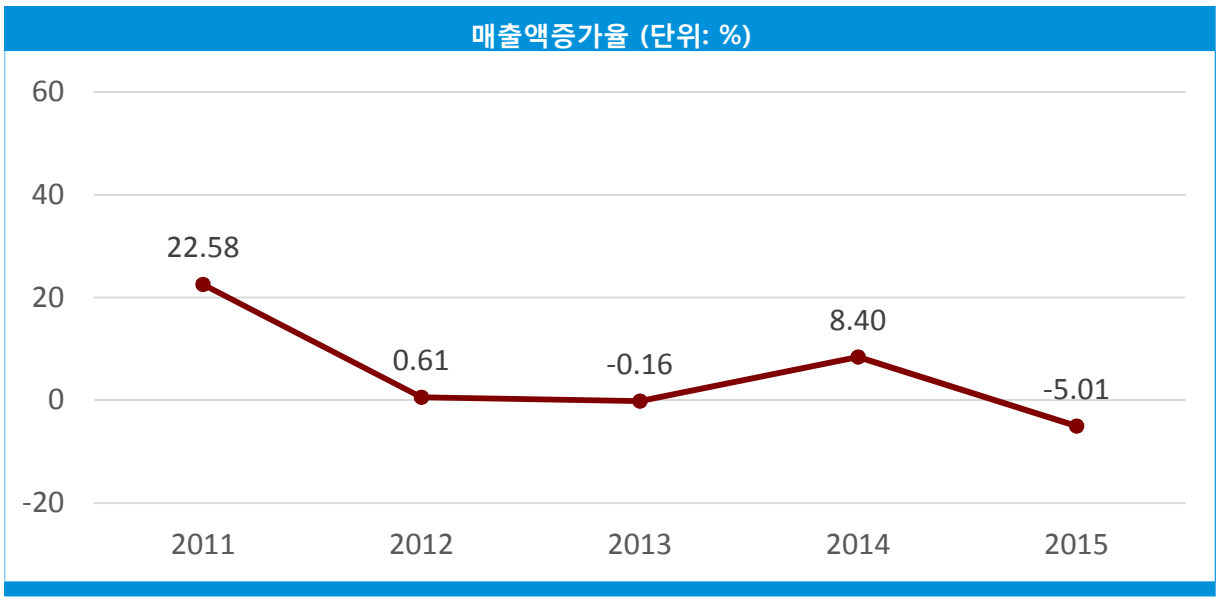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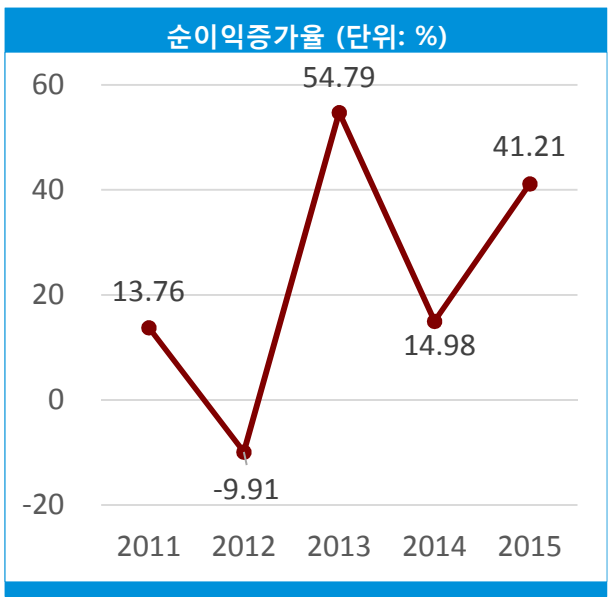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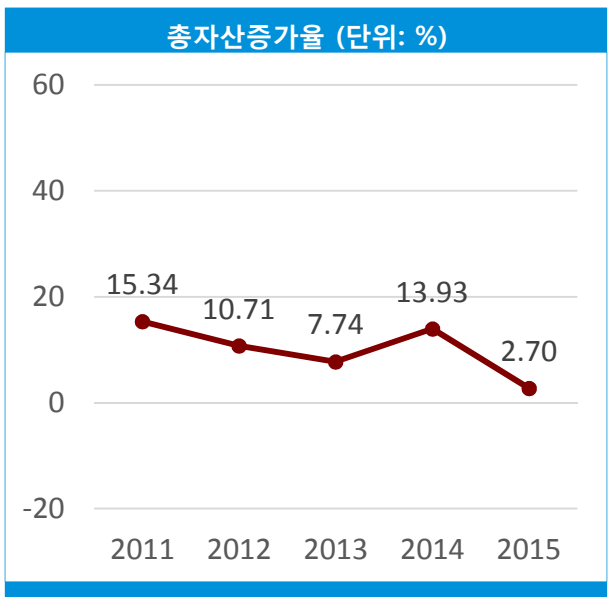
강주물 주조업

성장성

강주물 주조업은 강재 또는 합금강재로 강주물 및 합금강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강주물 주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2.58%에서 이후 급락하여 2013년에는 -0.1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4년 8.40%로 잠시 회복하는 듯 했으나 2015년에 다시 -5.01%로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이익증가율은 13.76%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41.21%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다. 한편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의 15.34%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2.70%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심한 순이익증가율을 제외하고, 강주물 주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은 점차 후퇴 또는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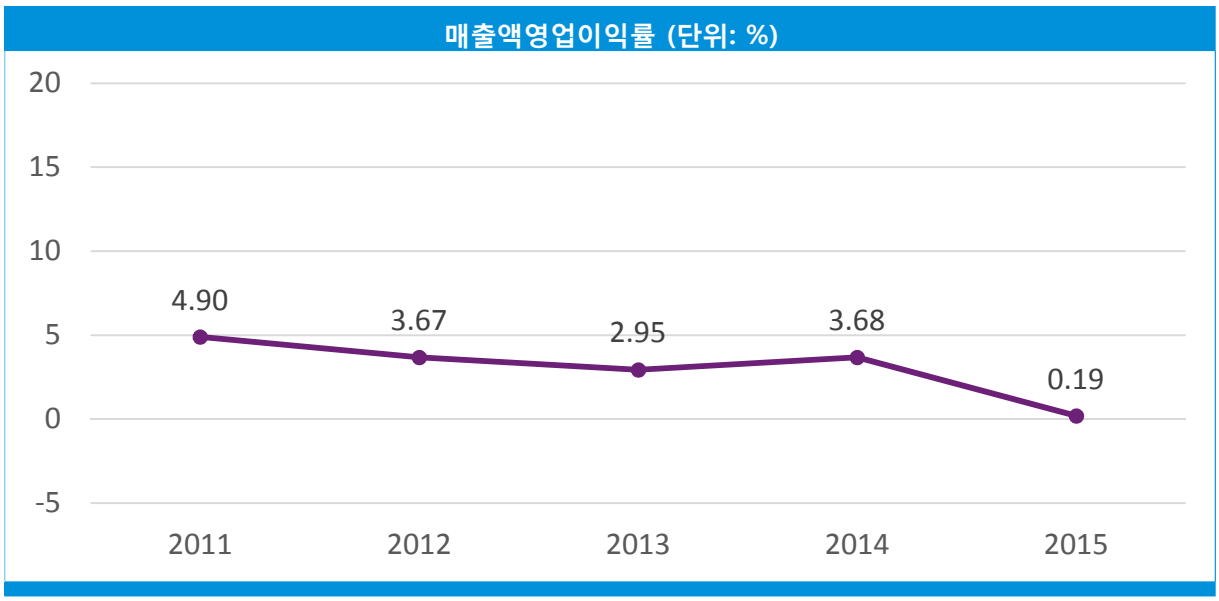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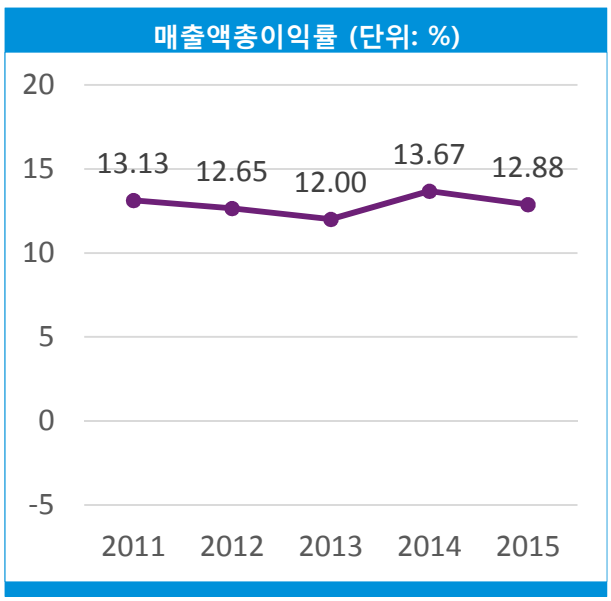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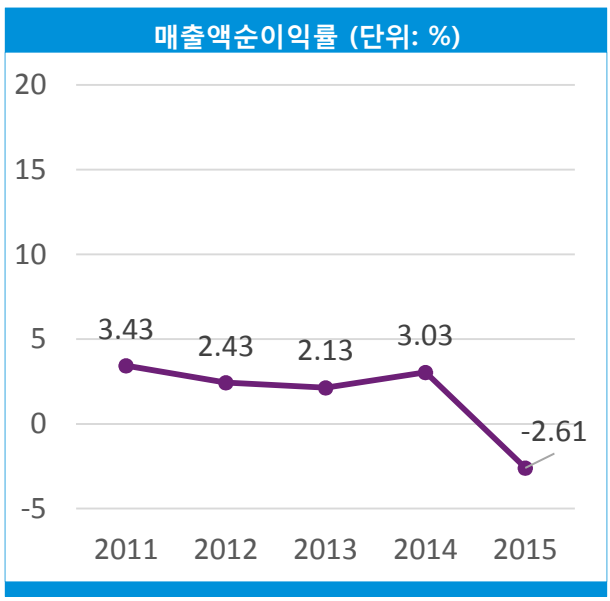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수익성

강주물 주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4.90%에서 2013년 2.95%까지 하락했고, 이후 2014년 단기간 상승했으나 2015년에 0.19%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총이익률은 2011년 13.13%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여 2015년 12.88%를 나타냈으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매출액순이익률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3%대를 일정하게 유지했으나 2015년에 급락하여 -2.61%로 업종 평균 적자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강주물 주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며 특히 2015년에 들어 하락폭이 커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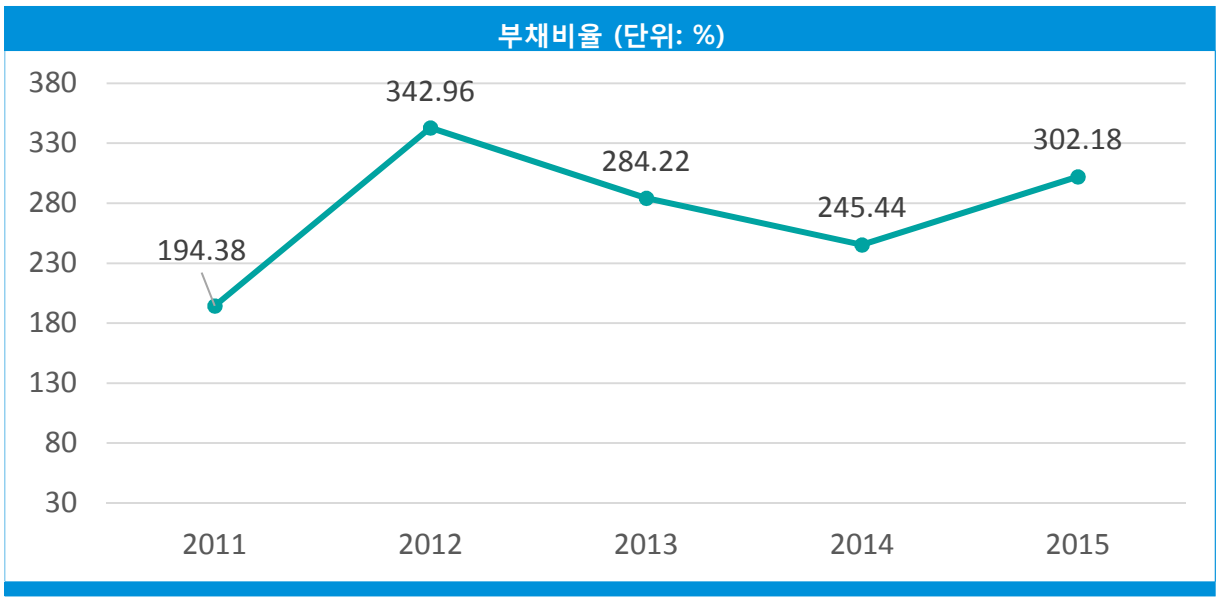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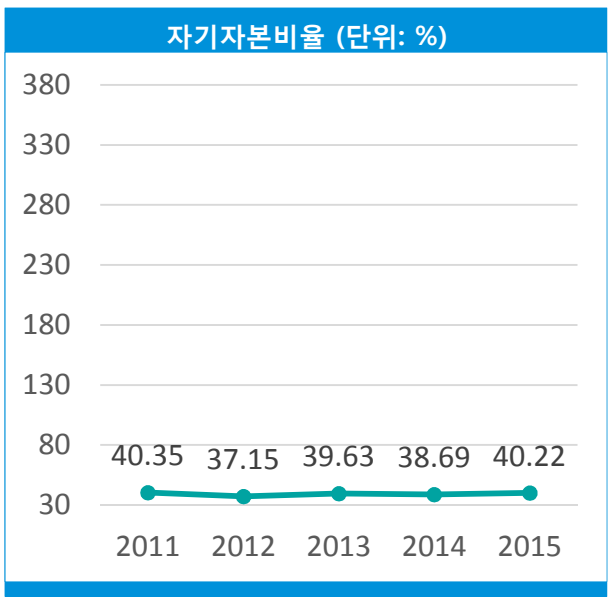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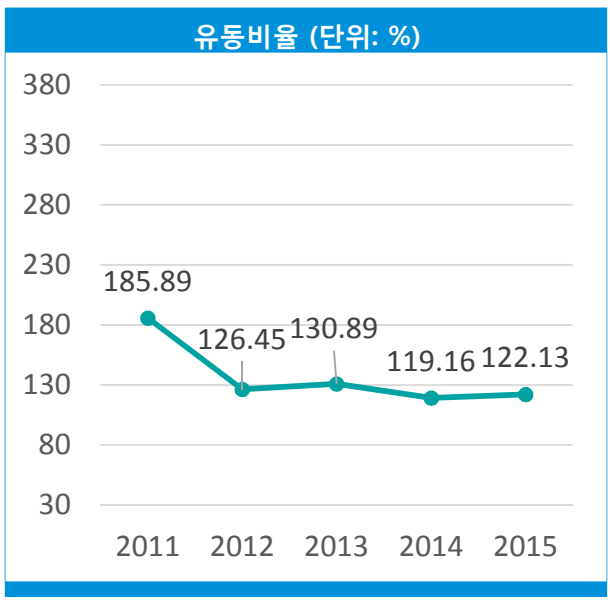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안정성·유동성

강주물 주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342.96%에서 2014년 245.44%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상승세로 전환되어 302.18%를 기록했다. 이는 철강 산업내 타 업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40.35%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 40.22%로 나타났는데 분석기간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비율은 2011년 185.89%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22.13%를 기록했다. 2015년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강주물 주조업의 재무적 안정성은 최근 악화되고 있으며, 유동성 또한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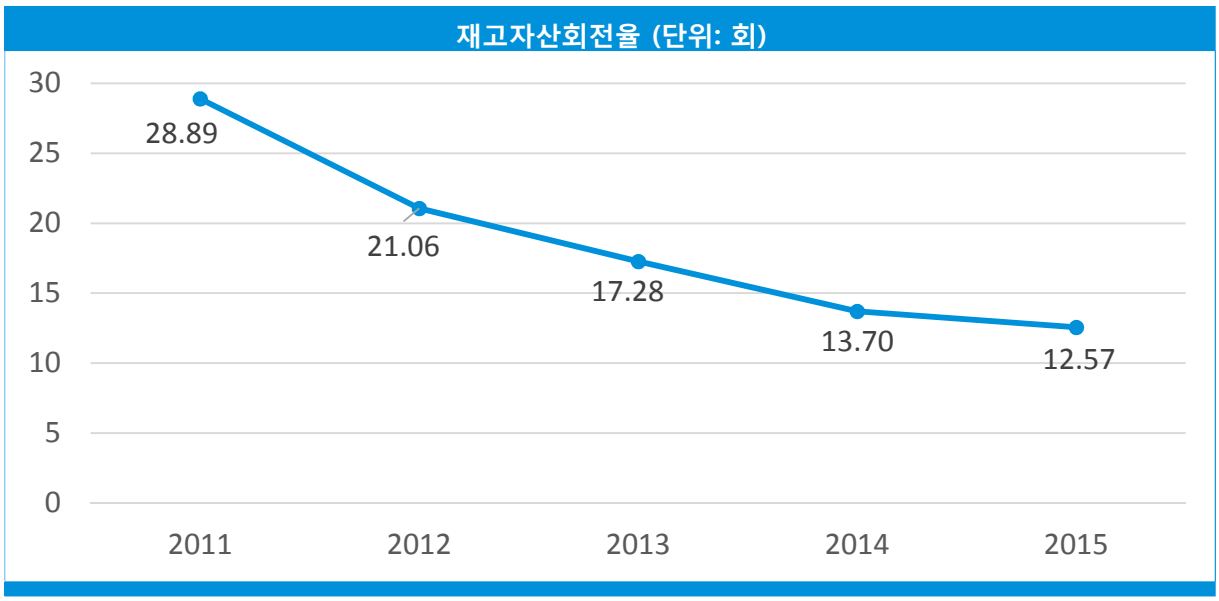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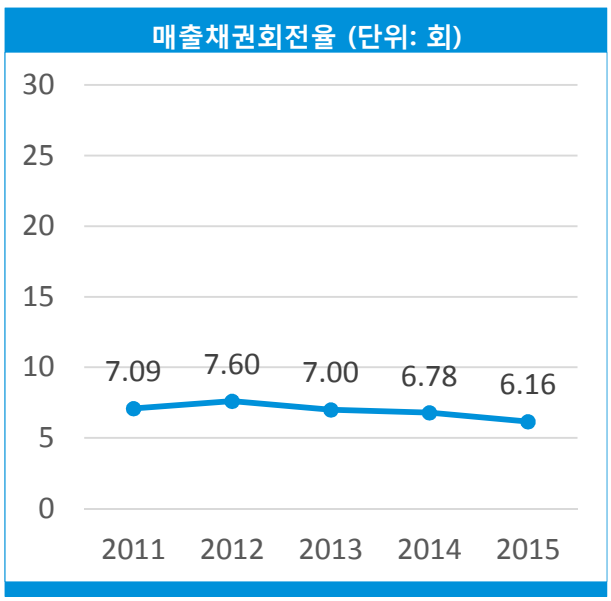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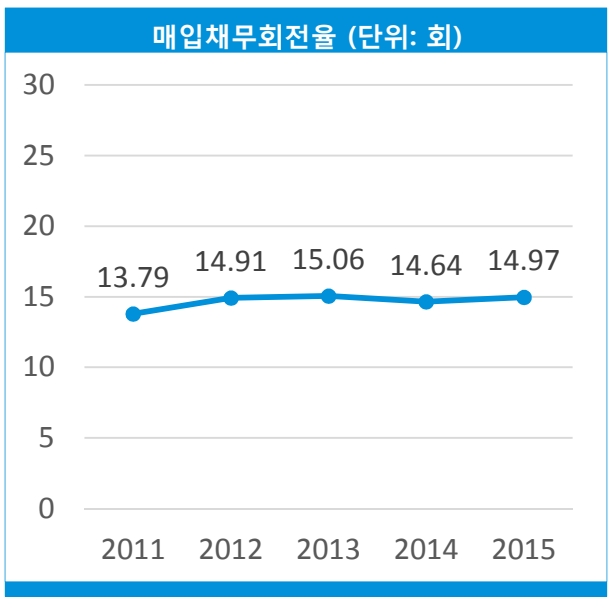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활동성

강주물 주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1년 28.89회에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2.57회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율도 2012년 7.60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16회를 기록했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은 2011년 13.79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14.97회를 기록했다.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의 하락은 재고자산관리와 현금흐름 유입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부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매입채무회전율의 상승은 유동부채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유출속도가 증가하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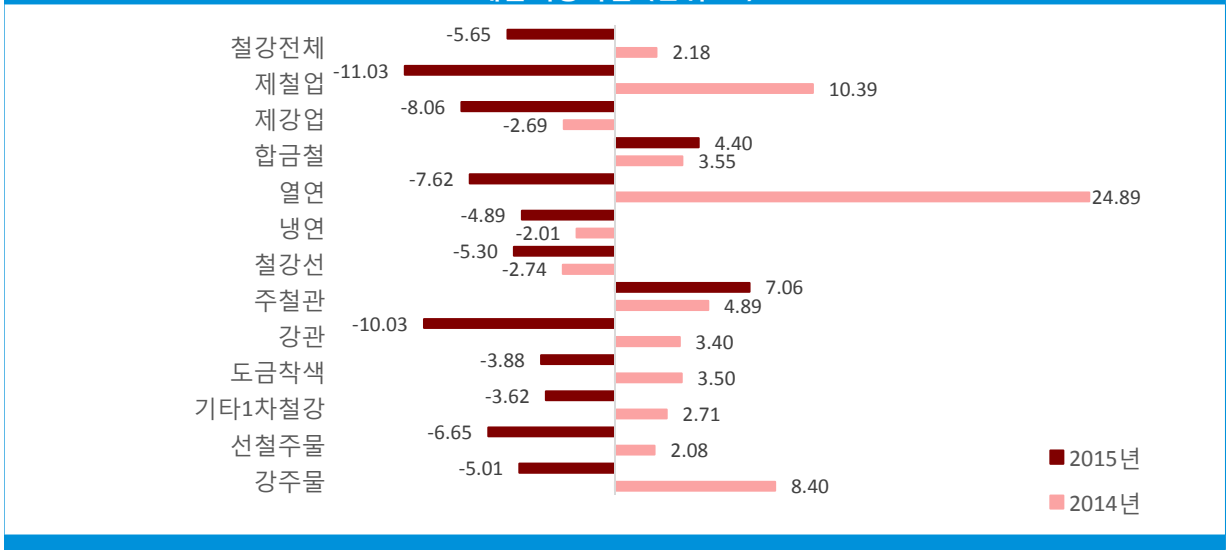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2015년 철강 산업 공급체인별 재무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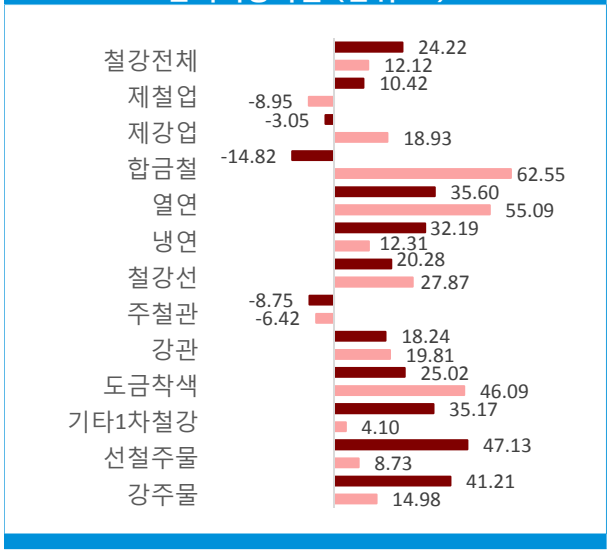
성장성

지금까지는 세세분류에 따른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4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업종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분석은 2015년도 수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는 2014년 수치를 참고로 제시한다.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주철관 제조업(7.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합금철 제조업이(4.4%)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산업내 모든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특히 제철업(-11.03%)의 매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이익증가율의 경우 선철주물 제조업(47.13%),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주철관 제조업(3.65%)이 산업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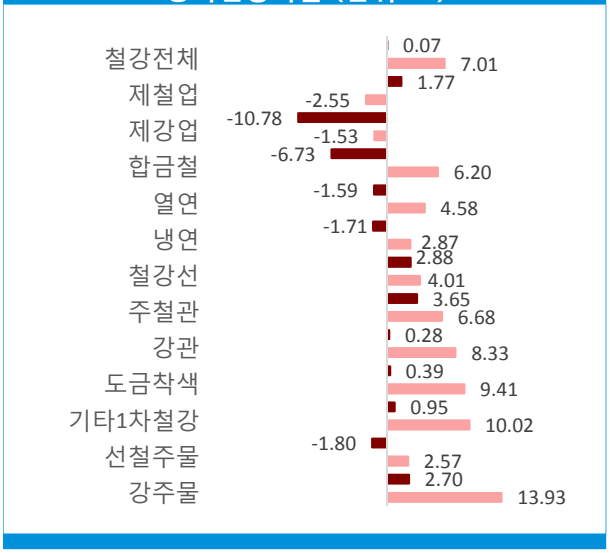
매출액증가율 (단위: %)



순이익증가율 (단위: %)



총자산증가율 (단위: %)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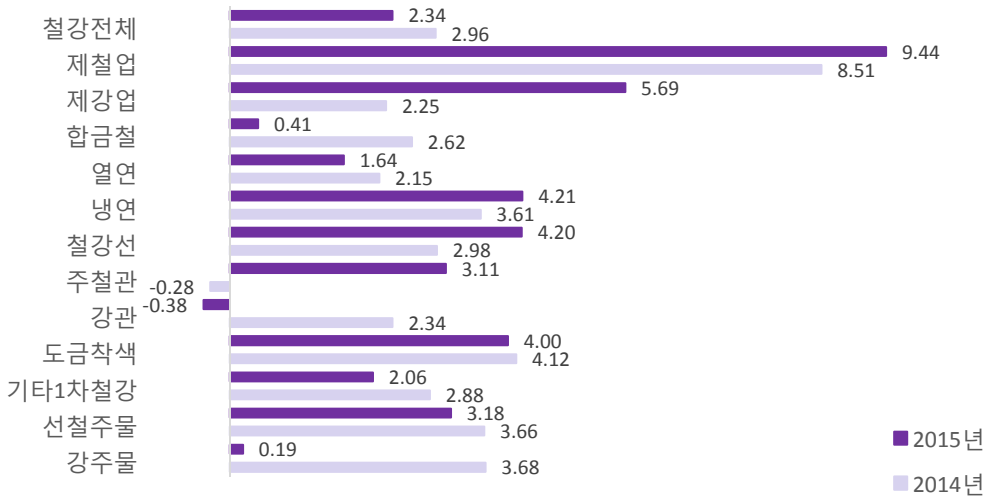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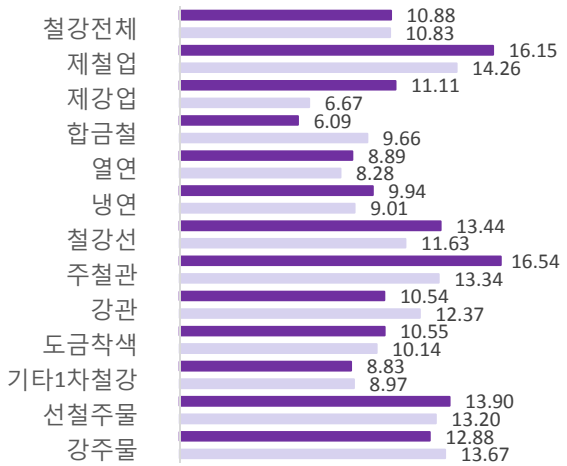
수익성

2015년도 철강 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을 세부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제철업(9.44%)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관 제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과 비교할때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강주물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총이익률의 경우 주철관 제조업(16.54%)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매출액순이익률은 제철업(5.30%)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합금철(-0.38%), 열연(-1.02%), 강관(-2.36%), 강주물(-2.61%) 제조업은 매출액순이익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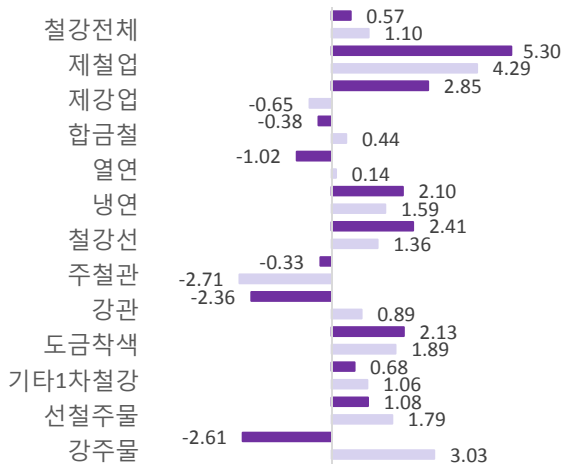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률 (단위: %)



매출액총이익률 (단위: %)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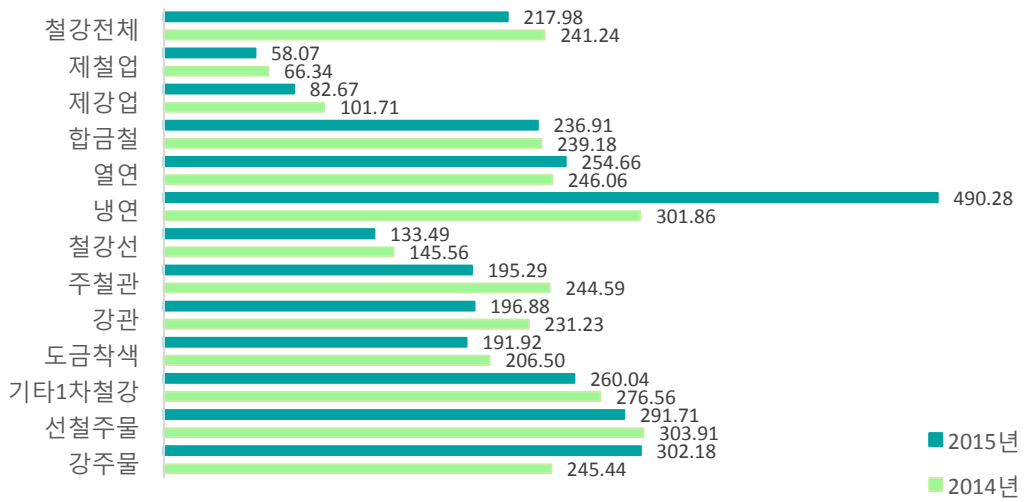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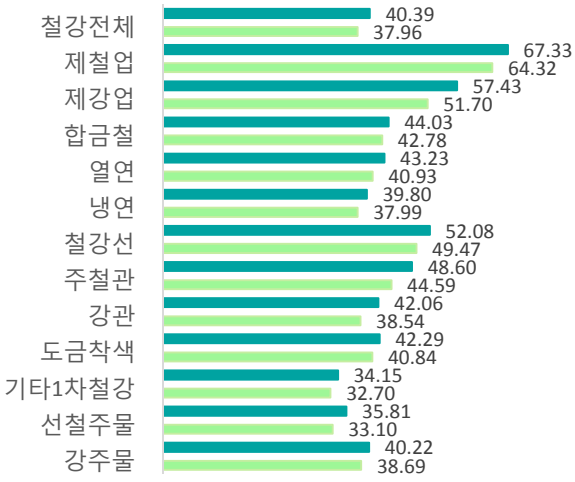
안정성·유동성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2015년도 재무비율을 바탕으로 철강 산업의 세부 업종간 안전성과 유동성을 비교해 보면, 냉연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490.28%, 자기자본비율은 39.80%로 산업내에서 장기적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철업의 부채비율은 58.07%, 자기자본비율은 67.33%로 산업내 장기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기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의 경우 철강선 제조업이 197.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선철주물 제조업이 100.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에 속한 업종들의 부채비율은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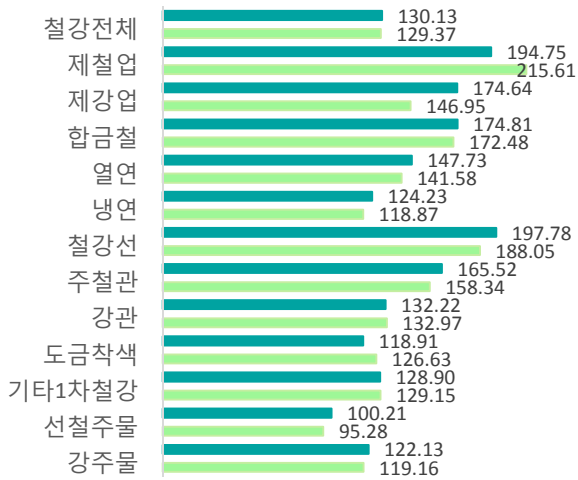
부채비율 (단위: %)



자기자본비율 (단위: %)



유동비율 (단위: %)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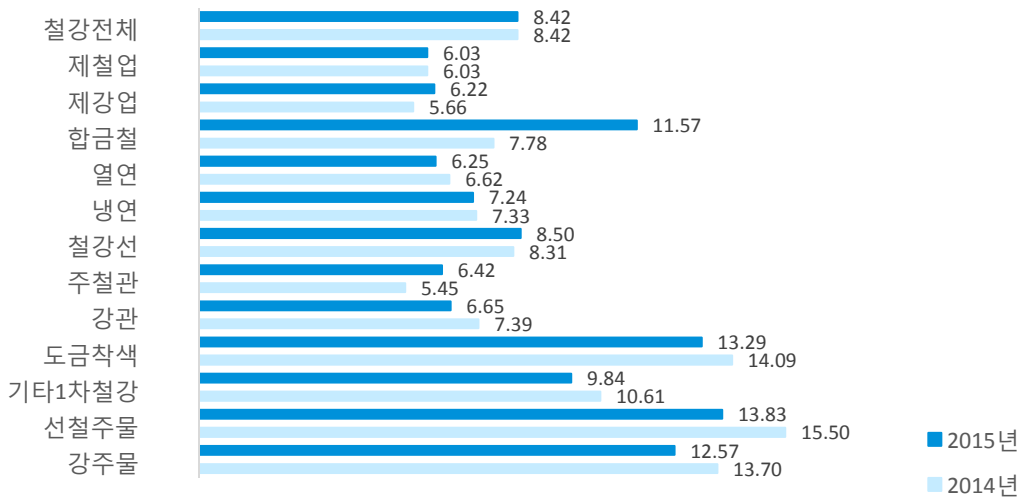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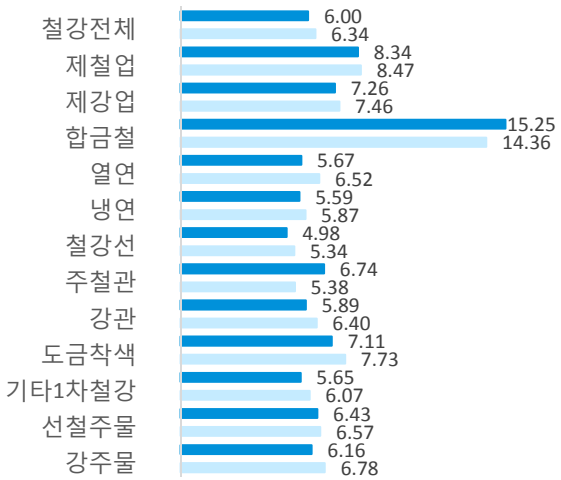
활동성

2015년 철강 산업의 활동성 재무비율을 세부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선철주물 제조업이 13.83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고관리가 산업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제철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6.03회로 산업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합금철 제조업이 15.25회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산업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철강선 제조업이 4.98회로 산업내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채무회전율은 합금철 제조업이 57.11회로 산업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강업이 11.28회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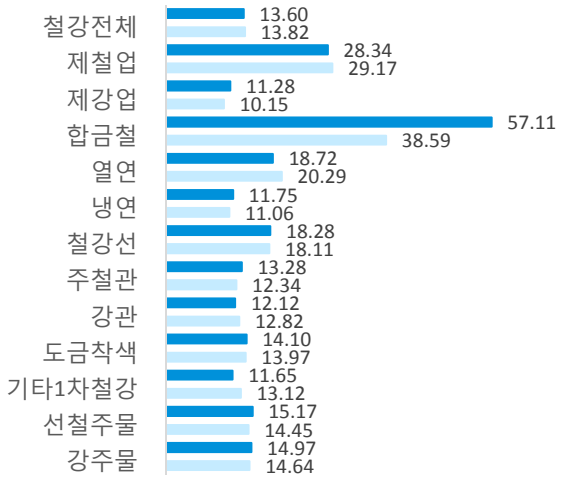
재고자산회전율 (단위: 회)



매출채권회전율 (단위: 회)



매입채무회전율 (단위: 회)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pendix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 정의 및 예시와 외감대상기업수			
세세분류	정의	예시	외감대상기업수 (2015년)
제철업	철광석, 원료탄 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선철, 주철과 경철 제조	2
제강업	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 파일링, 형강 등과 같은 1차 형재 또는 반제품상태의 철강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차 형강재 제조, 반성강재 제조	4
합금철 제조업	탄소 이외의 원소를 다량으로 함유하는 선철의 일종으로 주로 합금강 또는 합금 주철의 제조와 제강 작업에 있어서 탈산제, 탈황제 및 탈질제로서 사용	망간합금철(망간철) 제조, 텅스텐합금철 제조, 크롬합금철 제조, 니켈합금철 제조, 실리콘합금철 제조, 바나듐합금철 제조	13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금속을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압연하는 방식으로 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	철강열간압연 제품 제조, 스테인레스강 평판 제조(열간), 합금강 평판 제조(열간), 철강 봉 제조(열간), 철강 형강 제조(열간),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 철강 제조	39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열간 압연강재를 상온에서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냉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 철강 판, 시트, 봉 및 형재 제조(냉간)	32
철강선 제조업	선재, 봉, 바 등의 1차 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철 및 비합금강의 선 제조, 스테인레스강선 제조, 합금강의 선 제조, 철강선 제조	30
주철관 제조업	주형, 주조 또는 원심분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철관, 중공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주철 중공프로파일 제조 ·주철관 연결구류 제조	23
강관 제조업	강재를 단조·인발·압출, 용접 및 기타 가공하여 무계목강관, 단접강관, 용접강관, 박질강관이나 튜브 및 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박질강관 제조, 단접 철강관 제조,철강관 연결구 제조, 압출 철강관 제조, 강관 제조, 철강튜브 제조, 중고 철강관 재생인발제품 제조	125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pendix

철강 산업의 세세분류 정의 및 예시와 외감대상기업수			
세세분류	정의	예시	외감대상기업수 (2015년)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제조업	구입한 철강재를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열처리 강재 생산, 주름처리 강재 생산 도금, 도장 및 피복 철강재 제조	22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열간 또는 냉간제품을 제외한 기타 형강, 단공강재, 용접형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됨	단공강재 제조, 용접 형강 제조, 절단가공 철강재 생산, 절단 철강 판재 생산	127
선철주물 주조업	선철 또는 합금철로 각종 선철(회)주물 및 가단 철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가단철주물 주조, 합금철주물 주조, 정밀 선철주물 주조, 정밀 합금철주물 주조	40
강주물 주조업	강재 또는 합금강재로 강주물 및 합금강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강주물 주조, 합금강 주물 주조, 정밀 강주물 주조, 정밀 합금강주물 주조	32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삼정KPMG 철강 전문팀

조자영
부대표
02-2112-0640
jjo@kr.kpmg.com

최세홍
상무이사
02-2112-7628
sehongchoi@kr.kpmg.com

이주한
상무이사
02-2112-0517
juhanlee@kr.kpmg.com

변재준
상무이사
02-2112-0828
jbyun@kr.kpmg.com

강성채
상무이사
02-2112-0635
sungchaekang@kr.kpmg.com

배정규
상무이사
02-2112-0615
jbae@kr.kpmg.com

이상근
상무이사
02-2112-0863
sangkeunlee@kr.kpmg.com

www.kr.kpmg.com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